

제7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청동기시대 생산과 소비적 관점에서 바라 본 경제활동

- 일 시 : 10월 11일(금) 10:00~18:00
- 장 소 :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대강당
- 주 최 : 한국청동기학회
- 후 원 : 동북아지석묘연구소 울산문화재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중부고고학연구소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3. 10.

韓國青銅器學會

제7회 청동기학회 학술대회

- ▣ 주제 : 청동기시대 생산과 소비적 관점에서 바라 본 경제활동
- ▣ 일시 : 2013.10.11 (금) 10:00~18:00
- ▣ 장소 :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대강당

사회 : 허의행(한국고고환경연구소)

개회

10:00 ~ 10:20 접수

10:20 ~ 10:30 개회사 ----- 안재호(한국청동기학회장)

주제발표

제1발표 10:30 ~ 11:00 생산과 소비체계에 대한 일고찰 -서구의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 : **이희진**(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제2발표 11:30 ~ 11:30 유물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북한강유역의 생산과 소비
----- 발표 : **홍주희**(강원고고문화연구원)
----- 토론 : **손준호**(한국고고환경연구소)

제3발표 11:30 ~ 12:00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구조와 농경생산
----- 발표 : **나건주**(금강문화유산연구원)
----- 토론 : **이형원**(한신대학교 박물관)

◆ 중식 12:00 ~ 13:30

오후 사회 : 박영구(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

제4발표 13:30 ~ 14:00 송국리형취락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의 생산과 소비
----- 발표 : **이종철**(전북대학교 박물관)
----- 토론 : **고민정**(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제5발표 14:00 ~ 14:30 경작유적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의 생산과 소비 -남강유역의 경작유적을 중심으로-
----- 발표 : **윤호필**(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토론 : **유병록**(우리문화재단연구원)

제6발표 14:30 ~ 15:00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석기생산 시스템 연구
----- 발표 : **황창한**(울산문화재단연구원)
----- 토론 : **김권중**(중부고고학연구소)

◆ 휴식 15:00 ~ 15:20

◆ 종합토론 15:20 ~ 17:20 ----- 토론 좌장 : **김권구**(계명대학교)
----- 발표자 및 토론자

◆ 총회 17:20~18:00

◆ 만찬 18:30~

목 차

■ 주제발표

1. 생산과 소비체계에 대한 일고찰 -서구의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7
이희진(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2. 유물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북한강유역의 생산과 소비 21
홍주희(강원고고문화연구원)
3.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구조와 농경생산 51
나건주(금강문화유산연구원)
4. 송국리형취락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의 생산과 소비 77
이종철(전북대학교 박물관)
5. 경작유적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의 생산과 소비 -남강유역의 경작유적을 중심으로- 97
윤호필(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6.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석기생산 시스템 연구 123
황창한(울산문화재단연구원)

■ 토 론

1. 「유물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북한강유역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토론문149
손준호(한국고고환경연구소)
2.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구조와 농경생산”에 대한 토론문154
이형원(한신대학교 박물관)
3. 「송국리형취락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토론문158
고민정(경남발전연구원)
4. <경작유적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의 생산과 소비> 토론문162
유병록(우리문화재단연구원)
5.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석기생산 시스템 연구」에 대한 토론문165
김권중(중부고고학연구소)

주제발표

생산과 소비체계에 대한 일고찰

- 서구의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

이 희 진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목 차〉

- | | |
|-----------------|-------------------------------|
| I. 서언 | III. 규모(scale)에 따른 생산과 소비의 양상 |
| II. 생산과 소비의 개념 | 1. 세대 혹은 주거단위 내 |
| 1. 생산 | 2. 취락 내 |
| 2. 생산물의 소비와 재분배 | 3. 취락 간 혹은 광역적 네트워크 |
| | VI. 결어 |

I. 서언

한반도 청동기시대 문화의 생업과 과거의 일면은 그동안 축적된 방대한 발굴자료와 연구를 통해서 점차 그 실체가 확인되고 있다. 물질자료의 편년과 형식학적 연구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당시의 사회와 경제를 다각도로 복원하는 작업도 사회복합화(김장석 2007, 김승옥 2006)의 전개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변화의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서 청동기시대 생업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화인 수도작의 확산과 정착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지의 식물고고학적 연구에서 탄화미의 높은 출현률과 함께, 맥류와 잡곡 등의 다작물의 재배가 가능했던 복합농경체계가 확립되어 있음이 규명되었다(안승모 2008). 이와 더불어 남강 유역 일대에서 나타난 대규모의 전작지, 논산 마전리 유적과 같이 관개체계를 갖춘 수전유적을 통해서 상당히 진전된 농경기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곽종철 2002). 이와같은 농경의 발달은 곧 이의 생산과 소비 체계를 근본적으로 혹은 제한적으로 변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문화적 변화를 물질자료에서 찾으려는 일련의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생산에 관해서는 면적당 벼의 산출량의 추산을 통해서 청동기 시대 이래 수전의 생산력의 규모를 추정한 연구(이홍중 1997; 곽종철 2002)와 청동기시대 후기에 출현하는 대형의 수혈을 대상으로 저장수혈의 등장이 잉여의 통제와 집중화 및 취락 간 생산과 소비 기능의 분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김장석 2008) 한다는 연구 등이 가장 직접적으로 농경생산물의 생산과 소비의 주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옥이나 청동제품과 같은 위신재의 제작과 유통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으로 청동기시대의 생산과 소비체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및 실제 한반도 청동기시대 자료의 대입과 적용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동기시대의 문화·기술 수준의 사회에서의 경제가 구성되고 작동하는 양상에 대한 일련의 연구경향을 살펴보고, 선사시대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서구에서의 몇 가지 모델과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들어가기에 앞서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은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즉 생산과 분배를 포함한 소비체계와 이들의 유기적 연계와 상호작용의 성격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경제를 규정하는 하나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생산은 사회가 존재하기 위한 물질적인 수단을 조달하는데 목표를 둔 모든 활동의 총체이며 인간과 환경사이의 일정한 관계에 대한 기술적인 기준(norms)과 인간과 생산의 요소들의 활용 사이의 관계를 지배하는 사회적 기준의 두 범주에 속하는 특성을 보인다(Godelier 1978; Morrison 1994에서 재인용)는 것이다. 기술과 생산물의 물질적인 측면과 비물질적인 측면이 동시에 발현하는 경제체제의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생산과 소비의 모델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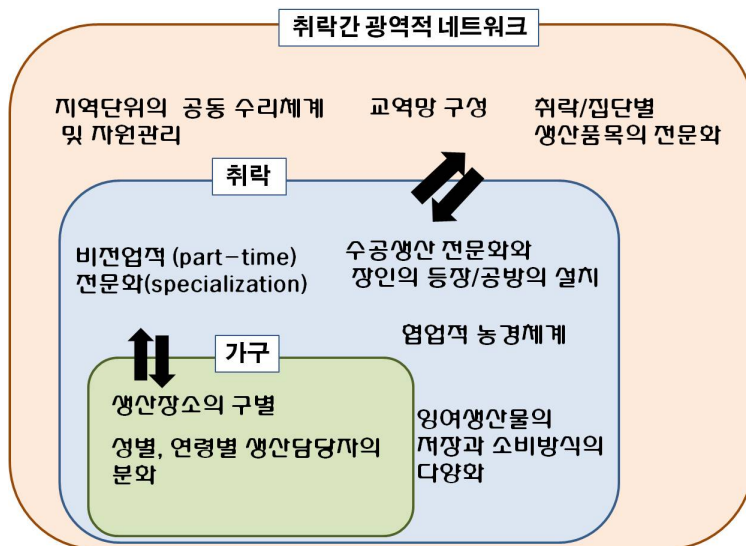


그림 1. 생산과 소비체계의 규모에 따른 구분에 대한 모식도

II. 생산과 소비의 개념

1. 생산

‘생산(production)’의 개념을 목적에 따라서 그 영역을 보다 세분한다면 첫째는 생계를 위한 생산, 두 번째는 저장, 손실보존, 흉작 등을 대비한 일반적 잉여(normal surplus)가 있으며, 세 번째는 의례, 상호호혜 교환 등을 위한 ‘사회적 생산’ 마지막으로 ‘교역을 위한 생산’으로 나뉜다(Morrison 1994). 그리고 원시사회에서 농경활동과 수공품의 전문적 생산(craft specialization)은 초과적인 생산물을 발생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다. 초과적인 생산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생산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집약화(intensification)의 현상을 유발한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의 집약화(Intensification of production)는 양의 증가와 함께 ‘집중’에 방점이 찍히는 과정으로(Morrison 1994), 기술적 진보, 노동력의 재분배와 같은 생산수단과 에너지의 집중을 의미한다.

그런데 생산활동의 두 축인 농경과 수공업 생산이 집중화되는 방식은 조금 상이하다. 농경생산은 기본적으로 생계를 위한 생산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초기의 다른 수공생산보다 노동력과 물자의 투입의 절대량이 크며, 상대적으로 환경조건이 생산량의 증감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농경생산활동의 지향점은 가능한 안정적으로 생산량을 증대하는 것으로서 이의 성패는 잉여의 발생도와 연결지어진다. 농경생산체제의 발달과 집약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표지로는 수리시설의 설치, 연작경영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경작기술의 발달, 경작면적의 확대(조방화) 등으로 발생하는 기술적 복잡화를 들 수 있다(Morrison 1994; Spencer and Stewart 1973). 또한 사회구성원의 노동력을 적절한 농경행위에 시기적, 공간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 및 관리조직의 존재 또한 일종의 집중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집약화를 거쳐 증가하는 농경생산성은 사회에 일반적 잉여(normal surplus)를 넘어 사회적 생산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인구부양력의 증대를 비롯하여, 농경지의 소유, 노동력의 활용, 농경활동의 지도, 잉여생산물의 분배 등을 통제하는 엘리트 계층의 정치적 입지가 형성되고 재분배와 생산에 관여하는 엘리트의 통제 및 교역, 축적 등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파생적으로 혹은 엘리트 계층의 의도적 관여하에 사회구조의 복잡화와 계층화를 발달시키고 관념적으로 상징화시킨다(Hayden 2007).

농경생산과 맞물려 이루어지는 수공품의 전문화는 초과생산이라는 기본적 전제는 동일하지만, 실제의 양상은 여러 사회적 구조의 충위를 가지는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의 다양성을 하나의 기준으로만 분류할 수는 없지만, 규모와 조직 등의 면에서 Costin(2001)은

전문화의 성격과 발달정도를 포괄적으로 몇 단계로 구분하였다. 가장 초기의 전문화의 모습은 비상시적이고 일시적인 과다 생산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진다. 선물교환이나 축제용의 일시적 수요증가와 같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작은 규모의 생산의 형태로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대부분의 원시사회에서 이러한 정도의 전문화의 모습은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보다 분업적인 성격이 강해지는 형태의 전문화는 비전업적(파트타임) 전문화의 고착과 전업적 전문화의 주기적인 상시화이다. 가장 일반적인 예는 토기 생산에서 성별, 연령별로 전담하는 구성원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필리핀 Kalinga-Apayao 지역의 원시부족의 민족지적 관찰의 경우에는 주로 여성들이 생산하는 토기가 주변 지역의 교역에 사용되었다(Stark 1995). 이러한 초보적인 생산전문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농경지가 부족한 지역에서 혹은 농경생산물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지역으로부터 곡물이나 필요한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적인 생산 수단이라는 농경생산력 부족과 한계 가설(agricultural marginal conditions)이 가장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다(Costin 2001, Harry 2005).

그러나 실제 연구사례에서는 이 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동인으로서 지목되고 있다. 농경과 수공생산 모두 인구증가(demographic pressure)에 따른 생산력 증대의 필요성, 가용자원의 지리적 한정(locational circumscription)에 의해 적응- 확장- 집약화로 이어지는 생산효율의 증대, 경제악화(economic impoverishment), 기술변화(technological change), 가구/세대 공동체 별로 농경생산물의 부족이나 가구별 수입을 극대화하기 조치에서 시장에서의 추가소득(incentives of the market)을 목표로 하거나, 환경악화와 비예측성(environmental deterioration or unpredictability), 친족기반의 호혜교환(reciprocal exchange demands within kin-based social systems), 그리고 신분상승을 위한 경쟁(competition for status) 등이 있다(Morrison 1994; Costin 2001; Harry 2005). 또한 환경적인 조건도 전문화를 촉진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호호캄 문화기의 Tucson 분지에서의 토기전문화와 교역의 예와 같이 특정광물의 산지에 입지하여 그 이점을 활용한 경우(Harry 2000, 2005)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복수의 변인들이 동시에 동인으로서 작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보다 고도화된 전문화는 장인 혹은 제작자(specialist, 보다 전문적으로 artisan)의 본격적인 등장과 공방(workshop)의 설치에 의해서 제도화(institutional)되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장인을 정의하는 몇 가지 특성은 본인을 위한 자급자족적인 생업적인 활동에서 어느 정도 제외되며,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물질적인 대가를 보상받는다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독립적으로 생산과 그 대가를 수급할 수 있는(independent) 장인이 있으며, 후원자 등에

의해 생산과정이 통제되는 종속적(attached) 장인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종종 족장사회에서의 엘리트 계층은 위신재의 공급에 있어 장인과 생산과정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인다(Peregrine 1991).

공방의 종류를 좀 더 세분하면 분산된 공방(dispersed workshop): 소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지역 내 수요를 감당하는 생산을 하는 분산된 공방, 공동체적 전문화(community specialization): 집단 내에 결집되어 있으며, 자가적인 개인이나 가구 규모의 생산단위로 역시 소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지역 내 수요를 감당하는 생산을 수행한다. 결집된 공방(nucleated workshop): 단일사회 내에서 공방들이 모여있는 형태로서 이곳에 투여되는 노동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가 가능하다. 분산된 (강제적 성격을 보유한)노동(dispersed corvée): 특정한 경우에만 엘리트나 상위 행정기관을 위한 비전일적(파트타임) 노동을 제공, 결집된 노동(nucleated corvée): 특정한 경우에만 엘리트나 상위 행정기관에 의해 고용된 경우가 있으며 장인의 경우도 개별적, 그리고 집단의 형태로서 공방에 속해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Costin and Hagstrumd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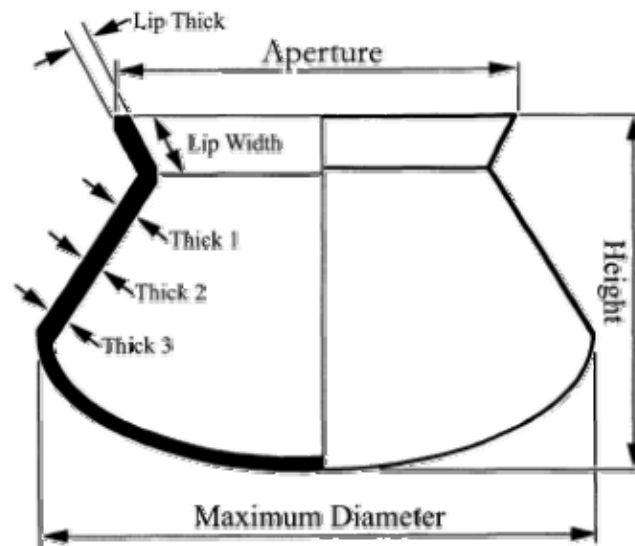


그림 2. 토기의 기술적 속성의 예시 (Roux, 2003에서 발췌)

또한 전문화는 장인집단의 기술의 전수과정을 통해서 생산량 증가 및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생산물의 규격화(standardization)를 유도하는 기제로서 작용한다. 규격화의 양상은 수요자의 요구, 장인의 제작기술과 수준, 지역적 전통 등의 변수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가지면서 나타나는데, 의도적으로 시문되는 문양과는 달리 기벽이나 구연부의 형태와 같이 소성

사에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기술적 속성(mechanical attributes) 등에 반영되어 있으며 개체사이의 동질화 정도에 따라 규격화의 발생여부를 구분하기도 한다(Roux 2003; Hayashida 1999) (그림 2). Roux(2003)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토기를 대상으로, Costin and Hagstrum(1995)은 잉카 토기의 기술적 속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기종별로 나타나는 변이정도의 수치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규격화 정도와 생산형태를 추론하는 시도가 있었다.

2. 생산물의 소비와 재분배

재분배의 형태는 자발적, 의무적, 강요의 성격을 띠며 모든 형태의 교환에서 이러한 속성이 다소간 존재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분배(distribution)라는 용어는 개인과 집단간의 물질이 전달되는 ‘과정’, 그리고 물품이 이동한 후의 ‘공간’ 적 패턴을 의미한다. 교환은 원료에서 최종산물의 장소적인 이동을 말하며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의 교환과정은 모든 형태의 전문화와 초과생산의 형태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소로서 생산체계와 연동되어 발달한다. 공간적으로 분류하면 생산지 내에서의 생산물의 재분배, 선물(자발적인, 대가가 없는 형태), 상호호혜 교환, 시장교환, 의무적인 전달(세금과 공물 등의 형태)로서 보다 광역적으로 소비되고 재분배된다(Costin 2001).

Ⅲ. 규모(scale)에 따른 생산과 소비의 양상

1. 세대 혹은 주거단위 내

가구/세대 공동체(household level) 내에서 생산과 소비활동을 위한 공간의 발생은 관련 행위의 기능적 분화 및 집중도의 상승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생산과 관련하여는 협의에서 간헐적 혹은 비전업적인 파트타임 장인출현 및 노동의 분화를 동반하는 작업공간(locus of production)이 나타나며, 더 공간적으로 확대 및 분화되면 취락 내에서 공방(workshop) 등의 등장으로 본격화된다.

소비의 모습은 곧 사회의 다양한 사회구조 및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다. 위신제의 사용은 말할 것도 없이 일상재이자 농경생산물인 음식(food)에서도 그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음식을 준비하고 소비하는 문화적으로 규정되는 고유의 방식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 및 재확인에 의거한다(Gumerman 1997). 농경산물의 개인적인 소비상은 인골자료가 있

는 경우 질소, 탄소 동위원소분석을 통해 그 일면을 살펴볼 수 있으며, 형태에 따른 기종에 따른 토기의 조합상(pottery assemblage)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농경생산물의 가구 내 소비상은 다음과 같다. 음식의 준비(preparation)와 가공(processing) 과정에서 생계를 위한 소비상을 살펴볼 수 있다. 식물고고학적 연구는 가공과정에서 생산지와 소비지에서 낱알, 겨, 짚과 같이 식물의 부위별로 잔존물의 종류와 양이 다를 수 있다는 모델을 통해서, 탈곡, 생산지, 소비지, 저장시설 등의 공간의 해석에 대한 사례들을 제공해주고 있다(Stevens 2003).

한편으로 작은 규모에서는 가구 내, 보다 확장하면 취락 내 노동의 분화에 있어서 주시해야 할 하나의 측면은 성별에 따른 작업의 구별이다. 이는 예술품을 비롯한 다양한 물질문화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된 경우가 많으며, 직조, 토기생산, 농경 및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여성의 역할에 대해 고려한 연구사례가 있다(Costin 2001; 김종일 2009; 김영심 2009).

2. 취락 내 (intra-settlement)

소비양상과 연관된 직접적인 흔적을 반영하는 것으로는 생산물의 저장장소의 분화를 들 수 있다. 농경의 산물의 잉여와 저장 엘리트 소비양식의 차별화와 대형의 저장장소의 등장은 때로는 종속적 장인의 발생을 암시한다. 그러나 저장시설의 등장과 그 용도 및 발생 정황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농경의 기원지 중 하나이자 최초로 인류가 정주생활을 시작한 지역인 근동에서의 저장시설은 초기의 단계에서는 환경의 악화 등에 대비하여 위기관리의 일환으로서 채집으로 획득한 수확물을 소규모의 구덩이에 저장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저장시설의 등장은 농경이 정착되고 생산량이 증대되는 시기보다 선행하여 정주생활이 정착되는 시기와 맞물리지만, 규모는 작물화 이후에 크게 증대된다(Kujit 2008, 2009).

그리고 이보다 농경이 진전된 후대의 사회에서는 저장시설의 형태와 이의 등장과 소멸과정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맥락 하에서 다분히 초과생산물의 저장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영국 철기시대의 특징적인 토축 건조물이자 입지 및 구조에서 상징성이 강한 토루(hillfort)들에서는 곡물을 저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크 형을 비롯한 일련의 수혈저장시설이 등장하다가 철기시대 말기에 로마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사라지는 정황이 간취되었다.

이에 관한 해석으로서 이 수혈들이 부족집단의 공동 소유의 저장고로서 기능하며 잉여생산물의 축제(feasting) 등의 대규모 소비를 대비하여 축조되었다는 가설이 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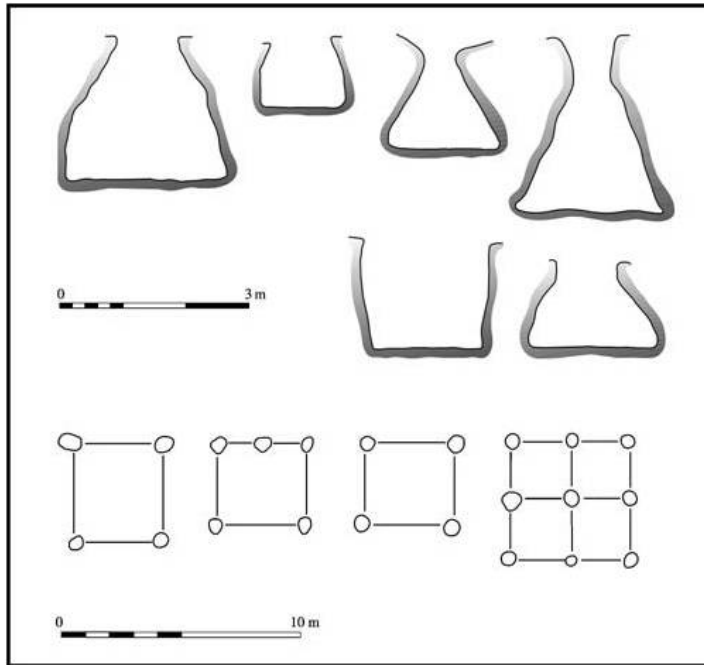


그림 3. 영국 철기시대의 수혈식(위) 저장시설과 고상창고(아래)
(Cunliffe 1991, Van der Veen and Jones 2006에서 발췌).

이들이 사라지게 된 하나의 원인은 후에 로마와의 와인과 장신구류 등의 사치품교역이 늘어나면서 교역의 대상으로서 반출되면서 곡물의 소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부의 과시방법과 집단 내 계층화의 수단이 대규모의 축제가 아닌 사치성 물품의 소유와 차별화된 생활 방식으로 대체되면서 이에 따라 대형의 수혈저장이 불필요해 졌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van der Veen & Jones 2007). 저장시설의 등장과 증감양상을 보다 엘리트 계층의 통제와 연관지을 수 있는 사례는 북미의 중부 알라배마지역에서 미시시피문화기에 나타난 저장시설의 통시적인 변화양상을 들 수 있다. 초기 미시시피문화기(Early Mississippian period)에 사라지기 시작하는 가구 내 수혈저장시설은 엘리트 파워가 강력해지는 시기에는 지역에 따라 완전히 소멸한다. 대신 잉여생산물의 공동체적인 취합과 관리를 반영하는 지상창고(above-ground granaries)가 이를 대체하며,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의 재분배를 넘어 잉여생산물의 통제와 곡물과 위신재의 광역적 교역에서 엘리트의 통제가 강했던 정황을 반영한다. 그러나 다음 시기(protohistoric and Historic phase)에는 가구 내 수혈저장시설이 재등장하며 점점 크기가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그림 4). 이러한 현상은 족장권력이 잉여생산물의 재분배를 수행하면서 갖는 영향력의 약화와 가구별 저장관리 체계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었다(Wessen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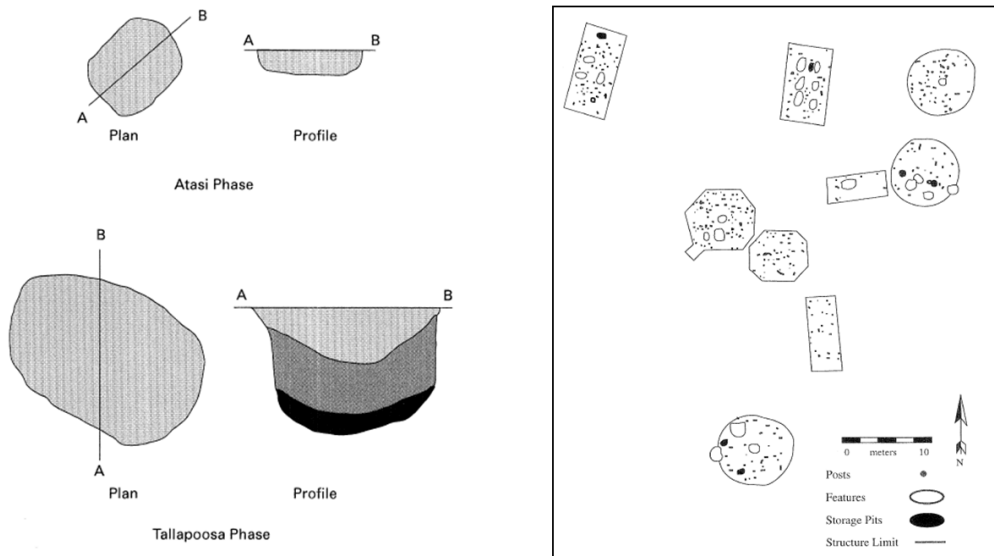


그림 4. Fusihatchee 유적의 Atasi기 (AD 1550-1715)와 Tallapoosa기 (AD 1715-1832)의 수혈저장시설(좌측)과 Atasi기의 주거지 (우측) (Wessen 1999에서 발췌).

3. 취락 간 혹은 광역적 네트워크 (extra-settlement, regional)

취락 간의 물질적인 교환은 필히 원시교역과 전문화를 동반한다. Kalinga 지역에서 행해진 Stark 등의 연구사례는 인척 등의 관계가 있는 집단을 기반으로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취락 간 교역망이 설치되고 그 기능이 곡물교환, 생산물교환으로 확대되어가고, 광역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유물의 분석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과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구분은 지역 내·부외에서 발생하는 전문화의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 농업생산력 부족 및 한계 가설(agricultural marginalization)은 지리적으로 분리된 집단 간의 교역을 발생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제로서 인식되어 왔다. 북부 필리핀지역에서 벼농사를 생업경제의 기반으로 하는 Kalinga-Apayao 지역의 Dalupa 부락인들의 토기 생산 및 주변 지역과의 토기교역에 관한 민족지적 관찰연구는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사례이다(Stark 1994, 1995). Dalupa 부락에서 주로 여성들이 토기를 만드는데 이 토기들은 인척관계로 연이 있는 인근의 Dangtala 부락들에 식료품과의 맞교환에서의 주요 상품이자 여분의 소득원으로 활용되었다. 상대적으로 다른 부족은 토기 장인이 적으며, 토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이유 중에는 잔치 등으로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상시적으로 토기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일부 가구에서는 오랫동안 토기를 빚은 나이 든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비전업적인 수준

의 분업화 된 토기생산을 주도하며 그 집중강도가 계절에 따른 변화를 보인다. 3-6월, 9-11월에 집중생산된 토기는 주로 9-11월에 교역되는 주기성을 띤다. 이러한 토기 교역은 벼 수확량이 떨어지는 시기에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농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가구들에서 벼농사 외의 기타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지역의 경우, 교역의 과정에 개입하는 개인이나 엘리트 집단의 존재는 나타나지 않는다(Stark 1994, 1995).

한편 북미의 중남부 인디언 부족 문화권의 사례들을 통하여 전문화와 원시교역의 발생에서의 농업생산력 한계 가설을 검토한 Harry(2005)의 연구에 따르면 근거리 지역에서의 공동체에 기반한 토기생산의 전문화와 교역은 인구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생산력 부족 가설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농경생산성이 높은 곳에서도 발생하므로 그 원인은 단일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변수의 상호작용이 낳은 결과로서 보았다.

높은 농경생산성에도 토기생산전문화가 이루어진 경우, 국지적으로 작물생산이 일률적이지 않을 때, 흉년을 넘기고자 토기를 교역하는 양상, 부족/집단 내부에서 토지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토기생산이 전문화되거나, 일부는 특정한 토기를 빚을 수 있는 장인들에 의해서 생산전문화가 발달된다는 해석을 하였다. 또한 토기 교역 루트는 여러 산물이 교역되는 길로서 정보교환, 특히 환경에 대한 정보가 오가면서 흉년을 맞은 일부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을 것으로도 추정하였는데, 전문화와 원시교역은 일부 재화의 교환만이 아닌 물자와 정보가 전달되는 매개체로서 지역 내 전반적인 생계활동의 안정과 지속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취락을 넘어서는 교역의 기저에 있는 친족관계에 기반한 선물교환의 양상 및 거래의 정황 또한 비전업적인 (파트타임) 전문화와 원시교역의 발생과정에 흥미로운 요소이다(Stark 1994, 1995), 물질의 교환이 혈연으로 묶인 인적관계를 바탕으로 출현하는 모습은 생산물의 수요발생과 공급방식이 문화적·혈연적 친연성을 지닌 집단들 간에 비물질적인 문화적·관습적인 맥락과 연관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전문화의 진전과 이를 분배하는 교역체계의 성장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부수적으로 파생시킨다. 이들은 몇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변화를 야기하는데, 1) 전반적인 생산량 증가, 인구부양력 강화와 이에 따른 인구증가, 2) 교역망의 재편에 따른 취락별 전문화 3) 안정적 생산체계의 확립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Morrison 1994; Stark 1994, 1995).

농경생산체계의 경우, 지역 내 교역망에 연계하여 수리시설을 중심으로 취락 간 연합체를 구성하여 관리하는 보다 확장된 형태를 이루기도 한다. Lower Salt River 유역을 중심으로 지역간 교역체계와 관개시설을 구축했던 북미의 호호캄(Hohokam) 인디언 문화를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강한 지역 내 경제적 유대는 용수의 공급과 활발한 교역으로 인한 생

산력의 증대라는 이점 외에도, 불규칙한 환경변화에 관계시설의 관리 및 재난관리 차원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세계경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으로 평가된다 (Nelson 외 2012).

VI. 결어

광범위한 생산과 소비에 관한 연구에서 한정적으로 이론적 모델과 소수의 연구사례만을 살펴볼 수밖에 없어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다. 향후 상기한 개념화 작업과 모델의 구체화, 그리고 민족지 사례를 위시한 외국의 연구사례의 검토와 더불어 청동기시대 고고학 자료에서 다양한 측면의 과거 ‘경제’의 모습을 규명하는 실증적인 연구들이 한반도 청동기시대 연구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또한 이를 위한 분석적 연구로는 1)토기를 비롯한 물질자료의 계량적 분석 및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전문화의 발생여부와 취락 내/간 생산과 소비의 양상을 파악 2)식물/환경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한 가구 내, 취락내의 생산과 소비의 영역의 인지 및 더 나아가 당시 취락별 농경생산체계의 생산력과 한계를 규명하는 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의 축적이 진전되면, 청동기시대 경제의 형태를 미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토대위에 청동기시대 경제체계의 시공적인 범위, 성립과정, 전개와 소멸과정을 복원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청동기시대의 전개와 소멸의 원인과 과정을 조망할 수 있는 거시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곽종철, 2002, 「우리나라 선사-고대 논밭유구」, 『한국농경문화의 형성』, 한국고고학회 편, 학연문화사.
- 김범철, 2006, 금강 중하류역 송국리취락에 대한 가구고고학적 접근」, 한국상고사학보 51.
- 김승욱,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한국고고학보 60.
- 김장석, 2007, 청동기시대 취락과 사회복합화과정 연구에 대한 검토, 호서고고학, 17.
- 김장석, 2008, 송국리단계 저장시설의 사회경제적 의미, 한국고고학보 67.
- 김종일, 2009, 고고학자료를 통해 본 한국 선사시대의 여성, 백제연구소 국제학술회의, 고대 동아시아의 여성.
- 김영심, 2009, 한국 고대사회 여성의 생산활동, 백제연구소 국제학술회의, 고대 동아시아의 여성.

- 안승모, 2008, 「韓半島 青銅器時代의 作物組成 : 種子遺體를 中心으로」, 『호남고고학보』 28.
- 이홍중, 1997, 「韓國古代의 生業과 食生活」, 『韓國古代의 人間과 生活』(韓國古代生活史 研究會 제 10회學術討論會).
- Costin, C. L., 2001, Craft Production Systems, in *Archaeology at the millenium Of Paradigms and Practice*, pp. 273-314., Springer Science.
- Costin, C. L. & Hagstrum, M.B, 1995, Standardization, Labor Investment, Skill, and the Organization of Ceramic Production in Late Prehispanic Highland Peru, *American Antiquity* 60(4).
- Cunliffe, B. (1991) *Iron Age communities in Britain*. Routledge, London.
- Godelier, M., 1978, The object and method of economic anthropology, In Seden(ed). *Relations of Production: Marxist Approaches to Economic Anthropology*, London: Frank Cass.
- Gumerman, G., 1997, Food and Complex Societies,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4 (2).
- Harry, K.G. 2000, Community-Based Craft Specialization: The West Branch Site. In *The Hohokam Village Revisited*, edited by David E. Doyel, Suzanne K. Fish, and Paul R. Fish, pp. 197-200. Southwestern and Rocky Mountain Division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Glenwood Springs, Colorado.
- Hayashida, F.M., 1999, Style, Technology, and State Production: Inka Pottery Manufacture in the Leche valley, Peru., *Latin American Antiquity*, 10(4).
- Harry, K.G., 2005, Ceramic specialization and agricultural marginality: Do Ethnographic Models explain the development of specialized pottery production in the prehistoric American Southwest?, *American Antiquity* 70(2).
- Hayden, B., 2001, Richman, Poorman, Beggarman, Chief: The Dynamics of Social Inequality, In *Archaeology at the millenium Of Paradigms and Practice*, pp. 231-266., Springer Science.
- Kujit, I., 2008, Demography and Storage Systems During the Southern Levantine Neolithic Demographic Transition, In *The Neolithic Demographic Transition and its Consequences*, USA: Springer.
- Kujit, I., 2009, What Do We Really Know about Food Storage, Surplus, and Feasting in Preagricultural Communities? *Current Anthropology* 50(5).
- Morrison, K., 1994, The intensification of production: Archaeological approaches.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2(1).
- Nelson, M.C., Hegmon, M, Kintigh, K.W., Kinzig, A.P., Nelson, B.A., Anderies, J.M., Abbott, D.A, Spielmann, K.A., Ingram, S.E., Peeles, M.A., Kulow, S., Strawhacker, C.A., Meegan, C., 2012, Long-term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Three examples from Archaeological Study in the Southwestern United States and Northern Mexico, *Surviving Sudden Environmental Change-Answers from Archaeology*, Colorado: University Press of

Colorado.

- Peregrine, P., 1991, Some Political Aspects of Craft Specialization, *World Archaeology* 23(1).
- Roux, 2003, Ceramic Standardization and Intensity of Production: Quantifying Degrees of Specialization, *American Antiquity* 68(4).
- Spencer, J. E. & Stewart, N. R., 1973, The nature of Agricultural System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3(4).
- Stark, M. T., 1994, Pottery Exchange and the Regional System-a Dalupa Case Study, in William A. Longacre & James M. Skibo (eds.) *Kalinga Ethnoarchaeology*.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69-197.
- Stark, M., 1995, Economic intensification and ceramic specialization in the Philippines: A view from Kalinga, *Research in Economic Anthropology* 16: 179-226.
- Stevens CJ (2003) An investigation of agricultural consumption and production: models for prehistoric and Roman Britain. *Environmental Archaeology* 8:61-76.
- Van der Veen, M., and Jones, G., 2006, A re-analysis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British Iron Age, *Veget Hist Archaeobotat* 15.
- Wessen C.B., 1999, Chiefly Power and Food Storage in Southeastern North America, *World Archaeology* 31(1).

유물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북한강유역의 생산과 소비

홍 주 희
강원고고문화연구원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석기의 생산과 소비 |
| II. 토기의 생산과 소비 | 1. 생산단위의 변화와 제작기법 |
| 1. 무문토기의 마연기법 채용 | 2. 석기의 조합과 소비 |
| 2. 기종과 소비방식 | 3. 특수재의 수급과 소비 |
| 3. 토기의 재활용 | IV. 북한강유역 경제활동의 변화 |

I. 머리말

고고학적 유물에는 생산, 분배하여 사용하다가 폐기되는 일련의 경제적 행위뿐만 아니라 집단의 성향과 정체성, 사회구조 등 사회·이념적인 영역까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유물에 대한 연구는 이를 역추적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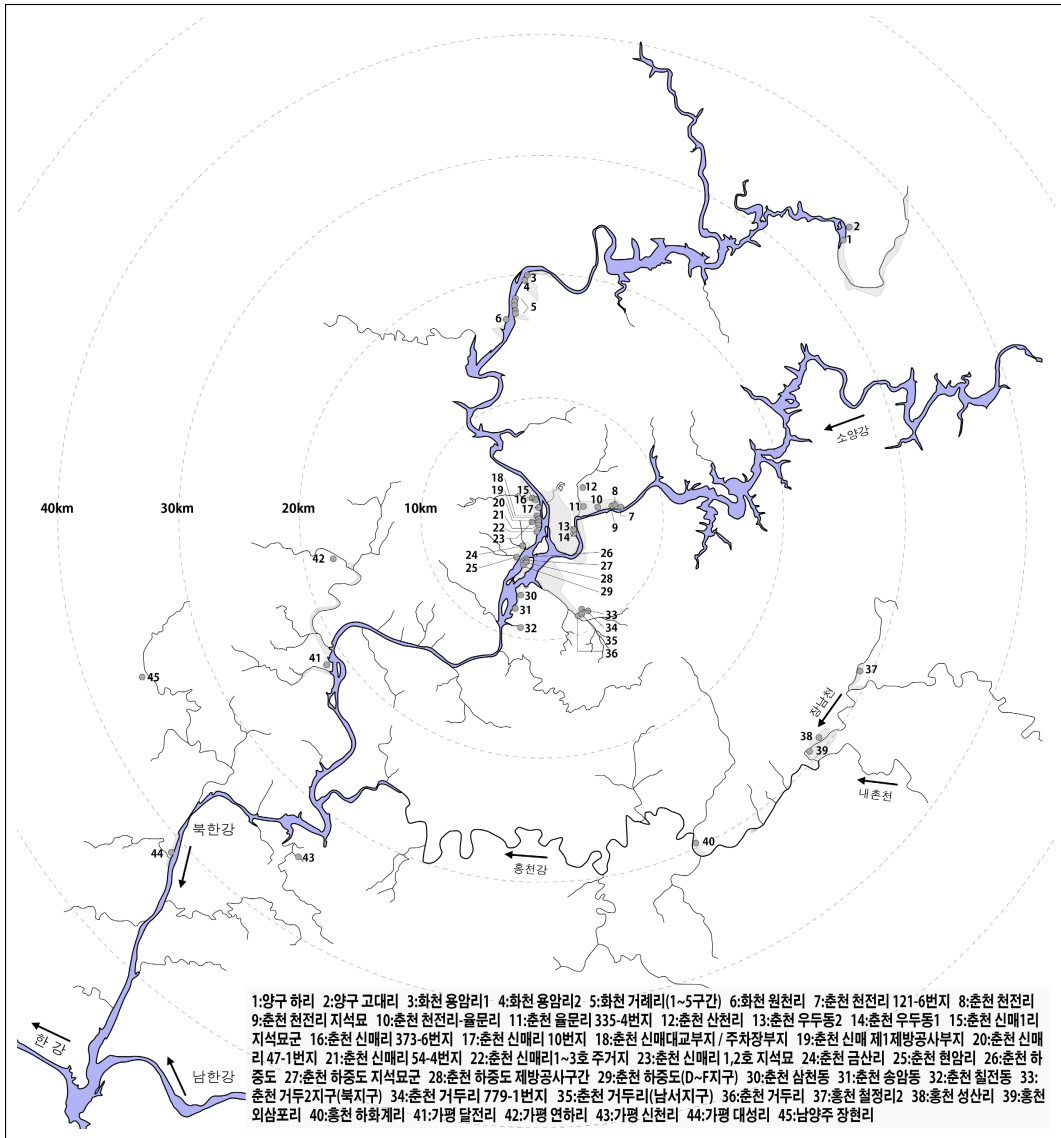
토기와 석기의 생산과 소비는 신석기시대부터 비롯되었지만, 청동기시대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정착생활과 경제활동이 본격화되어 남겨진 유물을 통해 이를 복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일련의 경제활동에는 단순히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비롯해 그 기저를 이루는 경제활동의 주체와 체계, 생산된 재화의 분배와 유통까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물에 대한 기초적인 선행연구와 유물의 출토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취락 혹은 지역단위의 논의를 거쳐야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유물의 제작흔과 사용흔 분석, 실험결과들은 유물에 대한 구체적인 생산과 소비방식을 밝히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연구이며, 생산에서 소비, 폐기에 이르는 유물의 life cycle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관련된 행위나 주체(집단)에 대한 연구의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출토유구와 취락의 시·공간적 맥락을 배제한 유물 자체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추상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당한 편년안을 기반으로 취락의 분기별

양태와 하위지역적인 양상 파악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구체적이고 다양한 경제활동의 복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유물을 통해 본 생산과 소비’ 를 주제로 삼았으나 일반적인 경제활동의 복원이 다소 추상적이며 생산과 소비라는 넓은 범주를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그 대상을 장기 지속적인 취락자료 확보가 용이한 북한강유역(지도 1) 출토유물로 한정하였고, 취락 차원에서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주제, 체계에 주안점을 두고 생산과 소비방식의 시간적인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키스 월킨스-크리스 스티븐스 著 안승모-안덕임 譯 2007:191). <표 1>과 같이 주거형태와 취락구조, 표지유물을 기준으로 하는 편년안을 토대로 유적을 분류·적용하였다.

표 1. 북한강유역 취락편년(안)

구분	주거형태	취락 구조	표지유물	주요유적
조기	대형 주거	點狀/ 線狀	돌대문· 이중구연토기 무경축, 장방형 석도, 편평석창, 공구형석기	화천 거례리· 원천리유적, 춘천 천전리(121-16)· 신매제1제방· 급산리· 현암리· 하중도(D·E)유적, 홍천 하화계리· 외삼포리· 철정리유적, 가평 대성리· 연하리유적
전기	전반	가락동식, 역삼동식 線狀	구순각목· 공열토기, 이중구연토기 유병식 석검, 무· 유경축(일· 이단경-침근), 장주형· 어형석도, 주상석창, 부리형석기, (동북형)석도	화천 용암리(I)· 거례리(2~4B)· 원천리유적, 춘천 천전리(121-16)· 우두동(I)· 신매리(신매대교부지· 신매제1제방)· 급산리· 현암리· 거두리(2지구)유적, 가평 달전리유적, 홍천 외삼포리· 철정리유적
	후반	역삼동식, 변형 역삼동식, 소형 방형 面狀	(구순각목)공열토기 유병/유경식 석검· 석창, 무· 유경축(일· 이단경-침· 평근), 주상석창, 장· 단주형· 어형석도, 부리형석기	화천 용암리(I·Ⅲ)· 거례리(3-5)· 원천리유적, 춘천 천전리· 우두동(I)· 신매리(신매대교부지)· 현암리· 거두리(779-1번지· 남서지구)· 송암동유적, 가평 달전리· 대성리· 신천리유적, 홍천 철정리유적
중기	전반	천전리식, 소형 방형 多面狀	공열토기, 무문토기 유경식 석검· 석창, 무· 유경축(일체형· 일단경-평근), 유구석부, (장) 단주형석도	화천 용암리(I·Ⅲ)· 거례리(1·3-5)· 원천리유적, 춘천 천전리· 우두동(I)· 신매리(10번지· 54-4번지)· 급산리· 하중도(D·E·F)· 거두리(2지구)유적, 가평 달전리· 대성리유적, 홍천 철정리유적, 남양주 장현리유적
	후반	多面狀 面狀 (통합)	(공열토기), 무문토기 유경식 석창, 유경축(일체형· 일단경-평근), 유구석부, 단주형석도	화천 용암리(I·Ⅲ)· 거례리(1·3-5), 춘천 천전리· 우두동(I)· 송암동· 삼천동(순환도루부지)유적, 가평 달전리유적, 홍천 철정리· 성산리유적
후기	천전리식, 소형 방형 (점토대토기 주거 포함)	多面狀/ 面狀 (통합)	무문토기, 점토대토기(관련유물 포함) 무경축(삼각)	화천 거례리(3-5)유적, 춘천 천전리· 현암리· 하중도(D·E·F)· 철전동유적, 홍천 철정리· 성산리유적



지도 1. 청동기시대 북한강유역 유적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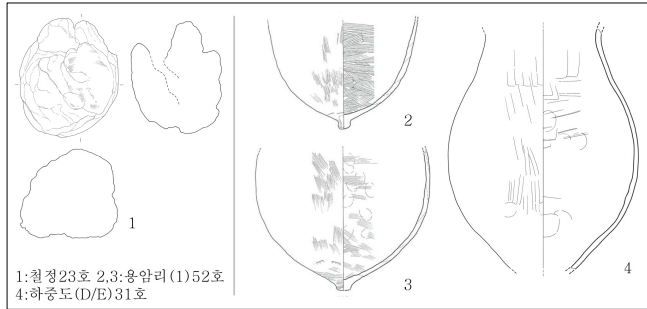
II. 토기의 생산과 소비

북한강유역 내에서는 토기의 생산유구가 확인되지 않아 토기의 생산으로부터 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다루기는 어렵다. 북한강유역에서 옥외의 생산시설로서 공방이 출현한 시점은 전기 후반이지만 공방 내에서 토기를 생산한 근거는 토제방추차 외에는 찾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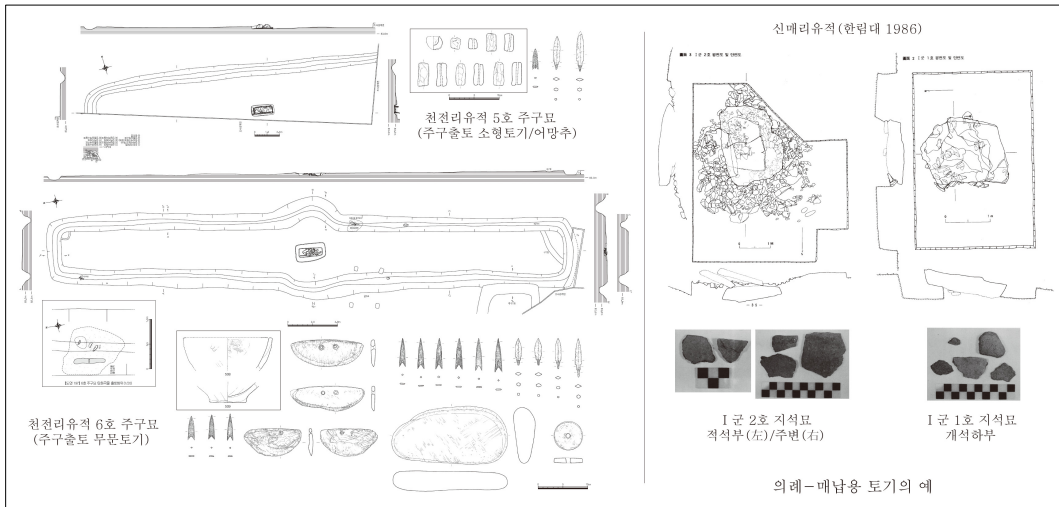
없고, 주거 내부에서도 소성 실패
 품이 출토된 예만 있을 뿐 일상
 용기로서 대부분의 토기류는 옥
 외에서 생산된 것으로 생각된다
 (도면 1).

자연과학적 분석(이지현 2006
 ; 엄진영 2008)을 통해 이 지역
 의 토기류는 인근으로부터 원자

재를 입수해 취락별로 생산했을 것이며, 운반과정에서 파손 우려가 큰 토기의 특성상 출토
 예가 적은 의례와 매납용 토기류 역시 자체 생산 혹은 인접 취락으로부터의 근거리 유통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각형토기와 같은 타지역에서 유행하는 양식의 토기류(도면 2)의 경
 우 제작기술을 공유했던 것인지, 실물이 유통되었던 것인지에 관해서는 철저한 검증 후 논
 의해야 할 것이다.



도면 1. 소성실패품(左)과 각형토기(右) - 축척동일



도면 2. 의례·매납용 토기의 예

청동기시대 토기의 문양과 기종의 변화는 편년이나 특정 문화의 확산을 해석하는 자료가
 되어왔고, 북한강유역 역시 동일한 맥락에 속해 있다. 필자는 편년의 기준으로 인지되던 토
 기의 변화양상들이 일상적인 소비(자비·배식·저장)패턴을 비롯한 기저의 사회적인 배경과
 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간
 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무문토기의 마연기법 채용

적(갈)색 마연기법은 정선된 태토와 얇은 기벽의 대부호·단경호·장경호·완 등 특정 기종의 토기에 적용된 토기제작기법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토기를 전형의 적색마연 토기라 한다(송영진 2003:8~11). 본고에서 전제한 편년안에 따르면 조기에 소량의 대부토기(완)와 장경호에 사용되었으며, 전기에 이르러 대부호·단경호·장경호·완의 기종에 적용되어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조기의 적색마연토기는 전기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북한강유역의 출토예가 적고 공반유물 역시 매우 단절적이다(박영구 2012:43). 중기에는 이러한 마연기법이 일반 무문토기 기종에 적용되어 전기의 대부호·단경호·장경호·완 등의 기종은 점차 소멸하는데, 무문토기 기종에 마연기법이 채용되는 현상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해된다(도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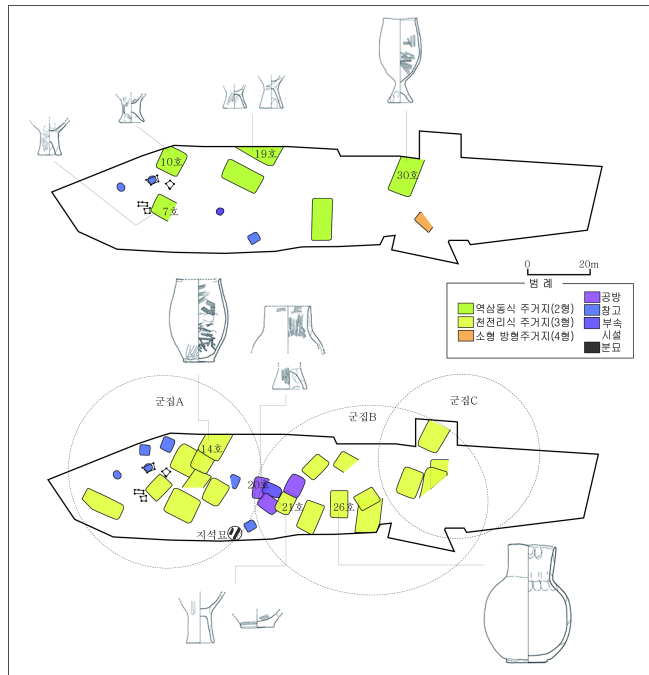
기종 시기	대부호	단경호	장경호	완 / 발
조기				
전기	<갈색마연토기> 			
중기				
후기				

1,4:신대제1제방 1호 2:하화계리 1호 3:급산리 B1호 5:거례리(3) 41호 6-13:신대대교부지 21호 14:우두동(1) 14호 15:우두동(1) 30호 16,17:우두동(1) 19호 18:우두동(1) 7호 19:우두동(1) 10호 20:현암리 49호 21,22:현암리 46호 23,24:현암리 20호 25:신대제1제방 2호 26:용암리(1) 20호 27:용암리(1) 42호 28:거두2지구 4호 29:우두동(1) 1호 30,38:용암리(1) 131호 31:거두2지구 7호 32:현암리 14호 33:용암리(1) 30호 34:거두2지구 2호 35,36:신대대교부지 21호 37:거두2지구 4호 39:천전리 50호 40:철정리 A22호 41:신대대교부지 21호 42:우두동(1) 21호 43,49:신대리 54-4 8호 44:철정리 16호 45:우두동(1) 20호 46:우두동(1) 21호 47:우두동(1) 26호 48:하중도(D/E) 17호 50:거두2지구 10호 51:철정리 C4호 52:거례리(3) 19호 53,54:거례리(4B) 15호 55:철정리 A15호 56:장현리 수2호 57:거례리(3) 66호 58:성산리 2호 59:장현리 8호 60:장현리 6호 61:하중도(D/E) 20호 62:천전리 17호 63:우두동(1) 23호 64:천전리 29호 65:우두동(1) 22호 66:우두동(1) 27호 67:거례리(4B) 9호 68:천전리 72호 69:신대리 373-6 4호 70:철정리 17호 71:천전리 42호 72:현암리 55호 73:거례리(5) 11호 74:우두동(1) 20호 75:거례리(3) 14호 76,77:거두리 18호 78-81:거두리 13호 82:현암리 17호 83:신대대교부지 26호

도면 3. 북한강유역 마연토기의 분류·편년안 - 축척동일

소비적인 측면에서 중대형 호의 기종에 마연기법이 적용된 것은 의례용과 같은 특수한 목적이 아닌 자비나 한시적 저장과 같은 일상적인 기능에, 의례 혹은 부장용의 ‘붉은 색의 광택이 있는 토기’가 내포하는 의미가 결합된 것으로 추정된다¹⁾.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무문토기의 표면이 적(갈)색으로 발색되도록 하는 제작기법도 함께 계승되었다. 주거형태상 역삼동식으로부터 천전리식으로의 큰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측면에서 두 분기간의 친연성 혹은 계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매리유적(54-4번지/10번지)과 철정리유적에서 중기의 천전리식 주거에서 적색마연단경호의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졌으며, 장경호 역시 기형의 차이는 보이지만 거례리유적·우두동 I 유적·신매리유적(54-4번지)·거두리유적(2지구)·외삼포리유적·하중도유적(D·E지구)·철정리유적·성산리유적·장현리유적 등에서 점토대토기가 출현하는 중기 후반까지 지속되는 경향이다.

적색 보다는 갈색마연토기가 주로 출토된 우두동유적은 <도면 4>와 같이 각각 전·중기로 편년하였으나 주거의 배치상 갈색마연토기가 사용된 역삼동식과 천전리식 주거의 공존 가능성도 있어 다수의 주거군집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갈색마연토기가 명맥을 이어가며 장경호가 생산·소비된 것으로 파악된다.



도면 4. 우두동유적 I 전·중기 갈색마연토기 소비의 예 - 축척동일

2. 기종과 소비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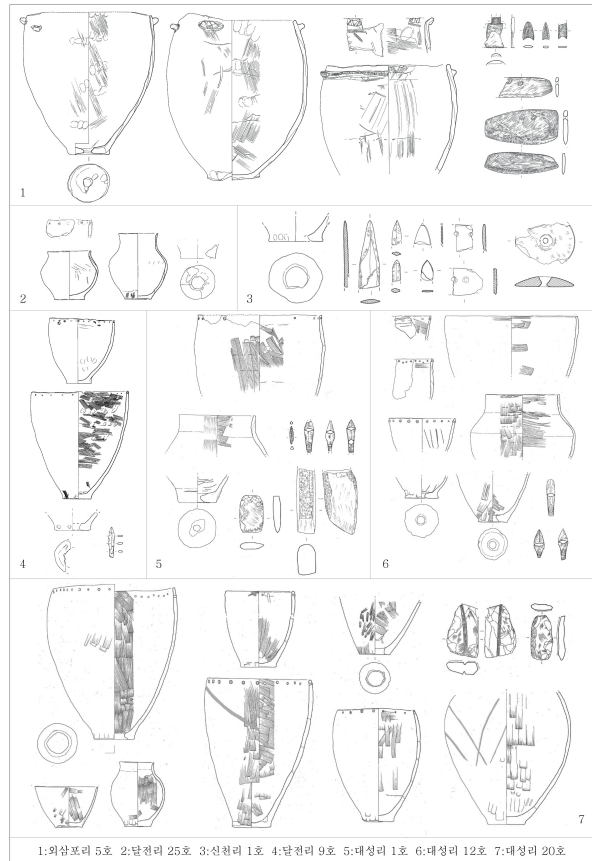
1) 대형 호형토기의 기형변화(발표문 생략)

1) 방수나 보강을 위한 것으로 파악(노혁진 1987)하기도 하지만 무덤이나 의례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기능적인 측면 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된다.

2) 저부투공토기의 확산과정과 의미

저부투공토기는 송국리유형의 유입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이진민 2005 ; 김한식 2006)가 있지만, 중부지역 전·중기 역삼동유형 거점취락간 교류의 근거로서 충남지역에서는 그 분포양상이 선송국리 물질문화의 확산과정과 일치해 선송국리유형으로서의 역삼동유형과 송국리유형간의 관계가 연계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구혜영 2013). 저부투공토기의 주 분포권이 경기 서남부와 호서지역을 포함한 중서부지역이기 때문에 북한강유역은 현재까지 저부투공토기 분포의 북동쪽 한계로 생각된다.

조기로 편년되는 홍천 외삼포리유적 5호 주거지 출토 토기가 현재까지 가장 이르지만 조단 한 사례에 불과하고 이후 전기 전반에 연속적으로 제작되지 않았다. 이를 제외하면 가평 대성리유적·가평 신천리유적·가평 달전리유적·춘천 거두리유적·춘천 하중도유적(D·E지구)·춘천 금산리유적·춘천 천전리유적·화천 거례리유적(1구간)에서 총 24점이 출토되었으며, 이 중 13점이 하류인 가평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상류로 갈수록 빈도가 감소하여 저부투공토기의 확산과정을 보여준다. 저부투공토기가 출토되는 대다수의 유적에서 공열토기·일단정축(일체형축)·유구석부 등이 공반 출토되고 있으며 문양이 없는 무문토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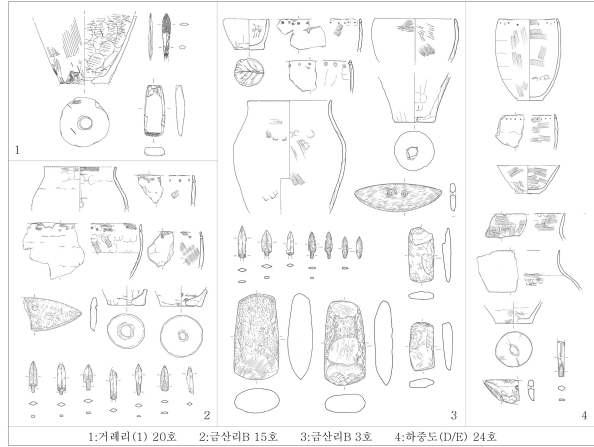
도면 5. 북한강유역 출토 저부투공토기와 공반유물(1)

으로 낮다는 점에서 전기 후반~중기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도면 5·6).

저부투공토기는 산청 옥산리유적 24호 수혈유구에서 5개의 소공이 뚫린 소형의 발형 시루가 출토된 바 있고(국립중앙박물관 2000:141), 저부투공토기를 동일유적 내에서 출토되는 시루의 祖形으로 보는 견해(서영남 1998:183~184)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기능은 單孔시루설이다. 이를 가정한다면 출토된 저부투공토기 대부분이 심발형²⁾

의 기종이며 호형토기에 얹어 식물물을 찌는 방식으로 사용했을 것이므로, 저부투공토기의 사용은 찌는 조리법의 확산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강유역에서의 저부투공토기의 출토량과 빈도로 볼 때, 이러한 조리법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루를 이용해 음식물(밥)을 찐 경우 열기와 함께 고유의 수분이 증발해 현재 주식으로 섭취하는 밥에 비해 ‘고두밥’의 형태가 되었다는



도면 6. 북한강유역 출토 저부투공토기와 공반유물(2)

취사실험결과(음식고고연구회 2011:117~118)에서 쌀보다는 거친 잡곡³⁾이나 채집된 견과류·근경류 등이 식재료였을 당시의 북한강유역의 환경을 감안한다면, 저부투공토기가 전래되었으나 이를 이용해 찌는 조리방식이 적합치 않으므로 중기 후반을 기점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강유역의 취락에서 빈번하게 출토되고 있는 연석류와 절구 등의 연마구와, 외면으로 유기물이 흘러넘친 취사흔이 있는 토기류들로 보아 곡물 등의 식재료를 분쇄해 물과 혼합하여 죽(수프)과 같은 상태로 끓이는 조리법이 좀 더 적합한 섭취방식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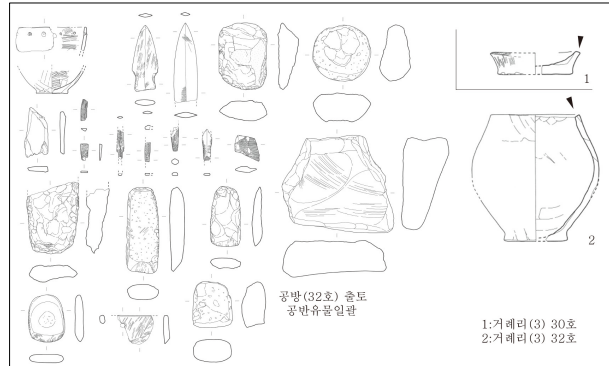
3. 토기의 재활용

재사용과 재가공은 동일한 재활용(recycle)의 범주에 속하지만 전자는 본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후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구분하였다. 재활용은 「제작→운반→사용→폐기→매물→출토→보관→관찰」 순의 토기의 life cycle(쇼다신야 2009:158)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석기와 함께 개별가옥을 위시한 취락과 지역집단의 자원 재활용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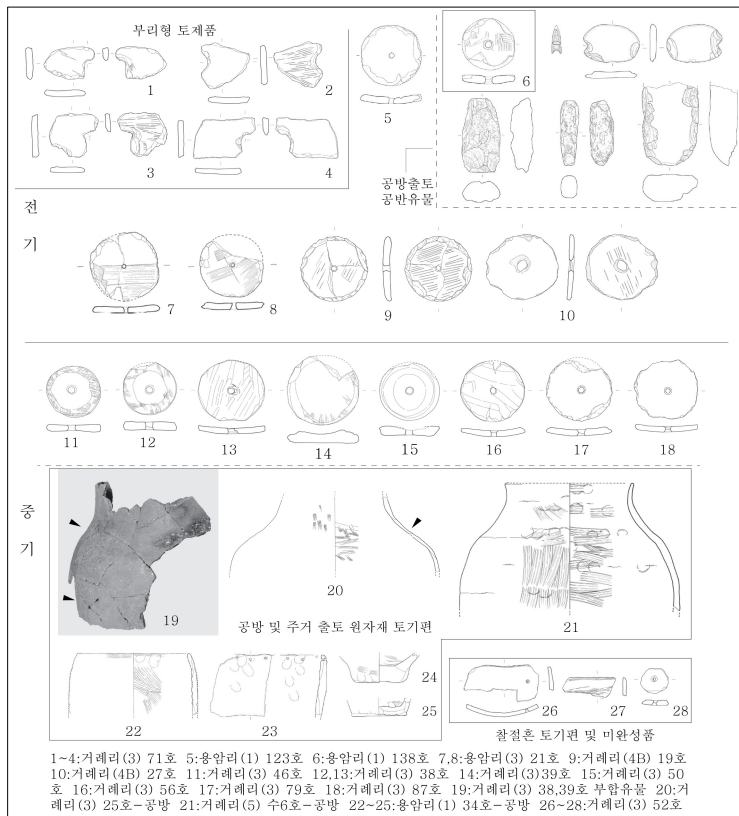
이러한 토기의 재활용은 북한강유역 뿐만 아니라 남한지역에서 확인되는 공통적인 현상이

- 2) 저부의 형태로 출토된 것이 대부분이라 정확히 판별할 수는 없지만 저부와 동체의 연결각도를 감안하였을 때 대부분의 저부투공토기는 심발형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강유역에서는 가평 대성리유적 17호 주거지 출토품만이 호형토기이다.
- 3) 당시의 기후조건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최근 철기~삼국시대 취락인 원천리유적에서 소량인 쌀에 비해 보리, 콩, 팥, 조, 피, 기장, 대마 등의 잡곡류가 주로 출토(이희경 2013:272~282)되는 등 이 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이후에도 여전히 쌀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만 북한강 상류의 화천 용암리유적과 거례리유적의 개별주거와 공방에서 출토된 재가공 토제품과 일련의 유물들이 다수 출토되었다(도면 8). 이를 통해 원자재로서의 토기편 중 곡률이 커 토제품 제작이 용이한 부분(대형 호형토기의 견부·동체, 무문토기 저부 등)을 공방에서 보관·제작하고, 원자재와 미완성품을 개별주거로 분배하여 제작·완성하는 방식을 유추할 수 있다. 토기의 재사용 또한 개별주거와 공방에서 제작되는 전기 후반에서 중기에 이르는 석기의 생산체계와 소비과정이 흡사하다(도면 7). 특히 주거의 형태와 출토 유물에서 동시기성이 확보된 화천 거례리유적 중기의 주거군집 내에서 유행했던 토기의 재활용방식을 보여준다.



도면 7. 화천 용암리·거례리유적(3구간) 출토 재사용 토기의 예



도면 8. 화천 용암리·거례리유적 출토 토제품(부리형 토제품·방추차)

Ⅲ. 석기의 생산과 소비

1. 생산·소비단위의 변화와 제작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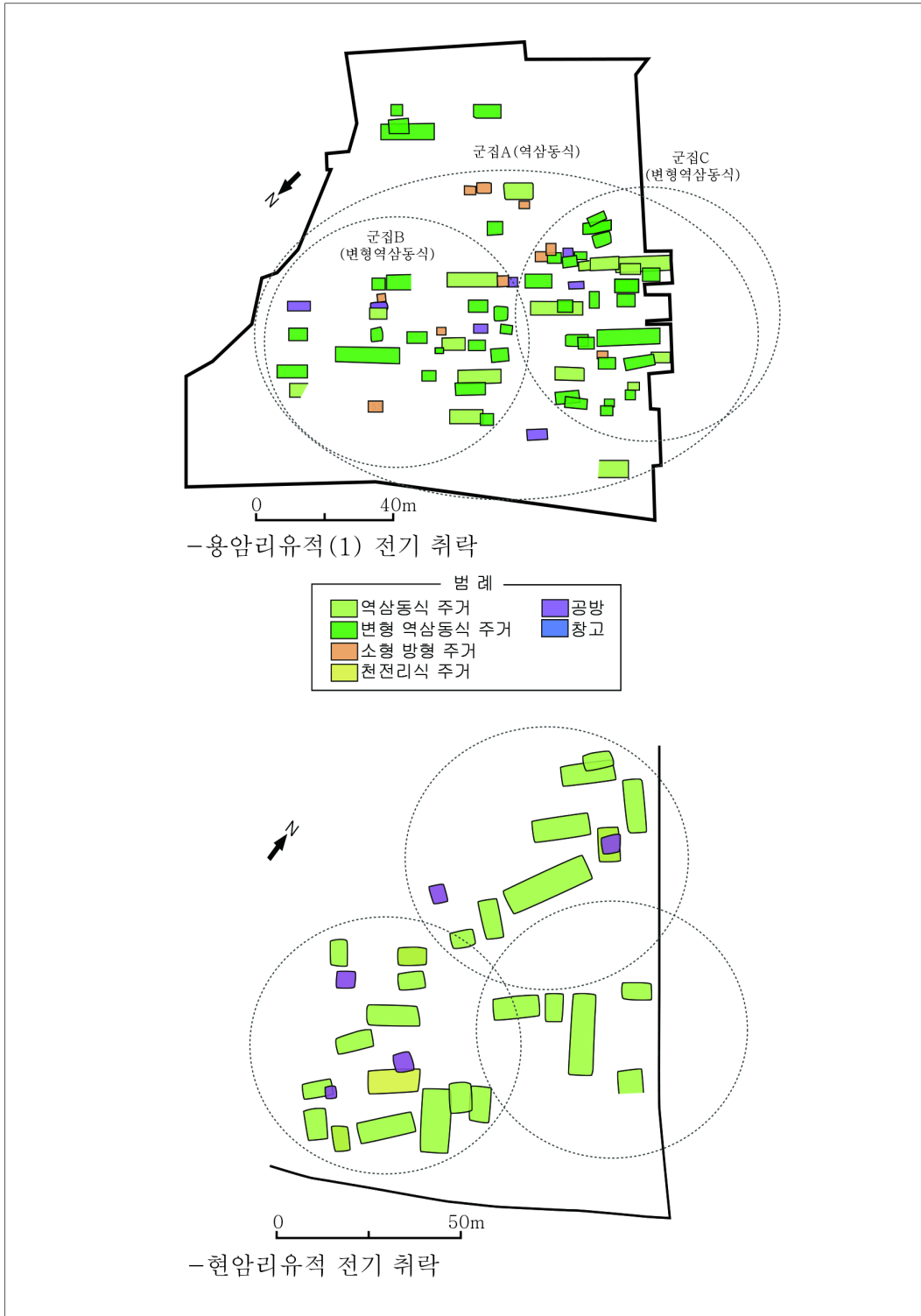
1) 생산·소비단위의 변화

북한강유역의 석기 생산·소비단위는 <표 2>와 같이 조기~전기 전반 개별주거단위로부터 주거 내부의 생산공간이 별도로 마련되는 개별주거의 변화의 과정을 거쳐 전기 후반 일부 유적을 중심으로 개별주거와 공방, 저장과 폐기 등 다양한 수혈(소비공간)이 결합된 군집이 형성되고, 중기 이후에는 북한강유역 전반으로 확산, 지속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결국 토기에 비해 생산과 소비의 맥락이 뚜렷한 석기와 주거·취락의 변화에 의해, 조기~전기 전반(1단계), 전기 후반~중·후기(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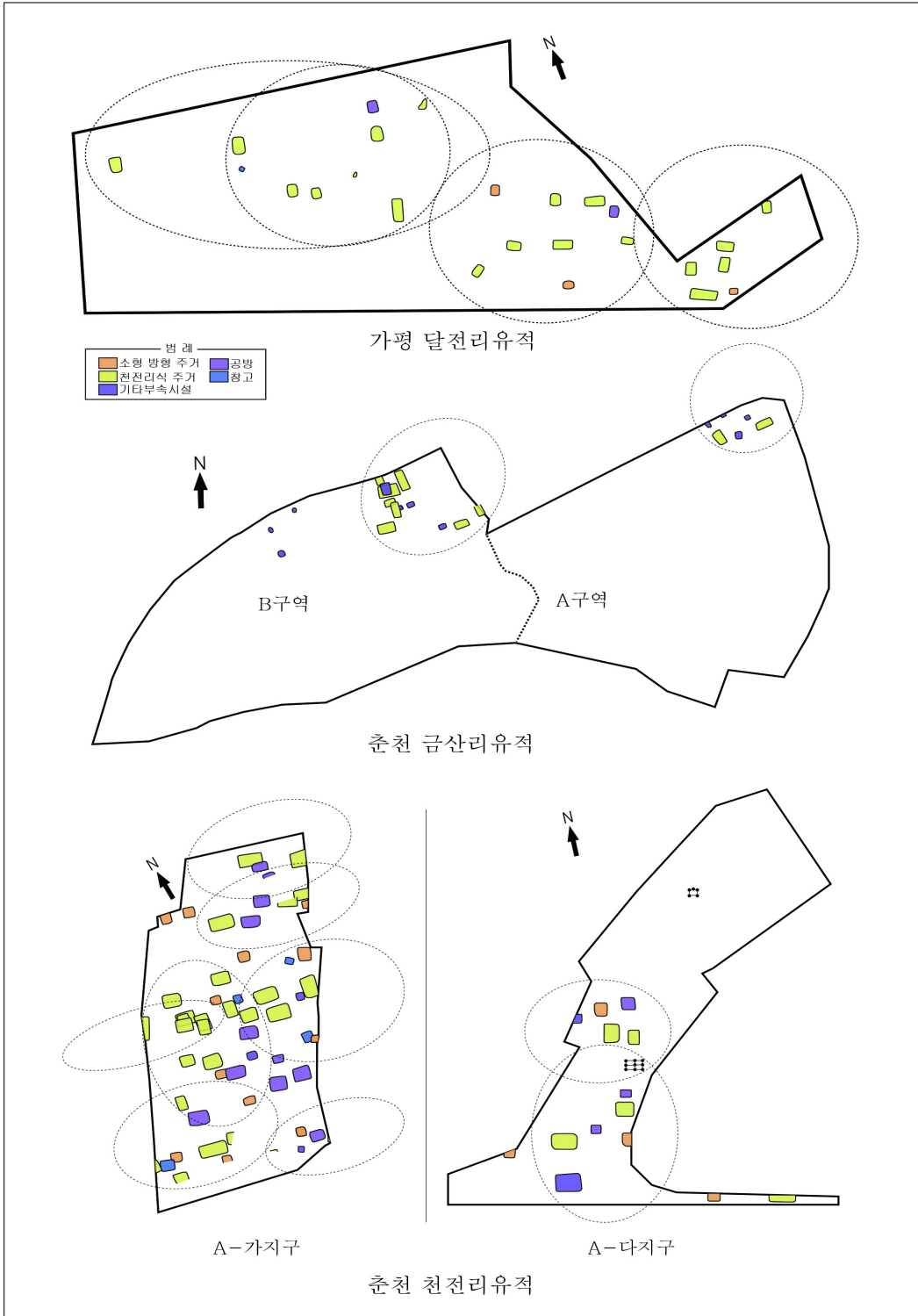
표 2. 석기 생산단위의 변화

조기 ~ 전기 전반(1단계)	전기 후반 ~ 중기(2단계)	후기(점토대토기문화 도입 후)
- 점·선상 / 면상 취락배치	- 다면상 취락배치(주거군집)	- 다면상 / 면상(통합)
- 대형(장)방형 / 가락동식 / 역삼동식 주거	- (변형)역삼동식 / 천전리식 / 소형 방형 주거	- 천전리식 / 소형 방형(점토대 토기 주거포함)
- 개별주거단위 생산·소비 - 주거 내 생산공간 분화(무시설·작업공 배치공간) - 석기의 미분화	- 전기 후반 북한강 상류를 중심으로 공방 출현 주요기종 중심의 공방 생산 + 주요기종 및 그 외 기종의 개별주거 생산	- 취락 내 공방 유지 - 석기 기종의 축소와 기종의 단순화 (석창·석축·석부·석착)

이와 같은 생산단위의 변화에는 공방의 출현이 가장 큰 기준이 된다. 금번 발표를 계기로 그동안 공방으로 보고되지 않았던 외부 시설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전기 후반에 공방이 확인된 유적으로는 화천 용암리 I·거례리·원천리유적·춘천 우두동 I·신매리(신매대교부지·신매제1제방)·현암리·거두리유적(총 25동) 등 북한강 상류에 소수 집중되었고, 중기 이후에는 대다수 유적(화천 용암리·거례리(3~5)·원천리·춘천 천전리·우두동 I·II·신매리(신매대교부지)·금산리·현암리·하중도(D~F)·송암동·홍천 철정리·가평 달전리유적)에서 총 62동의 공방이 분포한다. 특히 용암리유적 I의 전기 후반에는 주거 내부에 작업공이 설치되었거나 생산활동이 가능한 무시설공간이 확보된 (변형)역삼동식 주거가 다수 축조되었고, 이와 함께 공방이 구축되는 현상이 뚜렷하여 전기 후반 생산단위의 변화는 용암리유적으로부터 본격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도면 9·10).



도면 9.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구조



도면 10. 청동기시대 중기 이후 취락의 구조

전기 후반을 기점으로 한 변화는 뚜렷하지만 후기 생산단위의 파악은 미진한 편이다. 현재까지 후기로 판단되는 유적들 대부분이 중기 취락의 연장선상에 있고, 주거와 유물의 수가 적어 정확한 양상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후기 단위의 파악은 뚜렷치 않다. 다만 방형화된 중기의 천전리식 주거, 소형 방형 주거, 점토대토기를 공반하는 소형 (장)방형 주거가 중기의 다면상 혹은 취락별로 통합되어 하나의 면을 구성하는 면상구조를 이루었고, 생산과 소비단위에는 이러한 취락양상이 반영되어 중기와 유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취락구조적인 차원에서 북한강 상류로부터 공방 설치가 확산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기 후반 이후 특정 집단에 공방이나 유물이 편중되거나 혹은 특정 유물의 편중 현상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취락 내 공방이 설치된 전문적인 생산집단(취락)으로부터의 석기 유통은 상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취락 간에 석기제작기술을 여러 방식으로 공유하거나 인접 취락으로부터의 석기의 반입과 반출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공방과 일반주거에서 출토된 완성 석기와 미완성 석기의 수량 비교에서 전기 후반과 중·후기 공방 내 미완성 석기의 출토량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석기를 제작하는 공간으로서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물로서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방 내에서는 이러한 미완성 석기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석재와 부산물들이 출토되었으므로 석재의 보관과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주거 내에서도 완성 석기와 미완성 석기의 점유율이 전기 38.8%~42.2%, 중·후기 42.8%~43.3%로 대등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석기의 생산 공간이 공방으로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표 3). 반면 일반주거와 공방에서 출토된 기종 또한 동일 분기 내에서는 석촉·석부·석착 등의 주요 석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생산되는 석기의 기종도 주요 석기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표 4 / 도면 11·12).

표 3. 시기별 석기(주요기종) 생산양상

		완성 석기	미완성 석기	제작도구
조기 일반주거		39.6%(173점)	43.5%(190점)	16.9%(74점)
전기	일반주거	38.8%(692점)	42.2%(752점)	19%(339점)
	공방	65%(66점)	11%(11점)	23%(23점)
중·후기	일반주거	42.8%(970점)	43.3%(981점)	13.9%(314점)
	공방	4%(12점)	73.7%(219점)	22.3%(66점)

표 4. 시기별 주요기종 미완성 석기류의 점유율

		석촉	석부	석착	석도
조기 일반주거		33.9%(37점)	39.4%(43점)	13.8%(15점)	12.9%(14점)
전기	일반주거	64%(318점)	16.7%(83점)	13.5%(67점)	5.8%(29점)
	공방	29.8%(14점)	44.7%(21점)	19.1%(9점)	6.4%(3점)
중·후기	일반주거	56.4%(325점)	17%(98점)	21.4%(123점)	5.2%(30점)
	공방	39.1%(59점)	32.5%(49점)	24.5%(37점)	3.9%(6점)

*주요기종으로 한정하였으며, 미완성 석기류에는 재가공중인 개체도 포함시킴.



도면 11. 전기 공방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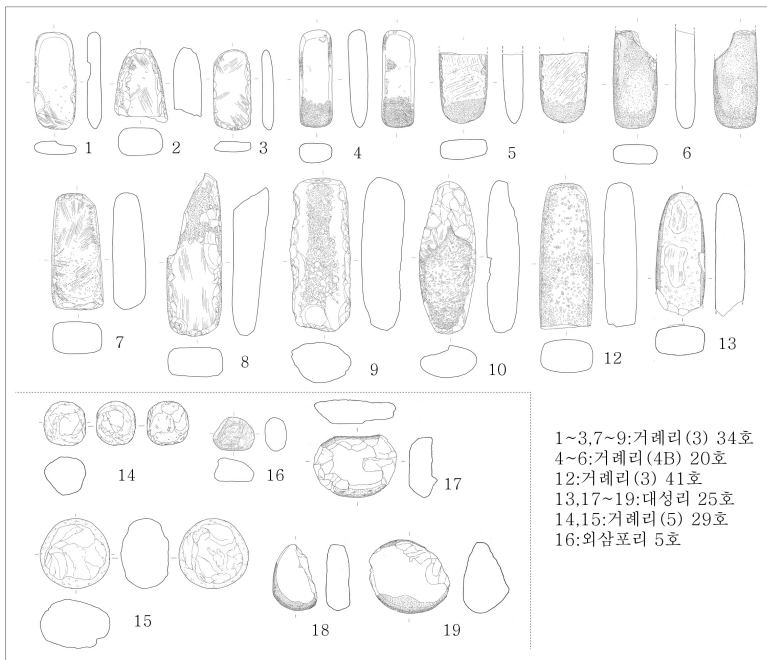


도면 12. 중후기 공방 출토유물

2) 제작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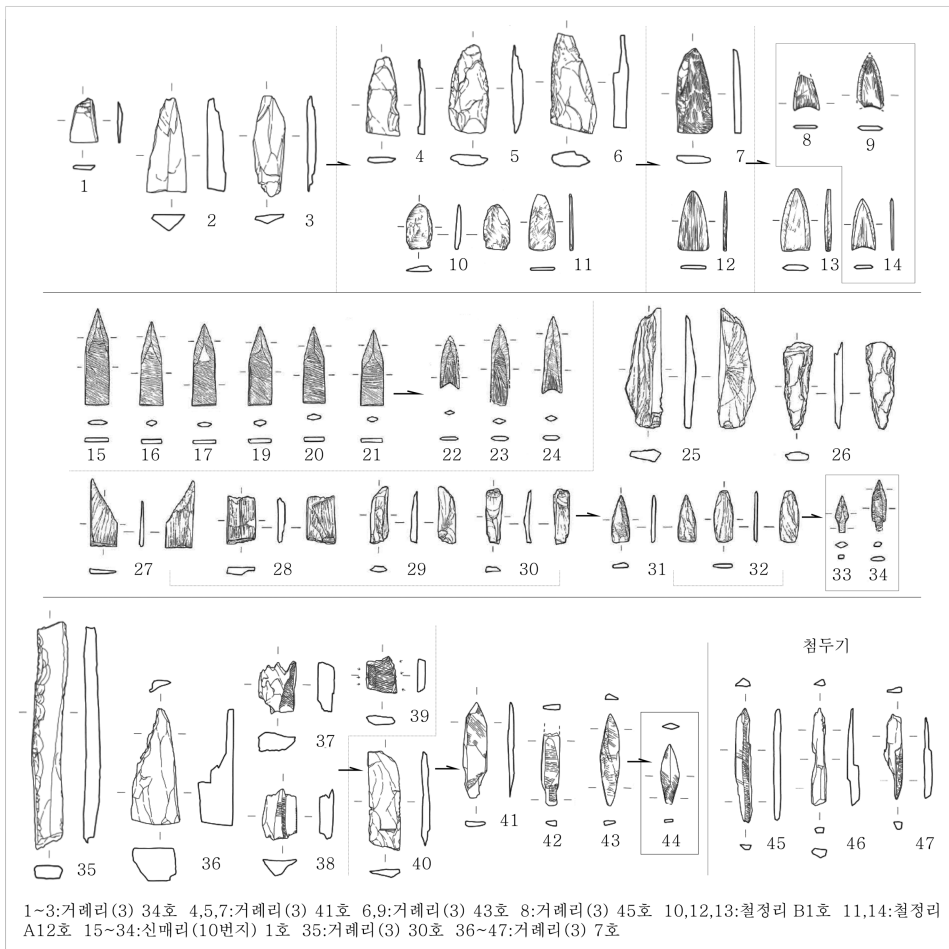
마제석기의 제작순서는 제작기법에 따라 타격으로부터 마연에 이르는 「타격(찰절)-고타-조마-정마」의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채집된 원자재 본연의 상태와 분할 석재의 상태 등 제작조건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대략적인 형태갖추기-세부제작-마연」의 순서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생산공간에서 발견되는 석재(원석·몸돌·격지)와 미완성 석기의 양상으로 보아 북한강유역 석기의 원자재는 川石(강돌)을 주로 사용하였으며(김선주 2007:559), 석축·연석(작업대)·원판형 석기와 같은 일부 석기에 한해 할석을 이용했다. 이러한 원자재의 상태에 따라 석재의 분할시 친석은 직·간접타격, 할석은 찰절과 간접타격이 주로 적용되었다. 석재의 형태가 본래 제작하고자 하는 석기의 형태와 유사한 경우에는 타격을 생략하고 고타와 마연을 통해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완성 석부에 베풀어진 제작기법을 통해 초기에는 되도록 석부의 형태에 가까운 석재를 선택해 타격을 최소화하였고 고타를 통해 형태를 갖추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타에 사용된 도구는 망치형 석기, 망치돌 등으로 지칭하는 고석류가 사용되었는데, 고타면이 연속적으로 좁은 부위에 한해 규칙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 직접타격 보다는 목제 혹은 녹각제 췌기와 고석(망치돌)을 이용한 간접타격으로 추정된다. 고타 기법은 각종 석기류에 통용되었고, 중후기로 가면서 석기의 형태를 갖추는 단계보다는 마연 전 세부제작 혹은 마연을 대체하는 기법으로 변화한다(도면 13).



도면 13. 초기의 석부와 고석류

북한강유역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석촉은 분할방식에 따라 두께가 일정하고 석촉 제작에 알맞은 판상의 석재(천매암·세일)를 일정하게 분할해 제작하는 방식과 채취한 할석재를 간접타격 방식으로 분할해 제작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전 시기에 걸쳐 후자의 간접타격 방식이 선호되었고, 길게 분할된 석재의 측면이나 상단부를 재차 간접타격한 후 2차 분할과정에서 췌기를 사용해 부러뜨리거나 찰절하는 방식이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 전자의 방식이 균일한 크기의 석촉을 버려지는 석재 없이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기법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판상의 석재를 제작하고 분할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분할된 석재(석촉재)를 이용해 일체형이나 일단경의 형식은 유지하면서 다양한 크기와 변형된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고, 석촉 제작이 어려운 경우 첨두기와 같은 다기능구를 제작할 수 있었다(도면 14).



도면 14. 석촉의 제작단계별 유물

2. 석기의 조합과 소비(표 5·6 / 도면 15·16)

각 시기의 석기 조합을 통해 초기에는 석촉과 석부, 석착, 석도 등의 주요기종 뿐만 아니라 주거마다 출토되는 다수의 석기제작구(지석·고석류)와 석재, 석기 부산물들을 통해 개별주거단위에서 석기를 생산·소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 기종별 형태분화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정형의 석기류(무투공 석도)를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석기의 기능에 관해서는 후술하겠으나 초기의 석도의 기능을 농경구로 한정짓기보다는 다기능구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전기에는 초기에 사용되었던 주요기종이 쓰임새에 맞게 다변화하는 가운데 몇 가지 형태로 축약, 정형성을 갖추게 된다. 특히 목재 가공구의 종류가 다양해져 목재 가공기술이 발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석도 보다는 석부의 점유율이 증가하였고 석촉과 석부를 중심으로 한 석기의 생산은 전기 후반에 출현한 공방 출토 석기류의 양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외에 첨두기, 환상석부, 원판형·부리형 석기 등이 소량 생산되었는데, 기능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석기제작구의 증가와 함께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석기류를 제작해 비로소 석기의 조합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후기의 주요기종들을 전기와 비교해 보면 다양했던 석기의 조합이 유지되며 중기 후반으로 가면서 석촉과 석부, 석도 등은 세부 기종구성이 단순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석재로 반드시 제작되어야 하는 주요기종을 제외하고 목기로 대체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며, 주거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석기의 출토량과 석착의 급격한 증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목기류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중후기 석기의 점유율은 일반주거의 「석촉-석착-석부-석도」, 공방의 「석촉-석부-석착-석도」 순으로 석부와 석착의 점유율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일반주거에서의 석착의 소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공방 내에서는 여전히 석부의 생산비중이 높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루기 힘든 석부 석재의 특성상 점차 소형화되는 일반주거에서 제작하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나타나는 점유율의 차이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주거와 공방에서 출토되는 석부의 형태를 통해 공방에서는 주로 타격과 전반적인 형태를 갖추는 공정을, 일반주거에서는 마연과 인부의 가공이 이루어지는 등 제작과정의 분리 경향이 확인되지만 완전한 분리라고는 할 수 없다.

시간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기능적으로 분화된 석기조합이 완성되었으며, 특히 석착류를 이용해 목기류를 제작·증가했다는 유추는 상당수 연구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강 유역의 경우에도 후기의 석기조합이 단순화되는 현상도 석기의 목기 대체로 이해할 수 있지만, 목기의 증가를 농경구의 증가와 농경의 정착 혹은 집약화로 연결시키는 것은 단선적인 해석일 수 있다(김권구 2008:62 ; 허의행 2006). 이러한 시각에서 석부와 석착류의 증가를

건축자재를 확보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구류의 증가로 보는 시각 또한 개별주거와 시설물이 증가하는 취락의 변천과정에서 가능한 해석이다. 굴지구 또한 농경과 관련해 해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이지만, 목기가 일반화되기까지는 주거와 시설물 구축을 위한 지면 굴착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도는 인부를 이용해 훑거나 끊어내는 방식을 기본기능으로(손준호 2006:25), 일부 유물에 대한 사용흔 분석을 통해 벼과식물의 수확도구로 밝혀진 바 있으며(유병록 2013:48), 북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중후기의 석도는 이러한 관점에서 농경과 관련된 수확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조기에 사용된 형태상 비정형의 무투공 석도는 양인을 직인을 이용해 수확뿐만 아니라 채집된 구근류나 동물성 식재료의 분할과 손질 등에 다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농경 수확구로 단정지를 수만은 없다(김민지 2012:75~79).

표 5. 북한강유역 석기의 용어와 분류의 수정안(홍주희 2012:332 표9 일부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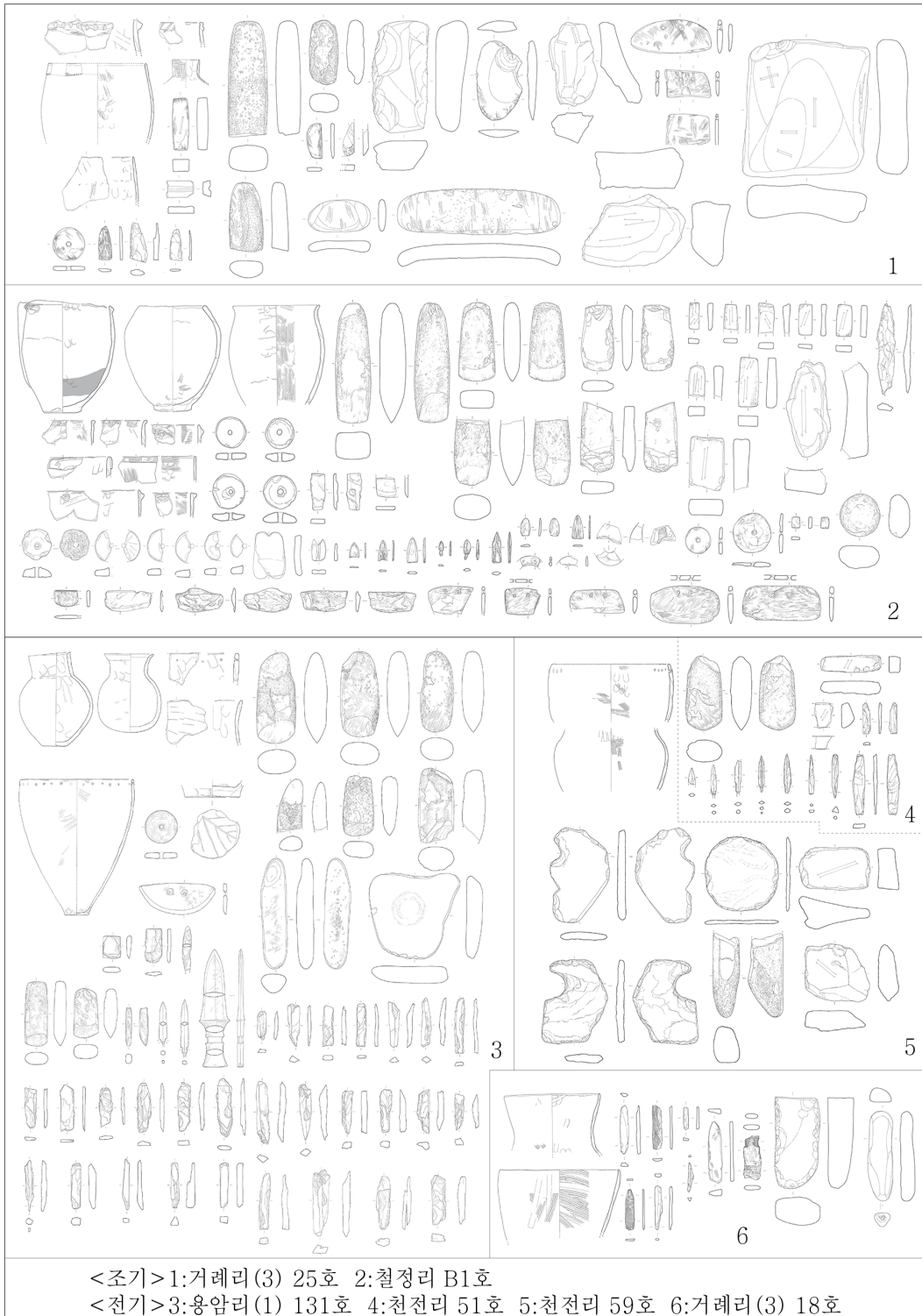
용어		기본기능	용도분류	
기존	수정안		기존	수정안
석검	석검	봉부를 이용해 찌르거나 베어냄	무기용, 수렵용, 의례용	무기용, 수렵용, 의례용, 부장용, 수확용, 식량처리용
검파두식	검파두식	석검의 손잡이	무기용, 수렵용, 의례용	무기용, 의례용
석창	석창	봉부를 이용해 찌름	무기용, 수렵용	무기용, 수렵용
석촉	석촉	활(원동력)을 이용해 날아가 피사체에 축두와 축신이 박힘	무기용, 수렵용	무기용, 수렵용, 부장용
석부	석부	호상의 인부를 이용해 찍는 기능	별목용, 농경용	별목용
	석착	직선상 호선상의 인부로 면을 고르게 하거나 구멍을 파냄	목재가공용	목재가공용
괘이/굴지구	굴지구	하단의 인부가 지표면에 박힘으로써 흙을 파내거나 긁음	농경용	굴지용, 농경용
반월형석도	석도	인부를 이용해 훑거나 끊어냄	농경용	수확용, 식량처리용 외 다용도
동북형석도		인부를 이용해 훑거나 베어냄, 석도 등의 기능도 가능	농경용	
고석/봉상석기	고석(류)	꼭이 좁은 단부를 이용해 주로 두드리며 일부 연마에 사용	석기제작용	석기제작용, 식량처리용
고석/망치돌		연마함	석기제작용	석기제작용
지석	지석	연마함	석기제작용	석기제작용
연석	연석	넓은 면을 위주로 연마하며 주로 전·후면을 이용함	식량처리용	식량처리용
방추차	방추차	굴대에 끼워 회전력을 이용해 실을 자아냄	방직용	방직용
어망추	어망추	흙이 난 부분에 어망을 감아 연결함	어로용	어로용
국부미연석기	찰절구	인부를 이용해 마찰하여 끊어냄	-	석기제작용
부리형 석기	부리형 석기	흙날 혹은 부리부분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	석기제작용, 굴지용, 수확용, 의례용	의례용
원판형 석기	원판형 석기	추정불가	추정불가	토기 혹은 목기의 뚜껑?
타제석기/박편석기/미완성석기/용도불명석기	용도불명석기	추정불가	추정불가	추정불가

필자는 본고를 통해 농경의 존재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유물은 시공간적 맥락에 의해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강유역의 취락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류는 조합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행위 또한 일상에서 상징적인 기능에 이르는 다차원적인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생계방식과 같은 석기류를 통한 상위 해석에 앞서 출토맥락과 기본기능에 충실함으로써 당시의 소비패턴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이면서 다양한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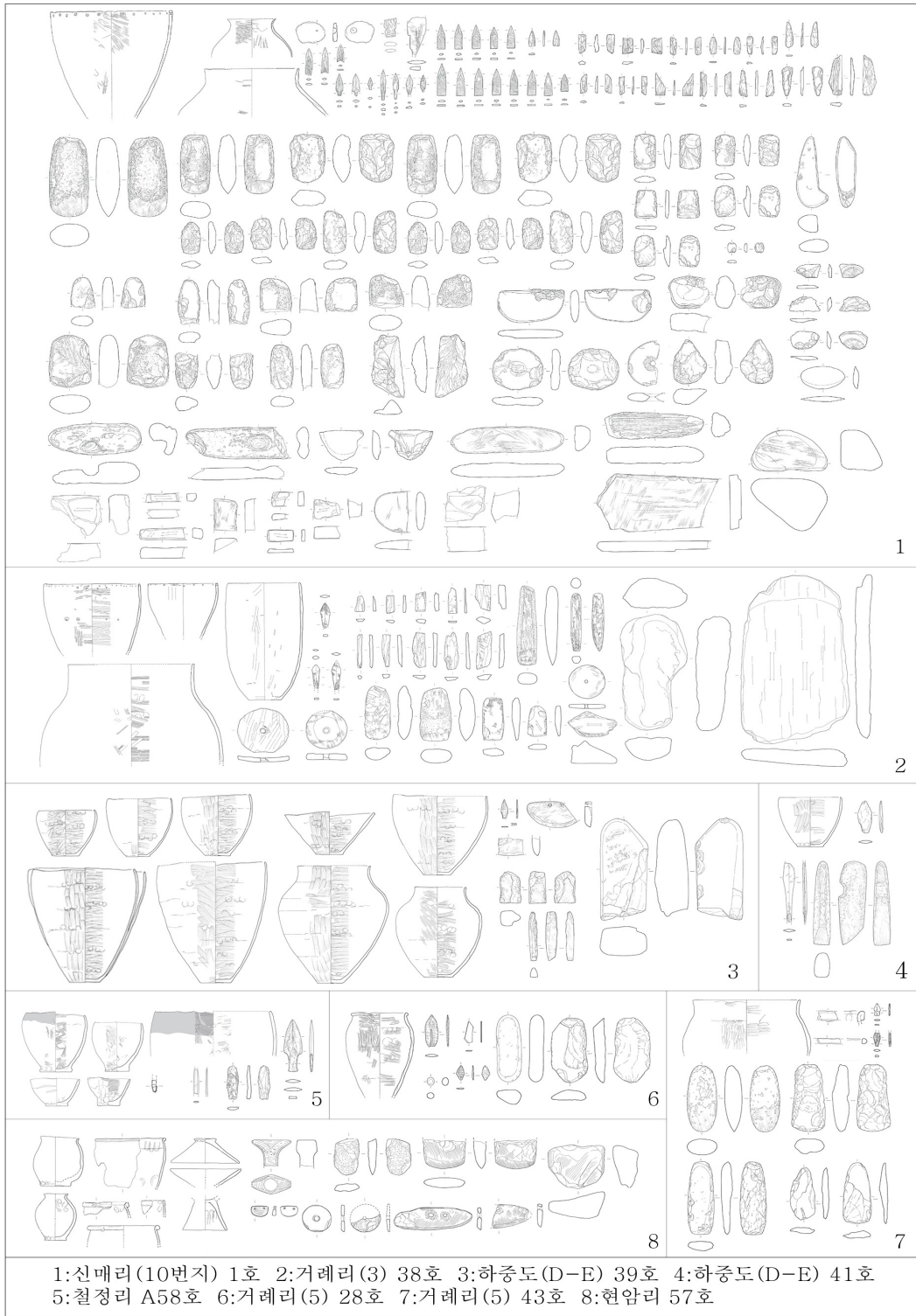
표 6. 분기별 석기조합

분기	기종	석검	검파두식	석창	석촉	석부	석착	석도	방추차	어망추	굴지구	연석	지석	고석	찰절구	천공구	첨두기	환상석부	유	공구형석기	원판형석기	부리형석기	석검	석추	발화석	미완/불명	합계
조기 41동	일반 주거	1	-	1	76	63	47	70	15	3	5	10	51	13	1	2	-	-	3	5	-	-	-	-	-	78	444점
	공방	0,2	-	0,2	17,1	14,2	10,6	15,8	3,4	0,7	1,1	2,3	11,5	2,9	0,2	0,4	-	-	0,7	1,1	-	-	-	-	-	17,6	100%
전기	일반 주거	19	-	14	566	166	153	126	74	16	16	90	220	29	-	1	11	5	4	3	29	14	-	-	-	42	1,598점
	공방	1,2	-	0,9	35,4	10,4	9,6	7,9	4,6	1,0	1,0	5,6	13,8	1,8	-	0,1	0,7	0,3	0,3	0,2	1,8	0,9	-	-	-	2,5	100%
	일반 주거	3	-	-	22	22	10	4	1	1	-	-	20	3	-	-	-	-	-	-	1	2	-	-	-	7	96점
	공방	3,1	-	-	22,9	22,9	10,4	4,2	1,0	1,0	-	-	20,8	3,1	-	-	-	-	-	-	1,0	2,1	-	-	-	7,5	100%
중·후기	일반 주거	25	4	57	676	232	283	143	85	5	27	124	268	46	-	1	11	9	9	2	4	1	1	1	1	352	2,367점
	공방	1,1	0,2	2,4	28,6	9,8	12,0	6,0	3,6	0,2	1,1	5,2	11,3	1,9	-	0,02	0,5	0,4	0,4	0,1	0,2	0,02	0,02	0,02	0,02	14,9	100%
	일반 주거	2	-	2	63	50	42	6	5	-	-	-	46	20	2	-	1	-	-	-	1	-	-	-	-	53	174점
공방	0,7	-	0,7	21,5	17,1	14,3	2,0	1,7	-	-	-	15,7	6,8	0,7	-	0,3	-	-	-	0,3	-	-	-	-	18,2	100%	

* 판단 가능한 완성-미완성 석기들을 합산한 개체수임.
 ** 초기에는 석검(창)이 본격적으로 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른 형식이거나 초기 후반 내지 전기 전반의 병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 유구(단)석부, 주상편인석부(대/소형)는 목재가공과 관련된 것으로 석착으로 분류함.
 **** 제작 중 혹은 완성된 석기류 중 용도가 불분명한 개체는 미완/불명석기로 분류함.



도면 15. 북한강유역 조·전기 석기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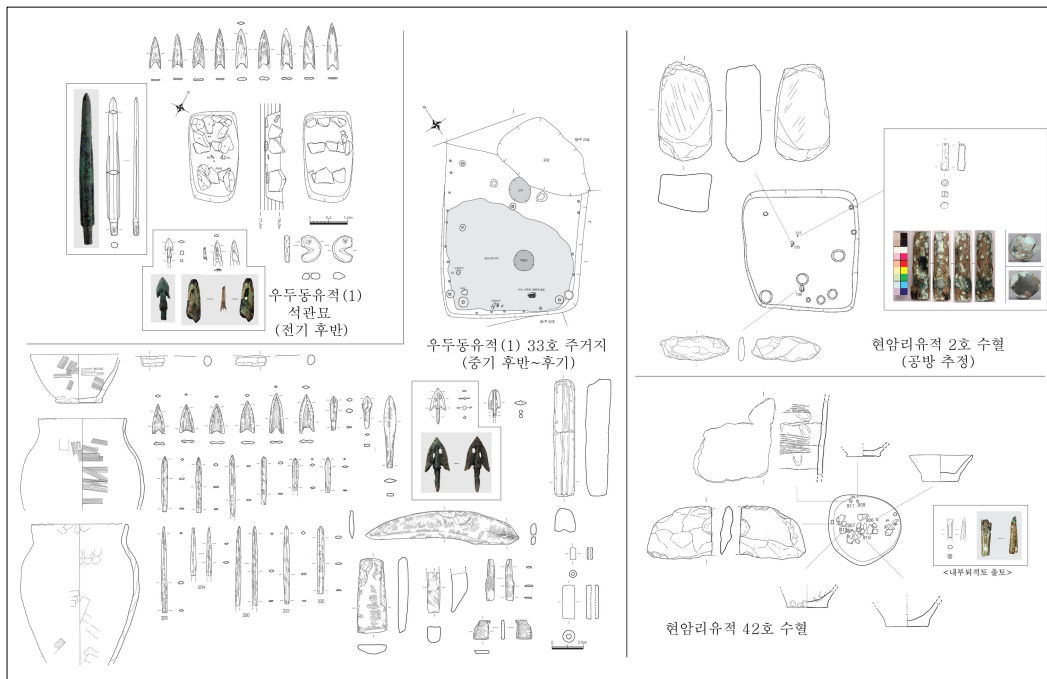
1:신매리(10번지) 1호 2:거례리(3) 38호 3:하중도(D-E) 39호 4:하중도(D-E) 41호
5:칠정리 A58호 6:거례리(5) 28호 7:거례리(5) 43호 8:현암리 57호

도면 16. 북한강유역 중·후기 석기조합

3. 특수재의 수급과 생산

1) 청동기

북한강유역에서 실제 발굴조사를 통해 수습된 청동기는 춘천 우두동 I · 현암리유적이며, 석제 검파두식이 출토되어 동검의 존재가 확실시 되는 유적은 화천 용암리 · 거례리유적과 춘천 우두동 · 현암리유적이다. 이 중 전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우두동유적 석관묘 출토 동검이 가장 이른 것이며, 우두동유적 I의 33호 주거지와 현암리유적 2호 수혈 출토 동촉과 동제품이 중기, 현암리유적 42호 수혈(2400±50B.P)에서 출토된 동촉이 후기에 해당한다(도면 17).



도면 17. 북한강유역 청동기 출토 예

이처럼 수량이 매우 적고 제작과 관련된 유구가 확인된 예가 없기 때문에 청동기의 직접 제작여부를 언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희소성이 높은 소재이기 때문에 형태가 변형되더라도 날을 지속적으로 연마하는 재가공(수리)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또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북한강유역 또한 동일한 맥락에 속해 있다. 우두동유적 I에서 출토된 동검은 공반 출토된 유물로 보아 전기 후반의 비파형동검일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지만, 마연으로 인해 하단부 검엽의 일부만이 남아 있고 봉부 상단 또한 마연된 상태이다. 또한 공반 출토된 유경식의 동촉 역시 축신 상단의 인부 부근에 재

가공에 의한 능이 형성되어 있다. 즉 부장을 위해 제작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던 청동기를 부장한 것으로 파악된다(이양수 2013:77).

재가공의 구체적인 정황은 현암리유적 출토 동제품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현암리유적 2호 수혈은 수혈유구로 분류했으나 미완성 석기(석도)와 지석이 출토되는 공방으로 판단된다. 이 유구에서 용도를 알 수 없는 청동기가 출토되었는데, 외면은 부식으로 인해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상하단에 마연흔이 있어 본래 제작된 용도를 벗어나 재가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42호 수혈 역시 폐기용 혹은 토제품을 만들기 위한 토기류나 석재·미완성 석기의 저장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유구에서 유공식 양익축의 공부편이 출토되어 사용했던 청동기를 폐기하였거나 파손된 상태를 별도의 소재로 파악했던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석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중기 이후에는 석기나 토제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가공(재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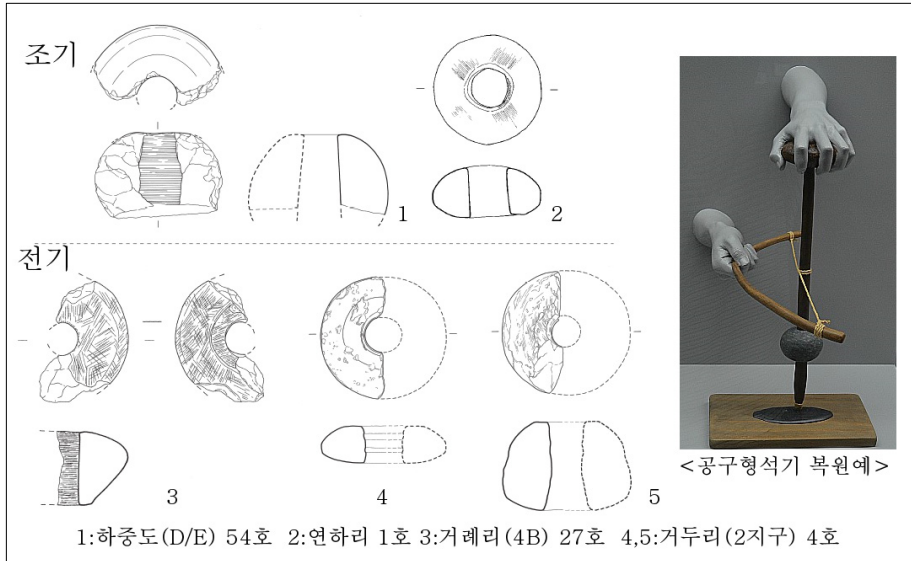
옥은 청동과 더불어 희소성이 있는 대표적인 특수재 중 하나이다. 북한강유역에서 옥의 출토예가 많지 않지만, 청동기 혹은 검파두석과 같은 부속구의 분포와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옥제품의 형태는 조기에 수하식(非定形), 전기에 곡옥⁴⁾이 출토되었지만 대체로 조기로부터 중기를 거쳐 철기시대에도 관옥이 지속적으로 제작되는 가운데 전기에 환옥, 중기에 반원형 옥이 제작되어 후기에 이르는 양상이 확인된다(도면 19).

옥제품은 물질문화의 유통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소재이다. 특히 벽옥·천하석·녹주석 등 다양한 옥의 소재는 북한강유역 근처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원거리 유통 가능성이 매우 높은 품목이며, 완성된 옥제품을 유통하였는가에 관해서는 미완성품과 옥 가공구가 존재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북한강유역 내에서 확인된 미완성품은 드물고 옥 가공구로는 천공구와 옥마석이 확인되고 있다. 천공구는 가평 대성리유적과 춘천 현암리유적·거두리(2지구) 유적에서 錐形의 석영제 천공구가 조기로부터 중기에 해당하는 주거지에서 출토되었고, 지석의 중앙에 관옥 마연으로 생성된 긴 홈이 있는 옥마석 역시 화천 거례리(3·5구간), 흥천 철정리, 춘천 우두동 I, 춘천 신매리(신매대교부지)유적 등에서 출토되었다. 여기에 공구형 석기⁵⁾ 역시 천공 시 활비비를 고정하며 축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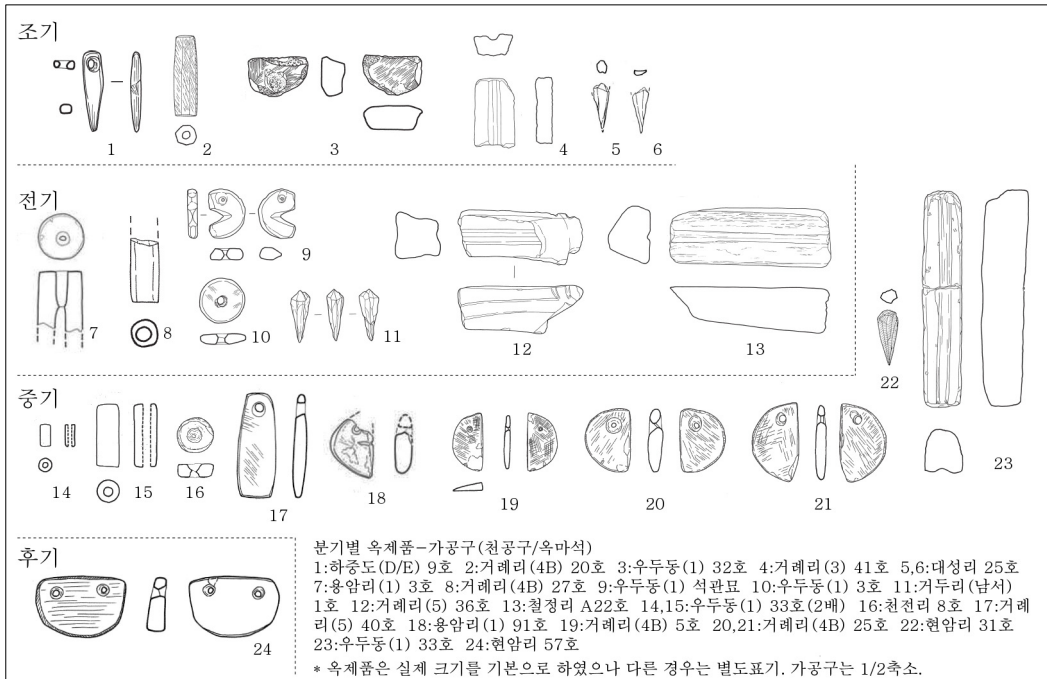
4) 도면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신매리유적(신매대교부지) 21호 주거지에서 곡옥 1점이 출토되었다.

5) 유병록, 2013, 「석기의 종류와 특징」, 『청동기시대 도구론』, 한국청동기학회 워크숍자료집, p46. 현재까지 조기의 유물 중 흥천 철정리유적 A12호 주거지 출토품과 같이 공구형 석기로 분류된 일부 유물 중 중앙부가 오목할 뿐 천공되지 않은 석기류는 활비비 사용시 사용되는 부속품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제외한다.

옥의 제작에 관련된 도구로 생각된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13:451~452). 옥마석과 천공구는 옥제품의 중간 혹은 마무리 제작과정에 사용되는 도구이므로 미완성품의 유통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도면 18).



도면 18. 공구형석기와 복원 예



도면 19. 북한강유역 분기별 옥-가공구 출토현황

이러한 옥제품의 제작관련 유물들이 주로 청동기와 부속구가 출토되는 취락의 일반주거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은 옥이 지나는 위세품으로서의 상징성이 가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북한강유역의 경우 옥제품을 중점적으로 제작하는 전업적인 개별가옥 내지 취락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우두동유적 I 의 33호 주거지와 신매대교부지유적 21호 주거지 내부에서 옥제품(관옥·곡옥)과 옥마석이 함께 출토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IV. 북한강유역 경제활동의 변화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북한강유역의 생산과 소비는 조기로부터 전기 전반의 自家생산·소비단계(1단계)와 전기 후반부터 후기의 半공동생산·소비단계(2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표 7).

1단계는 점상 혹은 선상의 소규모 취락구조 내에서 돌대문토기단계의 대형 주거와 가락동식·역삼동식의 (초)세장방형의 개별주거가 주체가 되는 단계이다(이형원 2012:56~57). 일부 노가 설치되지 않은 소형 주거(하중도(D·E)유적, 연하리유적)가 확인되고는 있지만 그 사례가 적어 이들 유적에서 이 소형 주거의 기능이나 개별주거와의 관계는 명확치 않다. 따라서 대형 혹은 세장방형 개별주거의 다세대 구성원이 역할을 분담해 생산과 소비를 주도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토기는 재가공 토제품을 제외하고 태토의 채취와 수비, 제작과 소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옥외에서 이루어졌으며, 조기와 전기 전반의 문양적인 요소는 다양하지만 쓰임새에 영향을 주는 기종이나 기형, 크기는 비교적 단순해 주로 옥내 저장용의 대형 호형토기를 제외하고 토기간 轉用率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토기류와는 석기의 생산은 가옥 내에서 행해졌다. 석기의 조합은 대체로 기능이 비교적 명확한 조기의 석촉·석부·석착·석도·지석·고석류·방추차·어망추·연석류·공구형 석기·옥 등으로부터, 전기 전반에 조합은 흡사하지만 정형성을 띠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며 석검과 기능이 명확치 않은 원관형 석기·부리형 석기 등이 추가된다. 이 중 석부류에 비해 석착류의 주거 내 출토량이 적고, 소형 주상석착이나 주상편인석부(중대형) 등은 전기 전반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제작되어 목재의 가공과 가공된 목재를 이용한 제작기술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석기를 이용한 2차 생산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단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석기의 제작방식에서 확인되는 찰절과 고타기법은 전기 전반에도 사용되지만, 석촉류 대부분이 찰절 보다는 간접타격으로 분할한 非정형의 2차 모암(석촉재)을 사용하는 방식을 따랐다. 조기와 전기 문화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조기 후반에 나

타나는 일부 공통된 토기류(외반구연토기)와 석기의 제작기법은 전기 전반 두 문화의 병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표 7. 생산과 소비를 기준으로 한 북한강유역 취락전개

편년안			생산 - 소비단계		해당 유적	
구분	주거형태	취락구조				
조기	대형 주거	點狀/ 線狀	1단계 自家생산 · 소비	구조	- 개별가옥세대 중심	화천 용암리(I·Ⅲ)· 거례리· 원천리유적, 춘천 천전리· 우두동(I)· 신매리(제1제방· 신매대교부지)· 금산리· 현암리· 하중도(D·E)· 거두리유적, 흥천 하화계리· 외삼포리· 철정리유적, 가평 달전리· 대성리· 연하리유적
				토기류	- 옥외생산 · 다양한 문양요소 존재 · 대형 호형토기를 이용한 옥내 저장 · 기종과 기형, 크기의 미분화	
전기	전반	가락동식/ 역삼동식	線狀	석기류	- 개별가옥내 생산 · 석검의 출현, 석착류의 다변화(전기) : 석기조합상의 분화 (목제가공기술 상대적 미약) · 찰절/고타위주의 제작방식에 간접분할방식 추가	
	후반	역삼동식/ 변형 역삼동식/ 소형 방형		구조	- 개별가옥내 생산 + 공동보관· 생산 - 공방과 저장시설 등의 다양한 옥외시설의 출현(전기 후반)과 다수의 주거군집(일반 주거+공방+기타 옥외시설)	
중기	전반	천전리식/ 소형 방형	多面狀	토기류	- 전기 후반~중기(2·1단계) · 轉用은 지속되나 쓰임새에 의한 기종과 기형의 분화 · 무문토기에 마연기법 채용 · 저장용 호형토기의 분화 · 저부투공토기의 유입과 소멸·소비방식의 차이 · 토기의 재가공/재활용에 필요한 자재 공유	(2·1단계) 화천 용암리(I·Ⅲ)· 거례리· 원천리유적, 춘천 천전리· 우두동(I)· 신매리(신매대교부지·373-6·10·54-4번지)· 금산리· 현암리· 하중도(D·F)· 거두리· 송암동· 삼천동(순환도로)유적, 가평 달전리· 대성리· 신천리유적, 흥천 철정리· 성산리유적, 남양주 장현리유적
	후반				多面狀	
후기	천전리식/ 소형 방형 (점토대토기 주거 포함)	多面狀 / 面狀 통합	多面狀	석기류	- 전기 후반~중기(2·1단계) · 석기조합의 완성과 기종별 분화 · 목제가공 분화(목제 가공기술 발달)로 인한 목기이용(도구/건축 등) 활발 · 석촉/석부류 위주의 공방 내 공동생산 · 공방 내 원자재 공동보관	(2·2단계) 화천 거례리(3-5)유적, 춘천 천전리· 현암리· 하중도(D·F)· 거두리(2지구)· 철전동유적, 흥천 철정리· 성산리유적
				특수재	- 후기(2·2단계) · 석기조합의 단순화(석창/석촉/석부/유구석부 위주) · 재지 주거를 중심으로 지속적 공방 이용	
			특수재	- 1·2단계 청동기· 옥소재의 원거리 수급 - 거점 중심의 생산(재활용· 재가공)과 소비		

2단계는 역삼동식 주거와 작업공이 부가된 변형 역삼동식 주거, 천전리식 주거, 점토대토기단계의 주거를 포함한 소형의 방형 주거가 주축이 되는 전기 후반~후기에 해당한다. 공방

과 저장시설을 비롯한 옥외시설이 확충되면서 2단계 취락은 몇 동의 일반주거와 공방 등의 옥외시설이 취락 내에서 다수의 군집을 이루는 多面狀의 구조를 보인다(김권중 2013:94). 취락의 구성요소 중 (장)방형의 공방은 화천 용암리유적·춘천 우두동유적 등 일부유적에서 전기 후반에 출현해 중기를 거치면서 춘천분지와 가평 등지의 대다수 유적에 확산된다.

2단계의 토기류는 (심)발형과 호형의 공열과 무문토기류가 주로 생산·소비되었는데, 토기의 소비 轉用은 지속되지만 기종별로 배식기와 자비용, 저장용이 구분되고 각각의 쓰임새에 알맞은 중소형의 다양한 개체가 생산되면서 1단계에 비해 전용의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기 전반까지 생산된 마연토기와 적색마연기법이 적용된 무문토기류는 적용된 기종에서 1단계와 차이를 보이지만, 제작방식과 적색의 마연기법이 내포하는 의미가 전기로부터 중기 전반(2-1단계)까지 계승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소비과정과 취락구조의 전환은 상이한 주거간의 병존관계와 같은 연속선상에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루의 기능으로 추정되는 저부투공토기 역시 2-1단계에 중서부지역으로부터 북한강유역으로 유입되어 제작되었으나 중기 후반인 2-2단계에 소멸한다. 저부투공토기의 소멸원인은 쪼는 토기의 소비방식이 당시의 북한강유역의 식생활에 적합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중기 후반(2-2단계)부터 소형화되고 단순화된 기형의 토기류가 생산·소비되면서 점토대토기를 비롯한 우각형과수부토기나 흑색마연장경호 등의 새로운 기종들이 출현한다. 화천 거례리유적(5구간)과 춘천 현암리유적 등에서 보이는 이러한 변화는 천전리식 주거의 규모의 축소·소형 방형주거의 증가와 같은 재지문화의 변화와 점토대토기 문화와의 접촉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청동기시대 다양한 석기류의 조합은 2단계(중기 전반)에 완성된다. 2-1단계에 석검이 점차 소멸하면서 유병·유경식 석창이 급증하며, 석촉은 결국 손쉬운 평근의 일단형촉과 일체형촉이 증가한다. 특히 소형 주상석창과 유구석부, 유단석부 등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석창류가 다량 제작되는 등 1단계부터 지속된 석부의 생산이 꾸준히 지속되면서 목제가공구가 다양하게 분화한다. 목제가공구의 분화와 생산량 증가는 결국 다양한 기능의 목기의 제작 뿐만 아니라 목재 확보의 측면에서 석부류와 함께 이 시기에 증가하는 주거건축과도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강유역의 생산체계는 주로 석촉·석부·석창·석도 등의 주요기종을 중심으로 원자재를 보관과 분할·분배하여 공방과 개별주거에서 각각 제작하는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제작집단에 의해 미완성 단계의 석기가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지만, 북한강유역 대부분의 취락에서 공방 혹은 공방으로 추정되는 수혈유구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수재를 제외하고 근거리 채집활동을 통해 암질 수급이 가능한 조건에서 무거운 석재 또는 (미)완성 석기를 생산·유통하는 전문적인 집단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은 현재로서

는 적합치 않다. 따라서 생산단계를 엄격히 분업화하거나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전업화된 취락의 존재를 상정할 수 없는 완벽히 분리되지 않은 ㉞공동생산체제이며 이는 토제품의 재가공과 재활용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석기의 생산체제는 현재까지 유구간 중복관계와 배치양상을 통해 2-2단계에도 재지의 주거를 중심으로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보다 증가된 자료를 필요로 한다.

청동기와 관련 부속구(검파두식), 옥제품은 특수재로서 원자재 혹은 (미)완성품을 원거리로부터 수급했을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옥제품의 공방 제작예가 확인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옥가공구가 일반주거에서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거 단위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암리유적의 청동기 출토 예에서 석기를 제작하는 공방에서 청동기의 재가공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재 또한 ㉞공동생산·소비의 체계를 따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청동기시대 북한강유역 경제활동의 생산주체가 개별주거단위에서 주거군집 내지 취락 단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㉞공동생산·소비체제로 전환되었다고 생각된다. 본 발표를 통해 토기와 석기의 몇 가지 생산과 소비의 특징을 통해 생산방식과 소비패턴에서 연속성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조기와 전기 전반·전기 후반과 중기 전반의 다른 구조의 주거 병존에 의한 생산기술과 소비방식의 계승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후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는 취락의 변화과정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문화재연구소, 2013, 『춘천 하중도유적(D-E지구)』 상권.
- 구혜영, 2013, 「청동기시대 중부지역 저부투공토기의 사공간성」, 경희대 석사논문.
- 국립중앙박물관, 2000, 『겨레와 함께 한 쌀』.
- 김권구, 2008,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목기에 대한 고찰 : 남한지역의 목기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 김권중, 2008, 「강원 영서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취락 구조의 변천」, 『한일취락의 연구-생산유적과 취락유적』, 제4회 공동연구회, 한일취락연구회.
- 김민구, 2010, 「곡물의 저장과 저장혈」, 『청동기시대 생업에서의 저장의 역할』, 한국청동기학회 생업분과 2010년 워크샵 자료집.
- 김민지, 2012, 「청동기시대 개시기의 한강 중상류지역 석기 양상」, 영남대 석사논문.
- 김선주, 2007, 「부록 : 1. 화천 용암리유적 뎀석기(타제석기) 검토」, 『용암리』, 강원문화재연구소
- 김한식, 2008, 「경기지역 역삼동유형의 정립과정」, 『고고학』 5-1호.
- 노혁진, 1987, 「紅陶」, 『한국사론』 17, 국사편찬위원회.

- 박경신, 2004, 「한반도 중부이남지방 토기 시루의 성립과 전개」, 숭실대 석사논문.
- 박상운, 2011, 「청동기시대 전기 호형토기의 변화양상」, 『한국청동기학보』 제9호.
- 서영남, 1998, 「봉황대 출토품을 통하여 본 연질토기와 도질토기의 문제」, 『김해봉황대유적』, 부산대박물관.
- 손준호, 2006, 「한반도 청동기시대 마제석기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 송영진, 2003, 「적색마연토기에 대한 일고찰」, 경상대 석사논문.
- 안재호, 2000, 「한국 농경사회의 성립」, 『한국고고학보』 34, 한국고고학회.
- , 2009, 「남한 청동기시대 연구의 성과와 과제」, 『동북아 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학연문화사.
- 엄진영, 2008, 「강원 영동·영서지역 출토 점토대토기의 과학기술적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 오후배, 2002, 「우리나라 시루의 고고학적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 유병록, 2013, 「석기의 종류와 특징」, 『청동기시대 도구론』, 한국청동기학회 워크숍자료집.
- 음식고고연구회, 2011, 『취사실험의 고고학』.
- 이양수, 2013, 「청동기의 매납과 부장」, 『청동기시대 도구론』, 한국청동기학회 워크숍자료집.
- 이지현, 2006, 「강원 영서지역 토기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특성 검토」, 공주대 석사논문.
- 이진민, 2005, 「중부지역 무문토기시대 전중기 문화에 대한 일고찰」, 『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
- 이형원, 2010, 「경기지역 청동기초기철기문화의 최근 조사성과와 연구쟁점」, 『대학박물관과 지역문화의 협력』.
- , 2012, 「중부지역 선사 취락의 공간구조」, 『마을과 도시의 고고학』, 중부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이희경, 2013, 「7. 화천 원천리유적 출토 식물유존체」 『화천 원천리유적-제4권 : 본문3부록』.
- 허의행, 2006, 「무문토기시대 취락입지와 생계경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홍주희, 2012, 「청동기시대의 생활상과 석기의 기능영역 : 북한강유역 출토 석기의 검토」, 『인류학 고고학 논총』.
- 쇼다 신야, 2009, 『청동기시대의 생산활동과 사회』, 학연문화사.
- 키스 윌킨스 · 크리스 스티븐스 著(안승모·안덕임 譯), 2007, 『환경고고학』, 학연문화사.

* 주석으로 직접 인용한 유적을 제외한 개별유적의 보고서는 생략하였음.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구조와 농경생산

나 건 주
금강문화유산연구원

〈목 차〉

- | | |
|--------------------------------|------------------------|
| I. 머리말 | 2. 공지와 초대형 주거의 사회적 의미 |
| II.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구성 단위 | 3. 천안 백석동 청동기시대 취락의 구조 |
| III.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성장 | 4. 청동기시대 전기의 농경생산 |
| IV.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구조와 농경생산 | V.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네트워크 |
| 1. 곡교천유역 청동기시대 전기후 엽 취락 구조의 특징 | VI. 맺음말 |

I. 머리말

인간은 지속적인 문화적 활동을 통해 지표를 개조하여 인위적인 문화경관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인간의 문화적 활동은 주거를 중심으로 일정한 공간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산업화 이전의 자연취락의 기초적인 경제적 기반은 농업활동이었을 것이다. 농업에 기초한 인간집단의 문화적 활동이 반복적으로 영위되는 일정한 공간범위가 광위의 취락 개념에 해당할 것이다. 광의의 취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로는 경작지, 도로망, 쓰레기터, 의례장소 등 다양하지만(추연식 1997: 49), 현재까지 남아있고 육안으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은 인간활동의 중심이 되는 주거가 조성된 공간 일대인데, 방어의 필요성, 가족이나 씨족의 유대, 인간활동에 유리한 자연환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주거가 밀집된다고 한다(石井英也 2001: 60). 이러한 주거와 부대 시설이 밀집된 일정한 공간범위를 협의의 취락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취락은 이와 같은 협의의 취락이 추가되며, 농경지, 묘역 등 광의의 취락요소들도 필요에 따라 다루고자 한다.

인간은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생활하고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종 생산활동과 공동시설물 관리 등에 조직적인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공동체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발표는 청동기시대 전기의 고고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은 취락집단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다만 일관된 분석과 자료의 양을 고려하여 충청지역 자료에 국한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II.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구성 단위

다음은 취락을 인지하기 위한 위한 최소한의 구성요소에 대한 것이다¹⁾. 가락동유형, 역삼동·혼암리유형 등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주거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이고, 내부에 2개 이상의 다수의 노지가 설치된 예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복수의 화덕을 가진 주거는 복수의 세대가 동거하는 확대가족적 성격의 세대공동체의 주거형태로 이해된다(이강승·박순발 1995, 안재호 1996). 이러한 확대가족적인 동거집단은 경작지 확보를 위해 일시에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는 화전농경과 같은 조방적이고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강한 농경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견해(이강승·박순발 1995: 294)가 제시된 이후 널리 수용되고 있다. 천안-아산지역에 분포하는 전기의 취락유적 중에는 일정범위 이상 제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기의 장방형 주거지로 구성된 유적(천안 유리 유적, 신방동 유적 시굴 1지구, 아산 석곡리 유적, 명암리 유적 3·6지점 등)이 다수 존재한다. 거주 인구의 수를 고려할 때, 이 유적들의 성격을 온전한 농경을 기반으로 조성된 취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복수의 화덕을 가진 주거지를 복수의 세대가 동거하는 확대가족적 성격의 세대공동체의 주거로 이해한다면, 취락의 주거군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독립된 사회적 단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청동기시대 전기의 생계경제방식은 전술한 바와 같이 화전농경이 상정되고 있는데, 단위 주거지 1기에 거주하는 인력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농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명유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이든 식량획득 방식이 존재하였음은 틀림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소비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이루어졌음은 분명할 것이다. 이렇게 1기의 주거지로 구성된 유적의 경우를 온전한 취락으로 상정할 수는 없지만, 취락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 단위로 상정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청동기시대 전기의 장방형 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장방형 주거를 확대가족적 성격의 세대공동체의 주거형태로 보는 주요한 근거는 단일 주거에 복수의 노지가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각각의 노지를 독립된 취사단위로 설정하고 설치

1) 유적의 규모에 대한 파악은 취락의 사회적 진화단계나 취락간의 상호관계 분석에서 규모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권학수 1993: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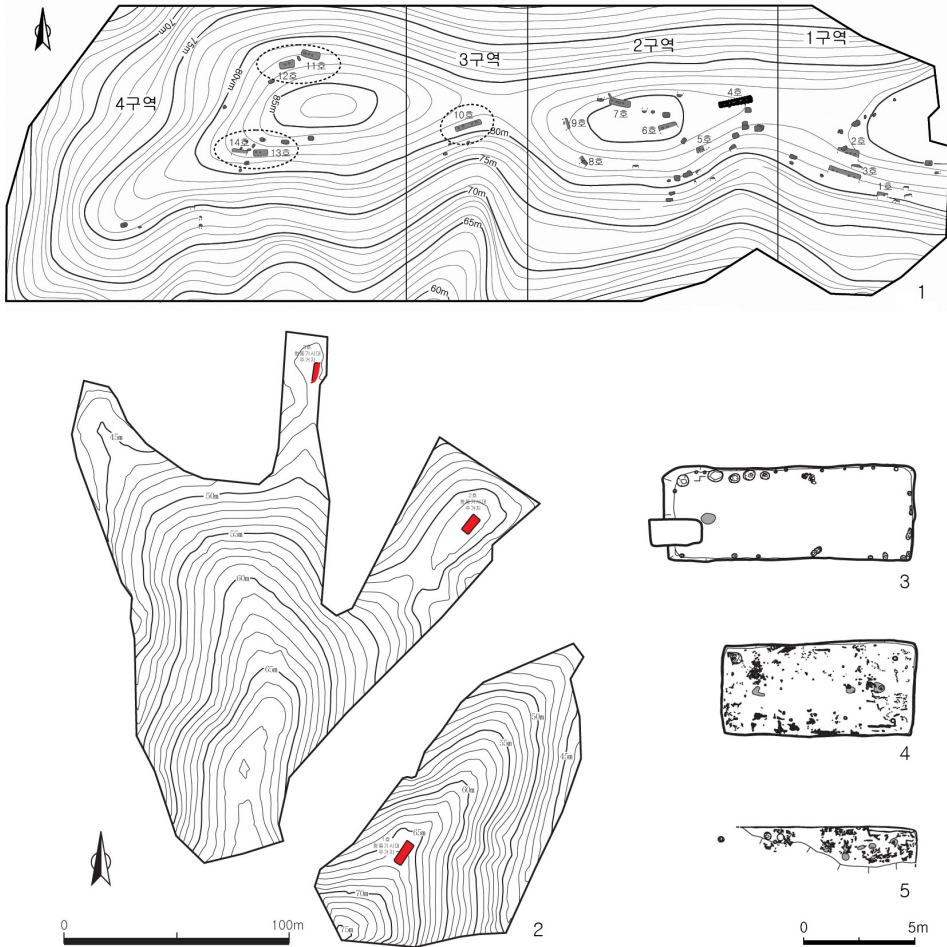
된 노지의 개수만큼 가족단위를 상정한 것이다. 따라서 개별 노지의 설치가 과연 단위가족의 취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타당한 근거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수혈주거에 설치되는 노지의 기능으로는 취사를 포함하여 난방과 조명 등의 기능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난방과 조명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난방의 경우 실험고고학적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1기의 노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오규진·허의행 2006). 따라서 공간활용에 제약을 주는 복수의 노설치는 비효율적이며, 더욱이 당시의 환경이 노에 사용되는 땀감의 공급이 제한적이었을 것을 고려하면 복수의 노는 난방을 위한 용도 외에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옥내 작업을 위한 조명기능의 경우 또한 땀감 확보 등을 고려하면 특정 공간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기의 장방형 주거에서 확인되는 복수의 노의 가장 유력한 용도는 개별적 취사를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기의 장방형 주거의 발굴자료를 살펴보면 증개축 양상이 다수 확인되는데 대부분 노의 신설과 연동된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의 장방형 주거가 확대가족적 성격의 세대공동체의 주거형태로 상정가능하다면, 1기의 장방형 주거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생활단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방형 주거는 개별 취락 안에서도 독립된 생활단위로 영위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1-1>의 아산 명암리유적 11지점의 유구배치 중에서 10호 주거지의 분포를 살펴보면, 취락이 입지하는 구릉 중단의 3구역에 단독으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동쪽과 서쪽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하는 9호, 11호 주거지와 이격거리가 각각 36m, 69m 정도이다. 남쪽 사면으로는 3기의 수혈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10호 주거지 자체로 독립된 생활단위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취사행위 등 의식주와 관련된 일상의 소비활동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영위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다수의 노동력이 수반되는 농경생산활동 및 취락의 공동시설을 관리하는 행위 등에는 취락 전체의 가용인력이 모두 동원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1>의 용화동 가재골유적 2지점을 살펴보면, 3기의 주거지가 樹枝狀으로 분지된 3개의 구릉정상부에 각각 한 기씩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프라이버시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거리이지만, 능선을 통해 또는 곡부를 가로질러 각각의 주거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다. 조사된 3기의 주거지 모두 노가 설치된 점으로 보아 모든 주거는 통상적인 주거형태에 해당하며, 전술한 바와 같이 일상의 소비활동은 각각의 주거별로 독립적으로 영위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수의 노동력이 필요한 농경생산 활동에는 3기 주거의 모든 가용인력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체 주거의 수로 보아 수전보다는 화전과 같은 농경방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전농경과 같이 불을 제어하고 화전을 조성하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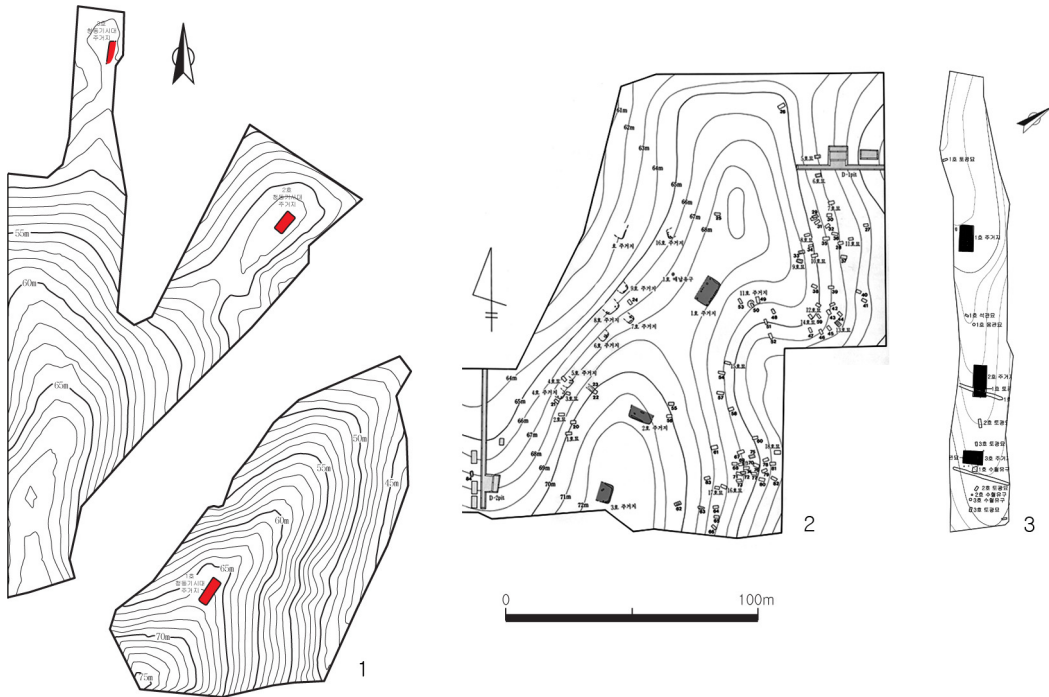
는 일정 이상의 노동력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생산활동에는 전 주거의 구성원이 동원되고 생산물의 소비는 각각의 주거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을 구성하는 최소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보았고, 확대가족 적 성격의 세대공동체가 거주했던 장방형 주거 1기를 최소의 구성단위로 상정하고자 한다. 다음은 개별 취락단위의 최소규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기의 장방형 주거를 취락을 구성하는 최소의 사회적 단위 설정하였지만, 1기에 상주할 수 있는 거주 인구의 한계를 고려하면, 그 자체가 농경에 기반한 일반적 의미의 취락단위로 보기에는 무리이다. 1기로 구성된 유적의 경우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생각된다.



1: 아산 명암리유적 11지점, 2: 아산 용화동유적 2지점, 3~5: 아산 용화동유적 2지점 1호~3호 주거지

도면 1. 아산 명암리 유적 11지점과 아산 용화동 유적 2지점 유구배치 및 주거일괄 (유구배치도: 1/3,000, 주거지: 1/300)



1: 아산 용화동유적 2지점, 2: 천안 두정동유적, 3: 공주 제천리유적

도면 2.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최소 구성요소(1/3,000)

〈도면 2-1〉의 아산 용화동유적 2지점을 살펴보면, 수지상으로 분지된 3개의 구릉정상부에 각각 축조된 3개의 주거로 구성된 취락에 해당한다. 취락이 입지하는 구릉지대의 경사가 급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각각의 구릉지대로 주거가 분산되어 축조된 것으로 보이며, 천안 두정동과 공주 제천리유적과 같은 구조 및 규모의 취락으로 판단된다. 천안 두정동유적은 곡교천유역의 역삼동·혼암리유형에 해당하며, 공주 제천리유적은 금강중상류 지역에 분포하는 가락동유형에 해당한다. 양유적의 입지를 살펴보면, 저구릉지의 능선을 따라 일정거리를 두고 3기의 주거가 조성된 점에서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두 유적 외에도 3기의 주거로 구성된 유적이 양지역에서 다수 확인된다. 이러한 규모와 구조가 당시 취락의 최소 단위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취락유적들의 시간적 위치를 보면, 대체로 전기에서도 이른 단계로 편년된다(나건주 2010). 역삼동·혼암리유형과 가락동유형은 모두 북방에서의 주민이동으로 남하한 집단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주민이동의 직접적인 원인을 단정할 수 없지만 장방형 주거를 이동성이 강한 농경방식과 연결시킨다면, 3기의 주거로 구성된 최소단위의 취락과 이러한 취락단위 3~4개가 수평적으로 결합된 취락의 규모와 구조가 이동성이 높은

집단의 취락구조에 적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집단의 이동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집단보다는 최소한의 조직을 구성하여 이주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것이다(임상택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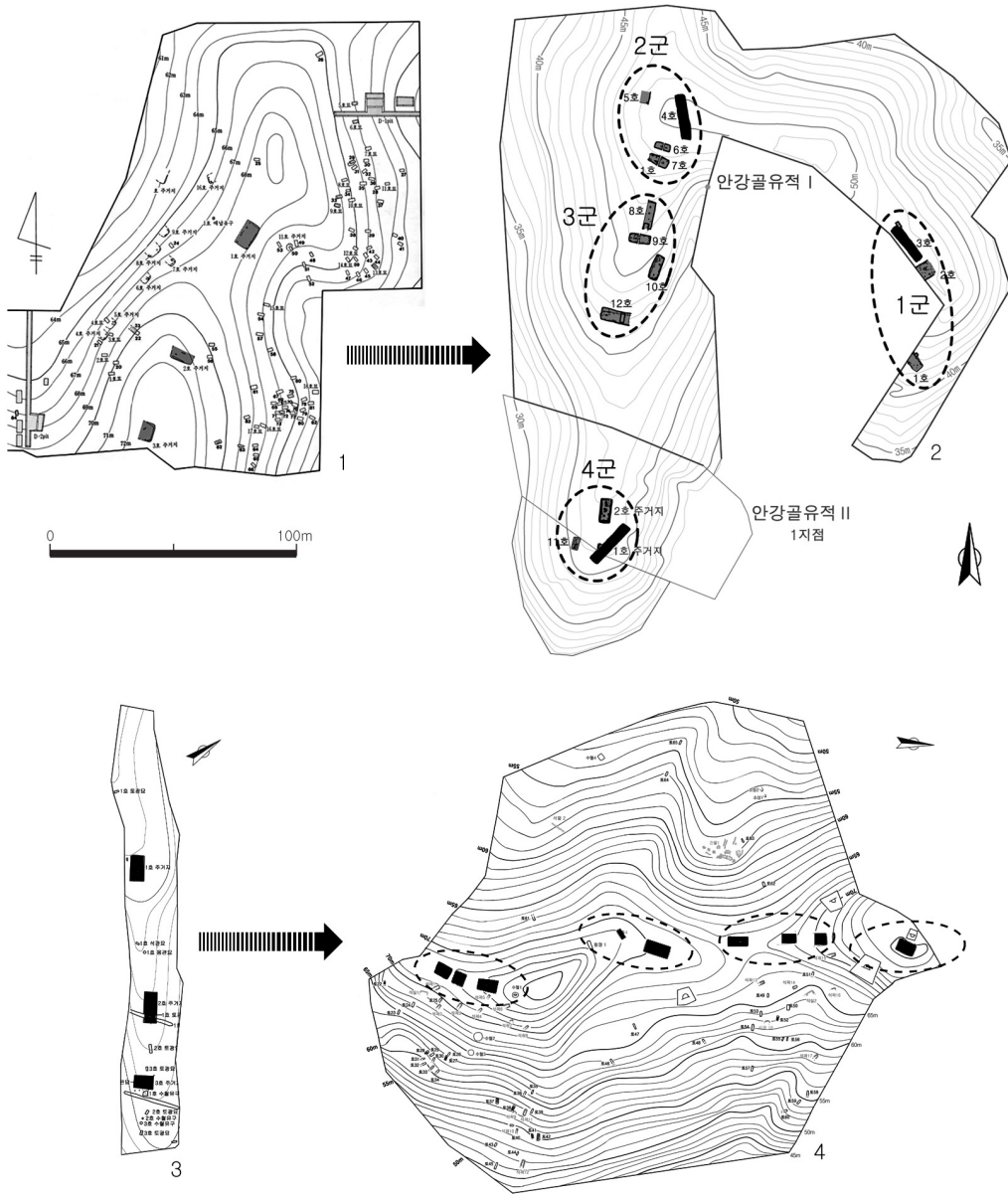
Ⅲ.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성장

3기 내외의 주거로 구성된 유적은 충청지역의 전기유적 전체에 걸쳐 다수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유적들 중에는 출토유물이 빈약하여 정확한 편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편년 가능한 경우 대체로 전기 전엽이거나 중엽에 해당한다. 아산만지역에서는 조기의 미사리유형 유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신석기와 청동기시대의 전환기적인 양상을 보이는 유적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역삼동·혼암리유형 집단이 이 지역에 유입된 이후 빠르게 주변의 구릉지대로 확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산만지역 중에서도 곡교천유역의 경우 도시개발로 인한 구체조사가 대규모로 진행되었고, 전기의 취락유적도 높은 분포밀도를 보인다. 이에 반해 그 이전의 신석기시대 취락의 조사빈도는 매우 낮다. 이 지역에서 조사된 신석기시대 취락의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9개 유적에서 총 29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나건주 2013). 청동기시대 유적(72개 유적, 주거지 757기)와 비교할 때 그 차이는 뚜렷하다. 이것은 청동기시대 취락의 확산이 신석기시대에 비해 전격적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관적 조건이 양호한 저구릉지에는 예외없이 청동기시대 취락이 확인되는 양상으로 보아, 당시 취락의 경제영역권은 광역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농경민의 토지활용에 있어 농가에서 반경 3~4km 범위를 넘어선 지역에 대한 경작은 극도의 수지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 지역은 거의 경작되지 않으며, 부득이 경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농가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추연식 1997에서 재인용)를 참고하면, 청동기시대 농경민의 토지활용 또한 이동에 따른 비용에 상응하는 수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리내에서 진행되었을 것이다. 일정한 지형적 조건을 갖춘 구릉지대에 예외없이 청동기시대 취락이 확인되는 것은 농경을 통한 식량자원이 취락 주변에서 비교적꾸준하게 공급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전기 전엽 단계의 농경은 취락을 구성하는 주거의 수를 고려할 때, 취락 주변의 구릉지대를 경작지로 활용한 화전농경방식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정적으로 취락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구가 필요할 것이다. 민족지자료를 토대로 취락의 규모를 구분한 연구에 의하면, 인간 공동체가 자연환경 속에서



1: 천안 두정동유적, 2: 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 3: 공주 제천리유적, 4: 연기 보통리유적

도면 3.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최소 구성요소(1/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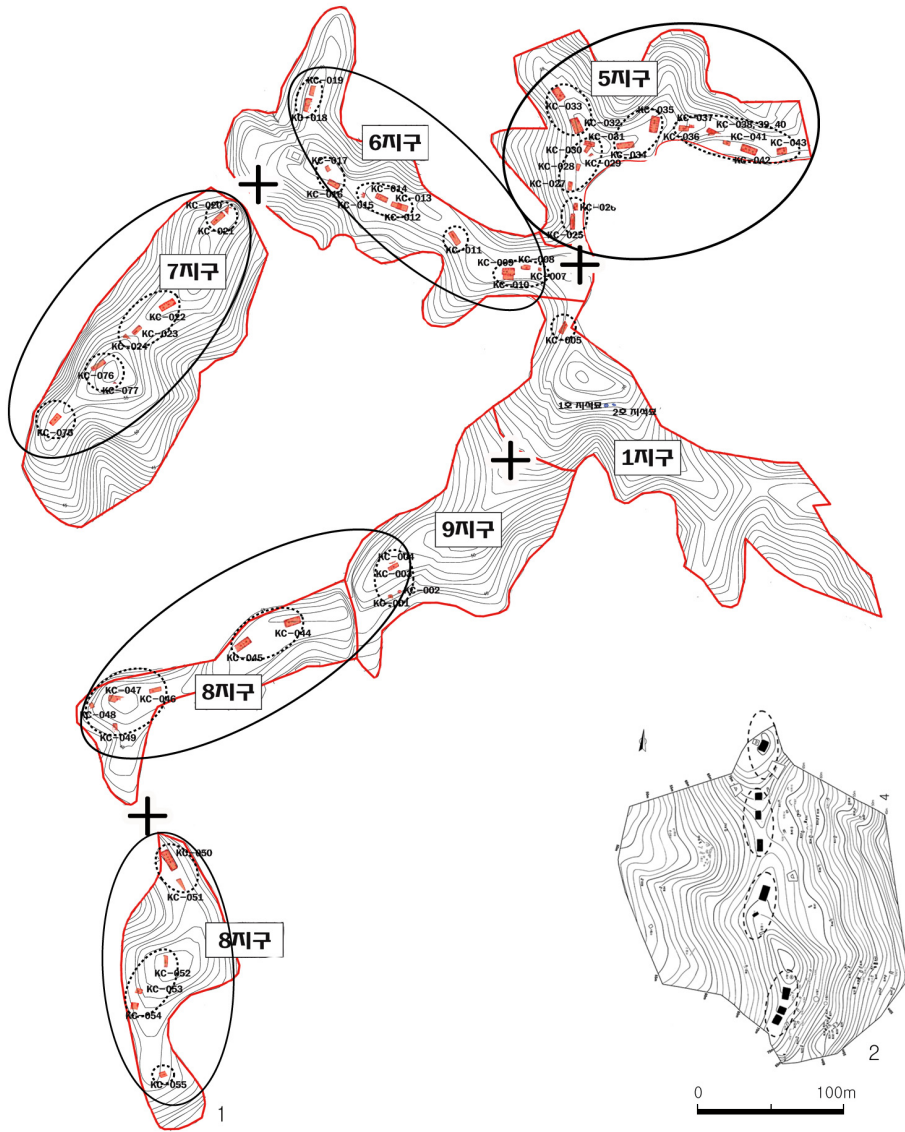
성공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필요한 데 그것은 대략 25인 가량이며, 내적 위계분화 없이도 원활한 사회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 규모는 약 150~200인 가량 된다고 한다(Bintliff 1999; 박순발 2002에서 재인용). 3기 내외의 주거로

구성된 소규모 취락의 인구는 아마도 하한기준인 25인 내외에 해당할 것이다. 소규모 취락의 경우 보다 안정적으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취락사회의 규모를 키워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자연환경은 자원에측성이 낮은 비교적 척박한 환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원에측성을 높이고 안정된 정주취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경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전기 이른 단계부터 소규모 취락단위가 결합되어 규모를 키워나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3-1〉의 천안 두정동유적은 전술한 바와 같이 3기의 주거로 구성된 가장 소규모의 단위취락에 해당하며, 〈도면 3-2〉의 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은 3~4기의 주거지가 모여 단위 주거군을 형성하고 있는데, 주거군의 경우도 3기의 주거지가 기본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장재리 안강골유적은 두정동유적과 같은 기본적인 취락단위 4개가 결합된 형태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은 금강중하류의 가락동유형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연기 보통리유적의 유구배치도(도면 3-4)를 살펴보면 해발 75m 미만의 저구릉지 정상부의 능선을 따라 선상으로 주거가 배치하고 있는데 4개의 주거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주 제천리유적과 같은 소규모 취락단위 4개가 결합된 취락에 해당한다.

전기 이른 단계의 취락의 규모를 상기해보면 주거의 수가 3~14기 정도이다. 취락에 거주했던 인구의 규모를 고고학적으로 논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성과를 통해 최소한의 인구범위는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복수의 노지가 설치된 장방형의 주거지는 복수의 세대가 동일한 주거에 거주하는 확대가족적 성격의 세대공동체의 주거로 이해된다(이강승·박순발 1995, 안재호 1996). 1개의 노지가 단혼세대를 의미한다고 하면, 2개 노지의 경우 성인 4명+a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울산지역의 울산식 주거지의 경우 역삼동·흔암리유형의 주거지가, 주혈배치는 4각구도로 정형화되고 노지는 1개로 감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거주 인구를 수면공간의 면적을 토대로 2~3인에서 7~9인까지 설정한 연구결과²⁾도 참고한다면, 2개의 노지가 설치된 8m 내외의 장방형 주거 3기로 구성된 취락의 인구는 21~27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3기의 주거로 구성된 두정동유적과 같은 소규모 취락의 인구는 25인 내외이고, 이러한 소취락 4개가 결합된 구조인 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4개 주거군으로 구성)의 경우 대체로 100인(25×4)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와 같은 거주인구의 추정은, 필요이상으로 큰 주거는 건축과 난방의 비용만 높을 뿐 실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거의 규모는 거주인원, 즉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김현식 2011: 69). 청동기시대 전기 전엽의 생계경제방식은 화전농경과 수렵·채집을 병행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당시의 잉여생산력은 높지 않았을 것이고, 위계적 계층화도 발생되기 전으로 판단된다. 전기의 대형 주거지에서는 예외 없이 다수의 노지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주거의 성격은 거주인원이 많거나 공공집회를 위한 가옥으로 생각된다.



1: 연기 송원리유적, 2: 연기 보통리유적

도면 4. 가락동유형 대형취락의 구조(1/5,000)

전기 취락의 성장은 취락이 입지하는 지역의 생산력이 뒷받침되는 전기의 후엽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락동유형에 해당하는 연기 송원리 유적(도면 22)은 세종시 부지에서 조사된 가락동유형의 취락 중 가장 규모가 큰 대형취락에 해당한다. 체천리 유적이 3기 내외의 주거로 구성된 최소단위의 하위취락에 해당하며, 이 보다 규모가 큰 중위취락에는 연기 보통리유적이 해당하는데, 하위의 취락단위가 중위 취락의 주거군으로 편입된다. 가장

규모가 큰 상위 취락인 송원리 유적은 보통리유적과 같은 중위취락 5개가 결합되어 하나의 대취락을 형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2기의 지식묘가 위치하는 구릉지대 정상부를 중심으로 5개의 중위취락이 결합된 구조에 해당한다. 여기서 각각의 취락군의 상호관계는 전반적인 유구배치와 주거 규모의 편차로 볼 때 수평적 관계로 판단된다. 5지구와 6지구의 취락이 다른 취락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인데, 6지구는 입지적 우월성이 인정되는데 반해, 5지구는 군집된 주거의 규모에서 우월한 모습이다. 또한 개별 취락에서도 우월적 모습의 주거가 두드러지게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인 관계는 개별 취락단위가 수평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차령산맥 이북의 역삼동·혼암리 유형 취락의 경우는 전기 후엽으로 가면서 전엽 단계의 수평적 결합은 사라지고, 구릉정상부의 공지를 둘러싼 환상배치로 바뀌며, 공지와 초대형주거 그리고 중핵 주거군 등의 존재에서 확인되듯이 종적인 체계를 갖춘 취락구조가 확인된다(나건주 2013: 95~126). 아마도 역삼동·혼암리유형 취락사회의 경우 후반기로 가면서 취락 구성원 사이의 유대와 결속력이 강화되면서 보다 구조화된 취락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전기 후엽으로 가면서 양유형의 생계경제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자한다. 결과적으로 역삼동·혼암리유형의 경우 화전농경방식에서 수전농경으로의 전환에 따라 체계적인 노동력 동원과 통제의 필요에 따라 구성원 사이의 공동체성이 강화되고, 강화된 공동체성이 물리적인 취락구조에 투영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IV.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구조와 농경생산

1. 곡교천유역 청동기시대 전기 후엽 취락구조의 특징

곡교천유역 역삼동·혼암리유형에 해당하는 취락인 천안 용곡동 두터골유적의 유구배치도를 살펴보면 구릉평탄부의 공지를 중심으로 초·대형주거지 및 중소형의 주거지, 수혈 등의 유구가 군집되어 배치되면서 일정한 주거군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도면 5-2). 초대형 주거지인 2호³⁾가 정상부 평탄면의 남단에 위치하며, 나머지 주거지들은 구릉의 사면에 위치한다. 2호와 정상부의 공지를 環狀으로 둘러싸고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초대형 주거지인 2호의 성격은 주거지의 규모(면적), 다수의 노지, 평탄

3) 용곡동 두터골유적의 2호 주거지는 장축길이 1,831cm, 단축너비 318cm, 면적 58.28㎡ 규모로, 두터골유적의 유일한 초대형 주거지이다.

면 축조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중·소형 또는 대형 주거지와 차별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용곡동 두터골유적의 청동기시대 취락은 2호 주거지와 공지를 중심으로 통합된 하나의 주거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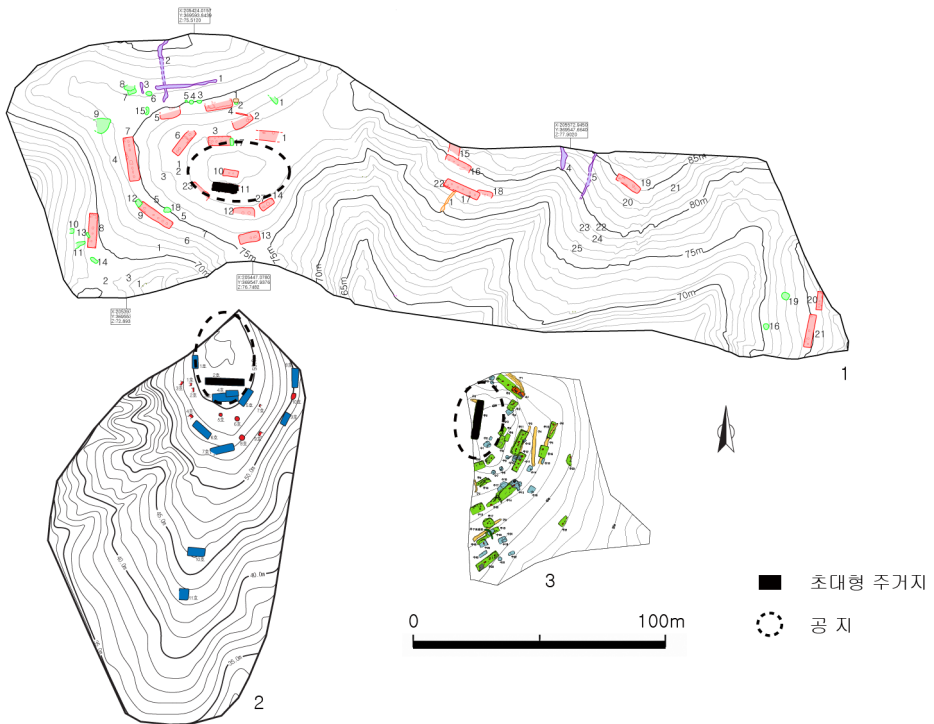
초대형 주거지인 2호 주거지의 북쪽 일대의 구릉정상부에 넓은 평탄면의 경우, 전기 전엽 단계의 취락에서는 이러한 공간에 예외없이 주거가 조성되는데, 주거가 입지하기에 가장 양호한 지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구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른 특별한 기능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유구가 조성되지 않는 구릉정부 평탄면은 전기 후엽 취락에서 흔히 확인된다. 이러한 구릉정상부 평탄면에는 거의 예외없이 그 일대 내지 취락 전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초대형의 주거지가 확인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산 명암리유적(12지점), 천안 용곡동 두터골유적과 아산 대흥리 큰선장유적 등인데, 유구배치 양상을 살펴보면 밀집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인 배치양상은 거의 동일하다. 지형이 가장 높고 평탄한 구릉정상부에 유구가 조성되지 않는 공백지대가 존재하며, 이 공백지대의 외곽에 유적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거지가 위치한다. 나머지 주거와 수혈들은 구릉의 사면부에 위치하는데, 구릉정부의 유구공백지대를 에워싸듯이 배치된 양상이다. 구릉정부의 평탄한 대지는 유구가 입지하기에 가장 양호한 지형에 해당하며 전기 전엽 단계에는 예외없이 유구가 조성되었던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후엽에 이르러, 이러한 공간에 유구를 조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간활용 방법에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서 구릉정상부의 유구공백지대에 대한 성격이 명확하게 규명된 사례는 없다. 지형의 삭평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구릉지대의 정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하식 유구가 아닌 과거 구지표상의 흔적이나 지상으로 돌출된 유구의 경우 현재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전기 전엽 취락의 경우 이러한 구릉정상부와 능선에서도 유구가 모두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삭평으로 인해 원래 존재했던 유구가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따라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공간에 유구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이상의 다른 기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기능으로는 취락이 입지하는 구릉지대의 가장 고지대에 해당하고, 유구배치의 중앙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광장과 같은 기능을 상정하고자 한다. 다만 명확하게 그 성격이 규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광장이라는 직접적인 표현 보다는 유구공백지대라는 현상을 반영하여 공지로 지칭하고자 한다. 한편 이 공지의 외곽에는 예외 없이 해당 취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거지가 조성되어 있다. 공지의 성격은 이곳에 조성된 초대형 주거지의 성격과도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초대형 주거지는 구릉정상부 및 취락 중심부 입지, 면적의 우월성, 다수의 노지 등에서

여타 주거지들과는 차별된 모습을 보인다. 초대형 주거지의 성격과 기능은 입지와 구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먼저 주거 입지의 경우 취락이 위치하는 구릉지대 중앙의 정부평탄면에 위치하고 있다. 구조적으로는 다른 주거지들과는 차별화된 면적과 노지의 수가 특징적이다. 넓은 면적은 주거 인원의 수와도 관련시킬 수도 있는데, 상주인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수의 인원을 옥내에 수용할 수 있다는 점만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다수의 노지의 경우, 난방을 위해서는 많은 수의 노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험고고학적 결과(오규진·허의행 2006: 188~191)를 고려한다면, 취사 또는 조명 등의 기능에 보다 적합할 것이다. 또한 필요이상으로 큰 주거지는 건축과 난방의 비용만 높을 뿐, 그다지 실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거지의 규모는 주거지의 거주인원, 즉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라 결정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김현식 2011: 69)도 참고한다면, 넓은 면적과 다수의 노지는 주거의 수용인원과 연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초대형 주거지의 기능은 상시 혹은 일시에 다수의 사람을 수용하는 주거로 추정하고자 한다.



1. 아산 명암리유적(12지점), 2. 천안 용곡동 두터골유적, 3. 아산 대흥리 큰선장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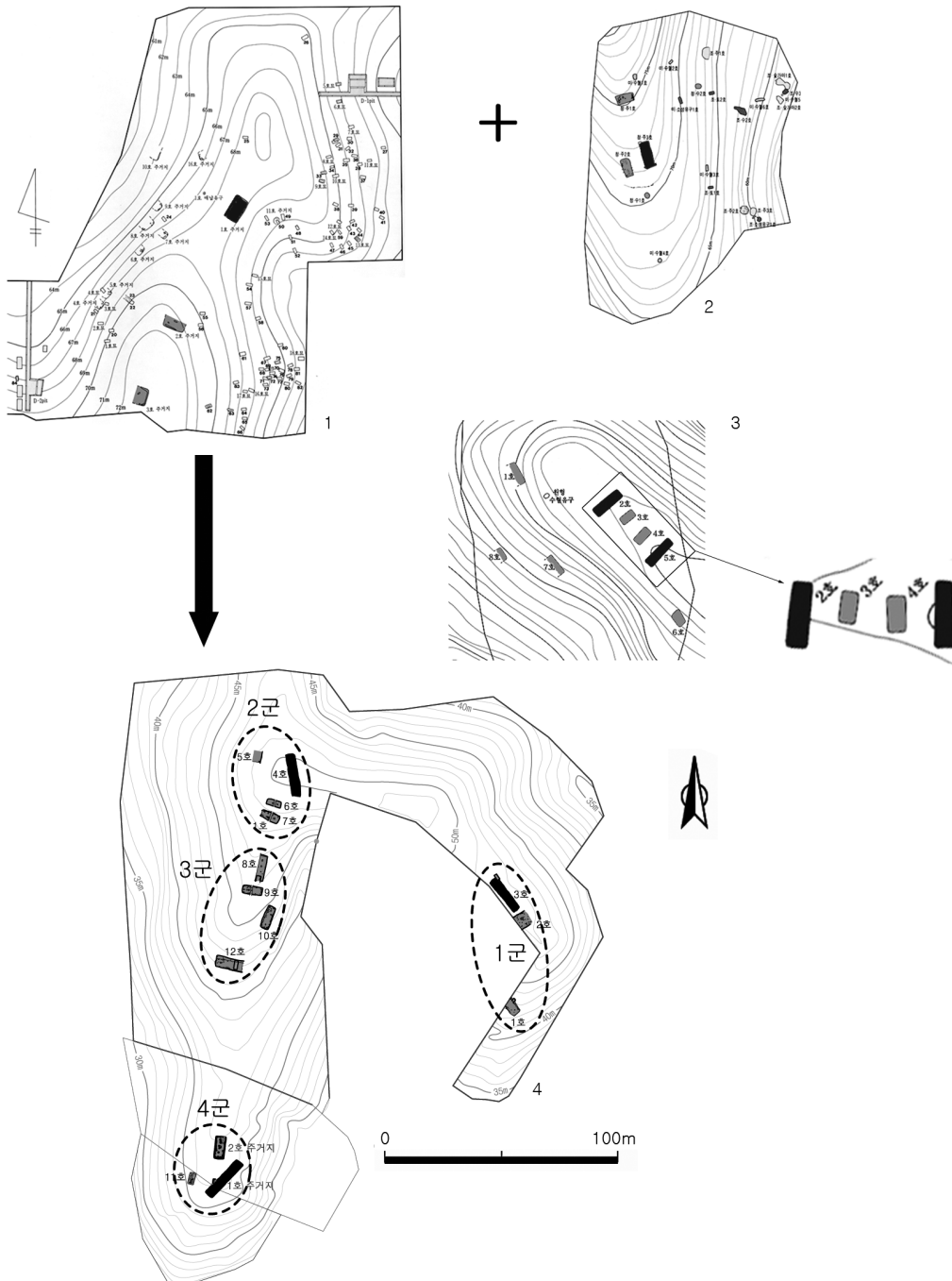
도면 5. 전기 후엽 취락의 공지와 초대형 주거지(1/3,000)

2. 공지와 초대형 주거의 사회적 의미

다음은 초대형 주거의 출현과정 공지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도면 6>은 전기 전엽의 소규모 취락들과 다수의 소규모 취락이 결합된 구조에 해당하는 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에 해당한다. 두정동과 용두리 산골 I의 경우 3기의 주거로 구성된 소취락에 해당한다. 두정동의 3기의 주거지는 규모가 장축길이 729~1000cm 사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잔존상태로 보아 1호 주거지의 규모가 크고, 다른 주거지들이 1기의 노지만 설치된 것에 비해 2기의 노지가 설치된 예에 해당한다. 용두리 산골 I의 경우도 두정동과 거의 동일한데, 2기는 각각 727·753cm이며, 나머지 1기는 1,097cm이다. 3기 중 1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확인되지만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갈산리 무리치유적의 경우 능선상에 배치된 4기의 주거지들(2~5호)를 살펴보면, 대형 주거지와 소형 주거지가 짝을 이루어 대칭적인 배치를 보인다. 대형과 소형이 짝을 이룬 2호·3호와 4호·5호의 관계는 입지와 주거의 규모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호간에 수평적 관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은 두정동과 같은 소취락 4개(1~4군)가 결합된 구조에 해당한다(도면 27-4). 3군을 제외한 각각의 군에는 초대형 주거지가 1기씩 분포한다. 3군의 경우 4기의 주거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12호(잔존길이 1,147cm)는 장축의 일부가 유실된 상태인데, 잔존된 상태로도 대형 주거에 해당한다. 다만 확인된 노지가 1기에 불과해 일반적인 초대형 주거와는 차이가 있다. 2군과 3군은 이격거리가 길지 않아 하나의 주거군으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각의 주거군의 초대형 주거지들의 규모를 보면 1,828~1,909cm 사이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갈산리 무리치유적과 같이 상호간에 수평적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다만 구릉정상부이며, 취락의 중심에 해당하는 2군이 주목된다. 2군의 초대형 주거인 4호의 서쪽일대에 일부 유구공백지대가 있지만 그 면적이 협소하고, 4호의 배치가 구릉정상부의 장축방향과 직교하는 것으로 보아 공지의 기능을 고려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전기 전엽 단계의 취락의 구조는 3기의 주거로 구성된 소취락의 형태가 갈산리 무리치유적과 같은 점이적인 구조를 거쳐서 장재리 안강골과 같은 다수의 주거군이 결합된 형태로 변화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천안 두정동유적과 같은 소취락 단계에는 주거 간의 규모의 편차가 크지 않았지만, 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 단계에는 초대형 주거가 출현하면서 주거간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며 초대형 주거를 중심으로 주거군이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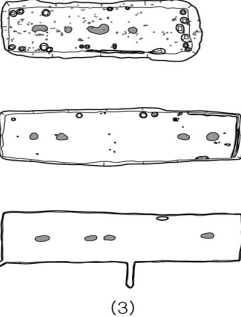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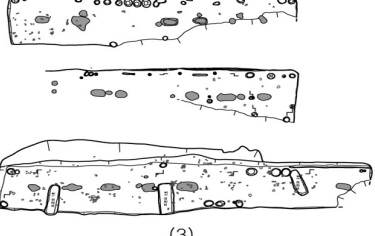


1. 천안 두정동유적, 2. 아산 용두리 산골유적(Ⅰ), 3. 서산 갈산리 무리치유적, 4. 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Ⅰ·Ⅱ)

도면 6. 전기 전업 취락과 초대형 주거지(1/3,000)

주거간 규모의 차이는 <표 1>과 같이 용화동 가재골유적과 같은 후기 후엽으로 가면서 보다 체계화된다. 공지는 주거간 규모의 편차가 커지고 초대형 주거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거군의 출현과 함께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자 한다. 공지의 기능에 대해서는 발굴자료를 토대로 1차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나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지는 초대형 주거를 중심으로 통합된 주거군의 특정할 수 없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기능적 공간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표 1. 아산 용화동 가재골유적 주거의 분류(1/500, 괄호안은 개수)

주거지 노지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노지 無	 (2)	 (1)		
노지 1	 (2)			
노지 2	 (1)	 (5)	 (2)	
노지 3		 (4)		
노지 4			 (3)	
노지 6 이상				 (3)
합계	5	10	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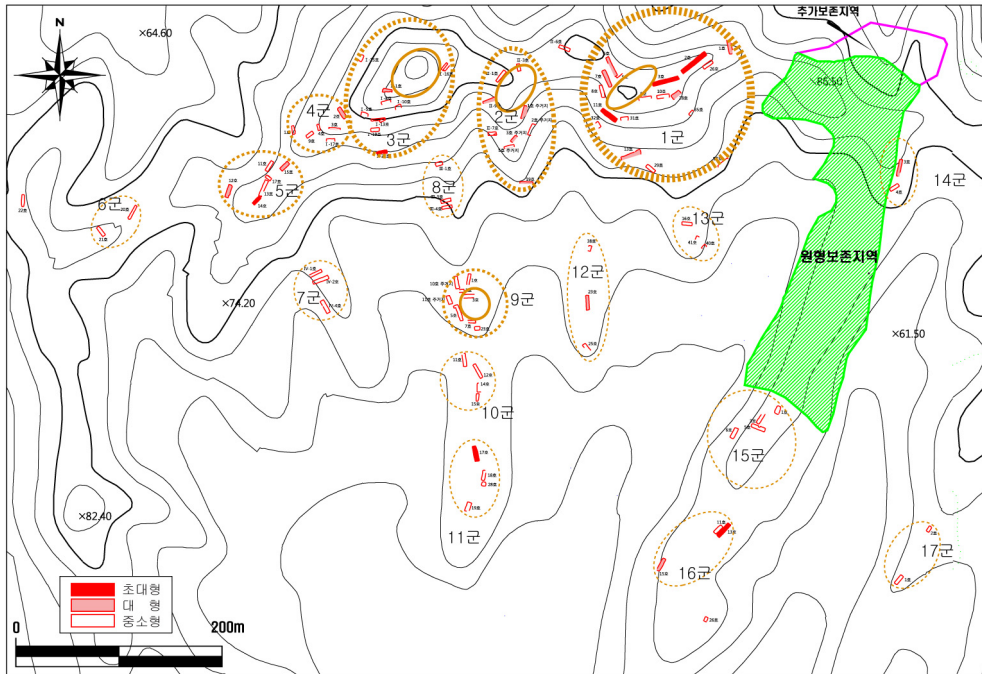
전기 후엽 단계에는 단순한 규모의 확대를 넘어 주거 배치에 일정한 규칙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규칙성의 핵심은 앞서 설명한 공지와 초대형 주거를 핵으로 하여 형성된 취락구조이다. 확대된 취락사회가 안정적으로 영위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사회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도면 5-1>을 보면 아산 명암리유적(12지점)의 경우 구릉선단부의 주거군 동쪽으로도 주거지가 확인된다. 조사범위 밖으로 구릉의 능선을 따라서 추가로 유구가 확인될 가능성이 충분함을 알 수 있다. 실제 조사되지 않았던 구릉의 나머지 지역도 발굴조사되었는데, 또 다른 구릉정상부에서 2개의 주거군이 추가로 확인되었다(배상훈 외 2011). 추가로 확인된 2개의 주거군의 중심에도 초대형 주거와 공지가 확인된다. 따라서 아산 명암리 유적(12지점)은, 용곡동 두터골유적과 같은 공지와 초대형 주거를 핵으로 형성된, 취락단위 3개가 결합된 형태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천안 용곡동 두터골 유적의 경우도 동일 구릉지대의 북쪽편 구릉에 용곡동 눈돌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락의 확장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산 대흥리 큰 선장 유적 또한 절토되어 유실된 지역으로 취락이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초대형 주거와 공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주거군 여러개가 결합된 취락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천안 백석동유적에 해당한다.

3. 천안 백석동 청동기시대 취락의 구조

천안 백석동 취락에서도 복수의 주거지와 공지로 구성된 주거군의 성립과 주거군 사이의 위계화 양상이 3기에 이르러 확인된다(나건주 외 2011). 백석동 취락은 모두 17개의 주거군으로 구분 가능하다(도면 39). 주거군 설정을 위한 공간분석은 주거군이 위치하는 자연 지형⁴⁾과 유구의 연속성 등에 기초하여 1차 구분한 후에, 주거 배치양상을 고려하여 최대한 패턴을 인지해서 주거군을 설정하였다. 17개 주거군 중 4개의 주거군(1군·2군·3군·9군)에서 구릉정상부 평탄면의 공지가 확인되었다. 1~3군은 17개 주거군 중에서도 가장 많은 유구가 밀집된 대형 주거군에 해당하며, 9군의 경우 중형 주거군에 해당한다. 주거군 사이에도 일정한 위계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⁵⁾, 취락 내에 가장 많은 구성원이 모여 있는 중핵적 주거군의 존재가 위계화의 실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다수의 구릉정상부와 수지상으로 분지된 소능선들을 단위로 지형을 세분하였다.

5) 전고(나건주 외 2011: 65)에서는 9개의 주거군에서 공지를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여 판단한 결과, 일부 주거군의 공지는 단순한 유구공백지대를 무리하게 설정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구릉정상부의 유구공백지대를 주거지들이 명확하게 에워싸면서 배치된 것들로 한정하였고, 그 결과 4개의 주거군에서 공지를 설정할 수 있었다.



※감색 실선 : 공지, 감색 파선 : 주거군

도면 7. 천안 백석동 유적 3기의 주거군 설정(1/7,000)

〈도면 7〉의 중앙 상단의 노태산 정상 일대의 구릉정상부에 형성된 1·2·3군은 여타 주거군과 비교할 때 여러면에서 차별화된 양상을 보인다. 먼저 입지를 보면 취락이 형성된 노태산자락의 가장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는데, 남쪽 일대로 분지된 구릉지대에 형성된 취락 전체를 한눈에 관망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지형적인 측면에서도 樹枝狀으로 갈라진 구릉지대의 중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또한 주거군 내에 포함된 주거지 수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2·3期로 편년된 주거지 수를 확인하면, 2군과 3

군의 경우 9기로 동일하며 1군은 18기의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주거군이 대체로 2~6기 사이인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많은 수의 주거지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핵 주거군 하위에는 2군과 3군으로 대표되는 대형 주거군, 4군·5군·9군의 중형 주거군, 나머지의 소형 주거군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중·대형 주거군에는 2~4기의 초대형 또는 대형 주거지가 존재하며, 소형 주거군에는 1~2기의 초대형 또는 대형 주거지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초대형 또는 대형 주거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거군 사이에는 입지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위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대형 주거군에 해당하는 2군과 3군의 경우 1군과 같이 노태산 산지의 정상부 일대의 고지대에 위치한다. 2군의 남서쪽으로 분지된 구릉에는 능선을 따라 중형 주거군인 4군과 5군

이 위치하며 그 주변으로 소형 주거군인 6군과 7군이 자리하고 있다. 대형 주거군인 2군에서 남쪽으로 분지된 구릉에는 중형 주거군인 9군이 가까이 위치하며, 구릉의 선단부로 가면서 소형 주거군인 10군과 11군이 위치한다. 대형 주거군 주변에 중형 주거군이 위치하고 구릉의 선단부에 치우쳐 소형 주거군이 형성되는 양상이 두 개의 구릉지대에서 유사하게 확인된다.

표 2. 천안 백석동 유적 주거군의 주거지 구성

주거군	초대형	대형	중형	소형	계	위계	비고
1군	3	5	7	3	18	중핵 주거군	공지
2군	·	4	3	2	9	대형 주거군	공지
3군	1	1	3	4	9	대형 주거군	공지
4군	·	1	3	2	6	중형 주거군	
5군	1	3	1	1	6	중형 주거군	
6군	·	1	1	·	2	소형 주거군	
7군	·	·	3	·	3	소형 주거군	
8군	·	·	3	·	3	소형 주거군	
9군	·	2	3	2	7	중형 주거군	공지
10군	·	2	1	1	4	소형 주거군	
11군	1	·	2	1	4	소형 주거군	
12군	·	1	·	2	3	소형 주거군	
13군	·	·	1	2	3	소형 주거군	
14군	·	1	1	·	2	소형 주거군	
15군	·	1	3	·	4	소형 주거군	
16군	1	1	1	1	3	소형 주거군	
17군	·	·	1	1	2	소형 주거군	

중핵 주거군인 1군의 경우 직접 분지된 소규모의 구릉 2개가 확인되는데 각각 소형 주거군인 12군과 13군이 위치한다. 고재미골 I·Ⅲ지역에 해당하는 구릉일대는 대부분이 녹지보존지역으로 설정되어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다만 구릉의 선단부 가까운 곳에 형성된 15군과 16군은 모두 소형 주거군에 해당되며, 다른 구릉지대의 상황과 유사한 양상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녹지보존지역에 대형 또는 중형 주거군이 존재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남서 내지 남쪽으로 분지된 각각의 구릉지대에 중소형의 주거군이 형성되어 있고, 노태산 산지의 중앙의 정상부에 백석동 취락의 중핵 주거군인 1군이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천안 백석동 유적 주거군의 위계

주거군 위계	해당 주거군 개수	주거 개수	입지	공지	초-대형 주거 개수
중핵	1(1군)	18	구릉 정상	공지	8
대형	2(2군, 3군)	9	구릉 정상	공지	2~4
중형	3(9군, 4군, 5군)	6~7	능선 중단	일부 공지 (9군)	1~4
소형	11(6~8군, 10~17군)	2~4	능선 말단	없음	0~2

4. 청동기시대 전기의 농경생산

천안 백석동취락의 중핵적 주거군으로 1군을 상정하였다. 18기라는 압도적인 주거지 숫자, 취락의 가장 고지대, 수지상으로 분지된 구릉지대의 중앙부 입지 외에도, 3기의 초대형 주거지(고II-2·3·11호)와 5기의 대형 주거지가 구릉정상의 평탄부 공지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 위상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취락의 중핵적 주거군의 성격과 중소 주거군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독립된 연구주제이며, 지금의 필자로서는 능력 밖의 일이다. 주거군들은 일상생활 전반의 생활단위였을 것은 분명할 것이다. 아마도 쌀과 같이 장기간 저장이 가능한 전략적 곡물의 재배와 수확 등에 동원되는 노동력은 취락 전체 집단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석기 중 산지가 가깝고 제작이 용이한 것은 개별 주거군, 산지가 멀고 제작이 어려운 것은 취락 전체 집단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 주거군에서는 대부토기, 마연토기를 제외한 일상의 토기제작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추정할 뿐이다. 개별 주거군은 공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생활공간을 점유하며 소규모 생산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복수의 주거군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취락을 구성하며 대규모 생산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일련의 생산과 관련된 집단 행동에 중핵적 주거군을 중심으로 전체 취락 구성원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천안 백석동 고재미골 유적에서는 다수의 탄화곡물이 확인되었는데, 재배식물로는 조, 벼, 동부속, 밀, 보리류가 확인되었다. 벼를 제외하면 畑作物에 해당하며, 벼의 경우 水稻와 陸稻 모두 고려할 수 있으나 畑作雜草의 초본류가 많이 확인되어 陸稻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고환경연구소 2009). 이 외에도 아산만지역의 당진 자개리 유적과 아산 대흥리 큰선장 유적 등에서도 탄화미가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천안 용곡동 두터골 유적에서도 이 시기 벼의 재배와 관련하여 2호, 5호, 6호 주거지의 내부 퇴적토에서 벼(*Oryza Sativa*)의 fan-shaped 규산체가 6~1,231립으로 대량 산출되기도 하였다. 식물규산체가 검출된 내부 퇴적토는 목탄 등의 다량의 유기물을 포함한 유물포함층으로, 주거지에

매립되는 시기는 해당 토층 내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주거지와 동시기의 것들인 것으로 보아 큰 시간차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택 소사동 유적(김병모 외 2008) 가-10호 주거지에서 도 137알의 탄화미가 세 장방형 주거지의 노지내부의 퇴적토에서 출토되었다.



1·2=당진 자개리유적(1) 41호 주거지, 3·4·5·6·7=아산 대흥리 유적 14호 주거지
8=천안 용곡동 두터골유적 6호 주거지의 벼(*Oryza Sativa*)의 식물규산체 모습(적색 화살표)

사진 1. 아산만지역 역삼동·흔암리유형 유적 검출 탄화미 및 벼과 식물규산체

위와 같은 점들로 보아 청동기시대 전기 아산만지역에는 벼재배가 일반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벼재배 방식에 있어 ‘발벼’ 또는 ‘논벼’였을지는 관련된 경작유구 가 확인되지 않아 불분명하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발벼에 비해 논벼가 수확과 재배에 유리하기 때문에, 재배법을 개량해 나가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수도농경으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 안정동위원소분석⁶⁾ 방법에 의한 백석동 고재미골유적에서 검출된 탄

6) 수도는 혐기적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혐기성 미생물의 작용인 탈질소의 영향을 받아 질소동위원소의 비가 옥도나 다른 발작물에 비해 높아진다. 유적에서 출토된 탄화미 및 조, 보리 등의 발작물의 안정동위원소 비를 측정하여 수도와 옥도를 식별하고자 하는 분석방법으로, 벼가 옥도라면 발작물에 가까운 수치를 보일 것이고, 반대로 수도라면 발작물보다 높은 수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庄田慎矢 외 2011: 98).

화곡물에 대한 분석결과가 주목된다. 분석결과, 조보다 벼의 질소동위원소 비가 뚜렷하게 높게 확인되어 수도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庄田愼矢 외 2011: 98).

어쨌든 청동기시대 전기에 벼농사의 존재는 확실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경작유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논농사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쉽지 않다. 천안 용곡동유적에서 확인된 벼과 식물규산체의 양으로 보아 재배벼에 의한 흔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용곡동 취락의 규모가 수전의 개발과 재배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적어도 관개시설이 필요치 않는 화전 정도의 재배는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천안 백석동유적 정도의 취락규모라면 수전의 경영도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네트워크

사회군집성과 관련하여 대면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간 두의용량의 한계에 의해서 인간집단의 인구수가 200인을 넘어서면 수직적으로 위계화되거나 집단의 분화가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한편으로는 동족혼의 유전자풀이 지닌 부정적인 영향, 즉 열성유전을 피하기 위해 인간집단은 적어도 4~500명의 구성원을 형성한 혼인네트워크를 필요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인간사회는 기본적으로 집단간의 상호관련성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족외혼을 하여 그들의 인구를 영속시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세대들 간의 상호의존성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질병·위험·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도움과 임든 노역에 대한 상호 공유 그리고 자원·기술·생활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한다(Bintliff 1999: 526~529).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농경에 기반한 취락의 사회조직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선 소규모 취락의 겨우 주변취락사회와의 관련없이 단독으로 영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취락의 경우 주변의 취락사회와의 상호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락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취락사회의 안정을 얻고 생태적·사회적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개별 취락조직의 확대를 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면 8〉은 세종시 건설부지내 가락동유형 취락분포도이다. 금강의 작은 지천을 경계로 대형 취락에 해당하는 연기 송원리와 송담리 유적이 마주하고 있다. 두 유적 외에는 동쪽의 금강 건너편에 연기 장재리 유적이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 송원리와 송담리 유적이 위치하는 각각의 구릉시대 북쪽으로는 규모가 작은 하위 취락들이 분포하고 있다. 5기 이하로 구성된 소취락을 제외하고 6~20기 정도의 중위 취락이 각각 3개씩 확인된다. 이들 중위 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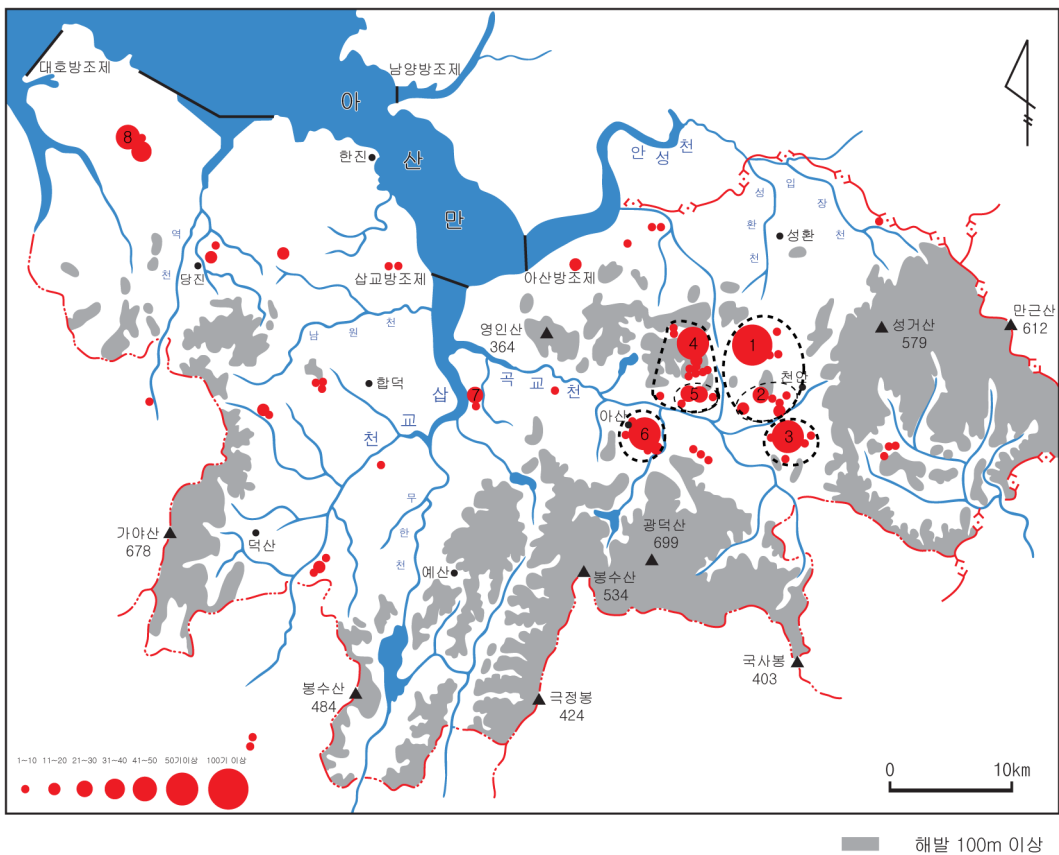
락은 일정한 영역을 확보하고 서로 중복되지 않는 공간이 존재하는데, 대체로 중심에서 반경 350m 정도에 해당한다. 그보다 상위 취락인 송원리와 송담리의 경우 900m 정도의 반경의 범위를 두고 중복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거리는 도보로 간단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한다. 모두 동시기에 존재했던 취락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쉽게 이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리이다. 또한 이들 취락군 전체는 4km 반경 안에 분포하는데, 1시간 정도면 이동 가능한 거리에 해당한다.



도면 8. 세종시 건설부지 내 가락동유형 취락의 분포(1/100,000)

1: 연기 용호리유적, 2: 연기 용로리유적(국방문화재연구원), 3: 연기 보통리유적, 4: 연기 연기리유적(75), 5: 연기 연기리유적(74), 6: 연기 연기리유적(78), 7: 연기 송담리유적(34), 8: 연기 송담리유적(30), 9: 연기 송담리유적(29-2), 10: 연기 송담리유적(29-1), 11: 연기 송담리유적(29-3), 12: 연기 송담리유적(28), 13: 공주 제천리 감나무골유적, 14: 공주 제천리유적, 15: 공주 당암리 막음골유적, 16: 공주 당암리 엄고개유적, 17: 연기 당골유적 2, 18: 공주 당암리 소골유적, 19: 연기 송원리유적, 20: 연기 대평리유적(A), 21: 연기 대평리유적(B), 22: 연기 대평리유적(C), 23: 연기 장재리유적(104), 24: 연기 장재리유적(103), 25: 연기 석상리 돌삼골유적, 26: 연기 합강리유적, 27: 연기 응암리 가마골유적(B), 28: 공주 당암리 선돌유적, 29: 연기 진의리유적, 30: 공주 당암리 가소골유적

만약 모든 취락이 동시간대에 존재했다고 가정한다면, 상호간에 어느정도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취락의 규모에 따른 위계적 관계였다고 한다면, 2개의 대형 취락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중소규모의 위성 취락이 포진되어 있는 양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당시 취락사회가 소지역 단위의 통합이 이루어진 지역공동체였는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전술했던 바와 같이 가락동유형 취락의 주거 배치는 병렬배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치는 위계적이기 보다는 수평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도면 9. 곡교천유역의 청동기시대 전기 유적 분포

1 : 천안 백석동 유적 및 두정동 유적, 업성동 유적, 2 : 천안 불당동 유적 및 천안 쌍용동 유적, 봉룡동 유적, 용곡동 눈돌·두터골 유적, 아산 장재리 유적, 3 : 천안 신방동 유적 및 청당동 유적, 두남리 유적, 4 : 아산 명암리 유적 (3-5-6-9-11-12지점) 및 유적, 용두리 산골 유적, 5 : 아산 용두리 진터 유적 및 명암리 밖지므레 유적, 용머리 유적, 갈산리 유적, 6 : 아산 용화동 가재골 유적, 풍기동, 풍기동 앞골 유적 및 풍기동 밤줄길 유적 1, 풍기동 밤줄길 유적 2, 7 : 아산 대흥리 큰선장 유적, 8 : 당진 성산리 유적

한편 곡고천유적역의 역삼동·혼암리유형의 경우 전기 후엽이 되면 천안 백석동유적과 같은 대규모 취락이 소지역 단위로 형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도면 9>는 곡고천 유적의 취락분포도이다. 대형 취락에 해당하는 천안 백석동 유적, 신방동유적, 아산 명암리유적, 용화동·풍기동유적 등은 곡고천의 지류인 소하천을 사이에 두고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기 취락사회는 거점 취락을 중심으로 소규모 취락과의 결합과 자체적 성장을 통해 확대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청동기시대 전기 단계 대형취락의 거리 분포에 있어서 어느정도 사회적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 사회적 요인이란 자원과 관련된 경제적인 이유가 주된 요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규모 취락사회는 도시적인 체계를 갖춘 취락이 아닌 이상, 주변지역의 한정된 자원의 부양능력(한정된 토지생산성) 이상으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집단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분화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전기 후엽과 선송국리 단계는 백석동 유적 등에서 농경집약화 과정으로 인해서 인구의 집중이 있었고, 해체과정에서 인구분산이 일어났던 시기에 해당한다는 연구결과(김장석 2003: 48~51)와도 상통한다고 생각된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구조와 변화과정을 통해 당시 취락사회의 성장과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기의 이른 단계에 소규모 취락단위로 이주해온 집단은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치 않는 화전과 같은 농경방식으로 생계를 꾸려나갔던 것으로 보았다. 이후 안정적으로 취락을 유지하고 자원예측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경에 대한 의존도가 강화되고, 그에 따라 취락의 규모가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산만지역의 전기 유적에서 확인되는 탄화미 등의 자료로 보아, 당시에 벼재배는 일반적 현상으로 생각된다. 천안 백석동취락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수전의 경영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보았다.

당시의 소규모 취락의 경우 주변취락사회와의 관련없이 단독으로 영속하기 어려웠 것이며, 주변의 취락사회와의 상호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락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취락사회의 안정을 얻고 생태적·사회적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개별 취락조직의 확대를 피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참고문헌

- 권학수, 1993, 「역사시대 마을고고학의 성과와 과제」, 『마을의 고고학』, 제1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 고환경연구소, 2009, 「천안 백석동 유적의 식물고고학적 조사(씨앗동정)」, 『천안 백석동 고재미골 유적-자연과학분석』, (재)충청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 조사보고 제100집.
- 김백범, 2008, 『아산 대흥리 큰선장 유적』, (재)충청문화재연구원.
- 김병모 외, 2008, 『평택 소사동 유적』, (재)고려문화재연구원.
- 김장석, 2003, 「충청지역 송국리유형 형성과정」, 『한국고고학보』 51.
- 김현식, 2011,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공간구조」, 『취락 복원을 위한 다양한 접근』, 제4회 토기·취락분과 연합 워크샵 발표요지문, 한국청동기학회.
- 나건주, 2010, 「아산만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구조와 변천」, 『한국청동기학보』 7.
- _____, 2013a, 「세종시의 청동기시대」, 『세종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제27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 _____, 2013b,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성장과 송국리유형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고고학과 박사학위논문.
- 나건주강병권, 2003, 『아산 명암리 유적』, (재)충청문화재연구원.
- 나건주박현경, 2009, 『아산 용화동 가재골 유적』, (재)충청문화재연구원.
- 나건주배상훈안성태, 2011, 「천안 백석동 청동기시대 취락의 편년과 구조」, 『야외고고학』 10.
- 나건주윤정현·남승훈, 2011, 『아산 명암리 유적(12지점)』, (재)충청문화재연구원.
- 나건주최하영, 2008, 『천안 용곡동 두터골 유적』, (재)충청문화재연구원.
- 류기정양미옥, 2001, 『천안 두정동유적(C·D지구)』, (재)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 박순발, 2002, 「촌락의 형성과 발전」, 『강좌 한국고대사』 7,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배상훈·최지연·이선아·한은주, 2011, 「아산 명암리 굽터골 유적」,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제24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호서고고학회.
- 石井英也(정 암 외 역), 2001,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지역과 경관』, 선학사.
- 안성태, 2008, 『아산 장재리 안강골 유적 I』, (재)충청문화재연구원.
- 안재호, 1996, 「무문토기시대 취락의 변천」, 『석오윤용진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석오윤용진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간행위원회.
- 오규진, 2005, 『서산 갈산리 무리치 유적』, (재)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 오규진·허의행,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 복원 및 실험-전기 주거지를 중심으로」, 『야외고고학』 창간호.
- 이강승·박순발, 1995, 『둔산』, 충남대학교박물관.
- 이홍중·허의행·조보람·오원철a, 2010, 『연기 송원리 유적』,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 _____, b, 2010, 『연기 송담리 유적』,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 임상택, 2006, 『한국 중서부지역 빗살무늬토기문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연기 보통리 유적』 .

최경숙, 2008, 『아산 장재리 안강골 유적 II』 , (재)충청문화재연구원.

추연식, 1997, 『고고학 이론과 방법론』 , 학연문화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공주 제천리유적』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9, 『아산 용두리 산골유적』 .

庄田愼矢・米田穰・那須浩郎・羅建柱・安承模, 2011, 「安定同位體分析から考える先史農耕における陸稻と水稻」, 『國際심포지움 동아시아 植物考古學 研究의 現況과 課題』,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문화유산연구소·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熊本大學 文學部.

John Bintliff, 1999, Settlement and territory, Companion Encyclopedia of Archaeology Vol.1 Edited by Graeme Baker, Routledge.

송국리형취락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의 생산과 소비

이 종 철
전북대학교박물관

〈 목 차 〉

I. 머리말	III. 송국리형주거와 생산·소비
II. 송국리형주거의 주요시설 검토	1. 생산
1. 타원형구덩이	2. 소비
2. 중심기둥	IV. 송국리형취락과 생산·소비
3. 유인수로	1. 생산
4. 내부시설과 유형분류 검토	2. 소비
	V. 맺음말

I. 머리말

청동기시대의 생산과 소비는 일차적으로 자료의 부족과 해석의 한계로 말미암아 고대사회의 그것과 비교할 때 공허한 결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7회 청동기학회 학술대회는 유물과 유구를 통해 청동기시대 전기와 후기(또는 중기) 단계의 생산과 소비활동을 검토해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자리라고 생각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토기와 석기를 중심으로 하는 유물과, 취락과 생산지를 바탕으로 하는 유구로 대별하여 진행된다. 본 글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유형이자 편년단위인 송국리형문화를 대상으로 하며, 이 단계의 취락과 유구를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를 살펴보고자 한다.

송국리형문화는 1974년 부여 송국리 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새로운 문화유형으로서, 우리나라 고고학 편년상 청동기시대 중기(또는 후기)의 문화단계이다. 송국리형문화는 송국리형주거지, 송국리형가마, 송국리형토기, 송국리형옹관, 플라스크형 적색마연토기, 삼각형석도, 소형 마제석검, 유구석부, 소형 숫돌 등의 물질문화를 표지로 하는 문화유형으로 정의된다¹⁾. 이 외에도 송국리 유적에서 출토된 요령식동검은 송국리형문화와 요령식동검문

회와의 관련성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석관묘와 석개토광묘는 지식묘와 함께 송국리형문화의 묘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취락에서의 생산과 소비는 넓은 의미에서 논, 밭과 같은 경작지가 마련된 생산영역과 공동소비를 하는 광장에서 의례 또는 취사행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는 취락을 구성하는 개별 주거 내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단위영역을 살펴볼 수 있는데, 주거 내 노지는 소비영역, 작업장은 생산영역이 될 것이다. 이렇듯 광의 영역과 협의 영역에서의 생산과 소비는 개별 주거와 취락 내에서의 경제체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필자는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취락을 통해 청동기시대 후기(또는 중기)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다채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물론 실증적 검증이나 논리 전개에 한계와 비약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유적에 남아 있는 고고학자료가 100%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나, 직관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는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하는 기회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혹은 ‘문제가 있는’ 논지전개로 평가되기보다는 새롭고 체계적인 또 다른 해석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II. 송국리형주거의 주요시설 검토

그 동안 조사에서 밝혀진 송국리형주거는 다음과 같은 속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①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의 원형계와 방형, 장방형, 말각방형의 방형계로 구분된다.
- ② 내부시설은 타원형구덩이, 중심기둥(주공), 유인수로, 벽구, 내벽기둥(주공), 외벽기둥(주공), 4주, 저장구덩이, 출입구로 구분된다.
- ③ 타원형구덩이와 중심기둥은 송국리형주거에서 가장 상징성이 높은 요소로 볼 수 있다.
- ④ 타원형구덩이와 중심기둥으로 조합되는 기본 구조, 4주가 설치되는 4주 구조, 복수의 타원형구덩이·4주·보강주로 조합되는 복합 구조로 세분할 수 있다.
- ⑤ 기본 구조와 4주 구조에서는 개축이, 복합 구조에서는 증축이 확인된다.

1) 이견무, 2006, 『松菊里類型에 대하여』, 『금강, 송국리형문화의 형성과 발전』, 호서·호남고고학회합동 학술대회, pp.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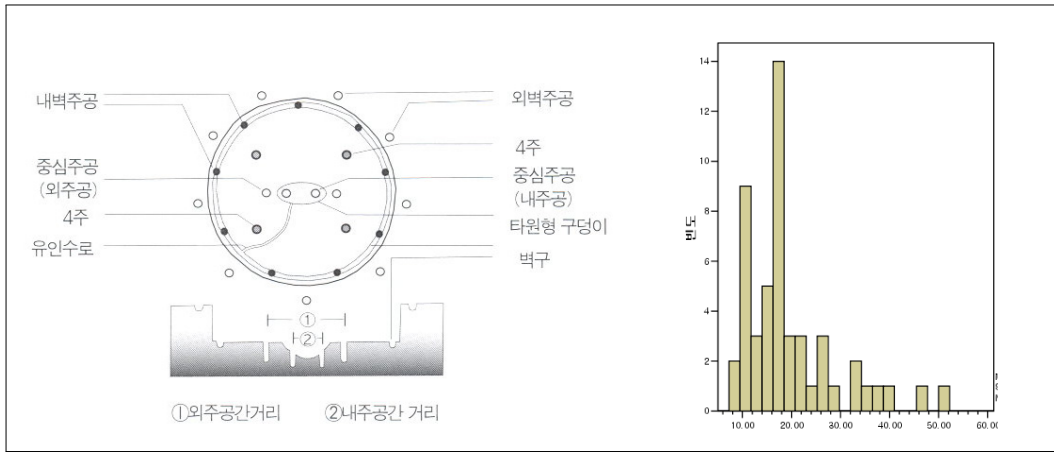


그림 1. 송국리형주거 내부시설 세부 명칭 및 면적 분포 일례

1. 타원형구덩이

송국리형주거에서 타원형구덩이는 타원형, 장타원형, 원형의 모습을 이루며, 고유한 전통성·보편성·계승성·기능성을 갖는다. 그 동안 타원형구덩이에 대해서는 작업공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었지만, 필자는 예전과 같이 보관구덩이로 해석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다량의 석재와 석기가 구덩이 내부에 존재한다.
- ② 외반구연호와 심발 같은 완형의 토기가 내부에 보관되어 있다.
- ③ 일반적인 크기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건물의 규모, 중심기둥과의 조합에서 길어지는 경향을 갖는다.
- ④ 주거 내부로 유입되는 빗물 등을 유인수로 통해 집수하는 기능을 수반한다.
- ⑤ 소수에 불과하지만, 타원형구덩이는 노지로 변용되어 불씨를 보관하는 기능을 한다.
- ⑥ 거의 대부분의 타원형구덩이는 비어 있는 채로 조사된다.
- ⑦ 개별 주거 내에서 생산과 소비단위의 표상이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타원형구덩이는 온전한 현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과정을 함축하고 있어 조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 ①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다가 주민의 이거로 인해 이주 전까지 남겨진 마지막 생활 흔적
- ② 이거 과정에서 생활용품이 이미 선택적으로 걸러진 이후 남겨진 흔적
- ③ 이거 후 교란과 2차 훼손(흔입)에 의한 흔적

2. 중심기둥

송국리형주거에서 중심기둥은 일반적으로 2개로 구성되며, 타원형구덩이와의 조합을 통해 기둥간 거리가 결정된다. 중심기둥은 타원형구덩이와 같이 고유한 전통성·보편성·계승성·기능성을 갖는다. 그 동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중심기둥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바닥 중앙에 2개의 중심기둥이 자리하며, 도리를 지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② 일반적으로 타원형구덩이 안과 밖의 양측에 자리하며, 타원형구덩이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 ③ 많은 수는 아니지만 타원형구덩이 내부 양측(내주공)과 외부 양측(외주공)에 일렬로 4개의 중심기둥이 자리하기도 한다. 이는 도리를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④ 내주공식과 외주공식이 완전한 독립성을 갖추는 과정에서 2개의 내주공(안 기둥)과 1개의 외주공(바깥 기둥) 또는 1개의 내주공과 2개의 외주공이 설치되기도 한다.
- ⑤ 개별 주거 내에서 생산과 소비단위의 표상이다.

3. 유인수로

유인수로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빗물 등을 바닥의 중앙에 위치하는 타원형구덩이로 유인하는 기능을 한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인수로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일반적으로 벽면과 타원형구덩이를 연결한다.
- ② 대부분 벽구와 함께 설치된다.
- ③ 주거 바닥을 4분, 3분, 2분하여 부차적으로 공간을 분할하기도 한다.
- ④ 평지를 제외하면 경사면에서는 대부분 높은 쪽에 벽구와 함께 유인수로가 마련된다.

4. 내부시설과 유형분류 검토

송국리형주거는 건축적 측면에서 타원형구덩이와 중심기둥의 합체, 분리, 소멸(생략), 그리고 복합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축조되고 폐기되어 왔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유형분류가 시도되어 왔는데, 필자는 [그림1~3]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합체는 건물의 상부구조를 지탱하는 중심기둥이 타원형구덩이 내부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A형)에서 연유한다.

분리는 중심기둥이 타원형구덩이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위치를 점하는 것(C형)서 연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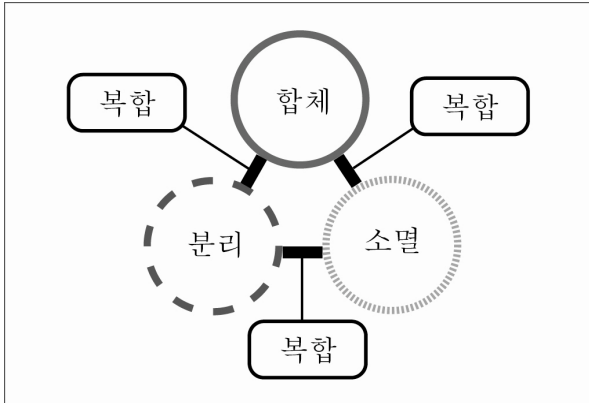


그림 2. 송국리형주거 축조 기본틀(이종철 2006 수정)

분류	A	B	C	D	E
①					
②					

그림 3. 송국리형주거 유형분류(이종철 2000 수정)

소멸(또는 생략)은 필수요소로 기능하던 중심기둥과 타원형구덩이 중 한 요소가 소멸(생략)하면서 상부구조의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바닥면 활용에 변화를 주는 것(D·E형)에서 연유한다.

복합은 2개 이상의 요소가 서로 조합하여 복합적인 구조를 이루는 것(복합구조)에서 연유한다.

[그림3]의 주거 분류는 과거 필자의 분류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평면 형태는 방형계와 원형계의 중립성을 위하여 말각방형으로 표현하였다. 또 타원형구덩이가 사라지고 중심기둥만을 갖는 주거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D형과 E형은 소멸(또는 생략)의 범주에 속하는 유형으로 하나의 단위로 간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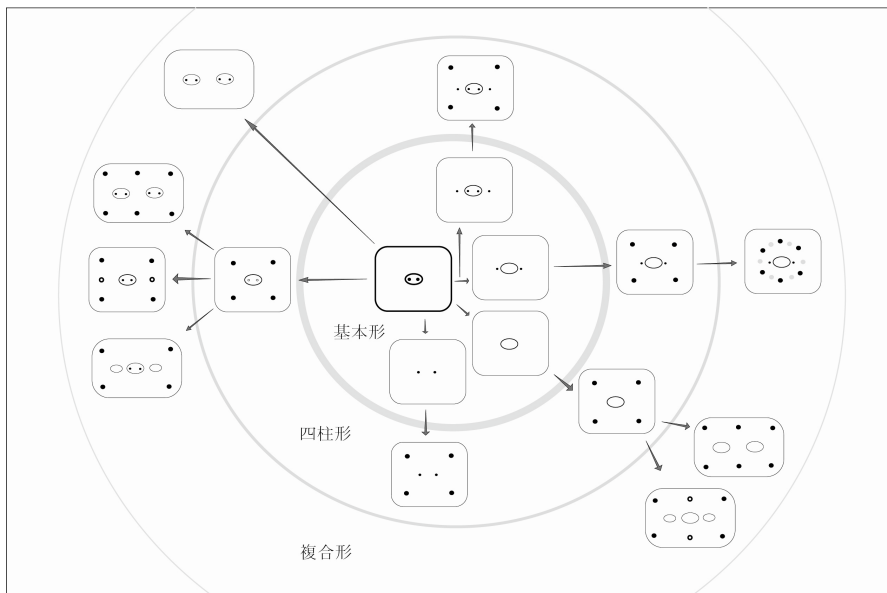


그림 4. 송국리형주거의 구조 변화(이종철 2006 수정)

송국리형주거는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주거의 구조는 기본 구조, 4주 구조, 복합 구조로 구분된다. 기본 구조는 A형~E형으로 이루어진 주거로, 송국리형주거의 기본 단위를 이룬다. 특히 이들 5가지 유형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구조는 A형이라고 할 수 있다. 4주 구조는 기본 구조에 4개의 기둥이 설치되는 주거로, 규모의 확대와 건축기술의 발전을 보여준다. 복합 구조는 2개 이상의 요소가 서로 조합을 이루어 건물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복수의 생산과 소비단위를 이루는 주거라고 할 수 있다.

Ⅲ. 송국리형주거와 생산·소비

1. 생산

송국리형주거 내부에 존재하는 생산 영역은 타원형구덩이가 대표적인 것이다. 생산이라는 개념 속에서 타원형구덩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 ① 지석, 연석, 미완성석기, 다양한 석기제품 등이 일부 타원형구덩이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어 석기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② 모든 타원형구덩이에서 석기 제작과 관련된 행위의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생산과 관련된 절대적 요소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송국리형주거지를 조사하다 보면 바닥면에 집석과 같은 다량의 석재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대부분 10~20cm 크기의 돌무지 속에는 무문토기편과 석기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 ① 송국리형주거가 석기제작을 위한 작업공간으로 활용되었다면 석기 제작용 예비 석재라는 추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석재용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것들이 더 많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 ② 풍수해로 인한 지붕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붕 위에 올려 놓는 보강석(?)으로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크기가 작은 것들이 많고, 바닥 전체로 낙석된 것이 아니라 한 쪽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 ③ 주거의 폐기 이후에 쌓여진 어떤 행위의 결과물로 추정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집의 폐기를 취락민들에게 알리는 모종의 폐기 의례, 즉 죽은 자의 장송의례 시 유물의

파쇄행위가 무덤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2. 소비

송국리형주거 내에서 소비와 관련되는 부분은 노지로 변용된 타원형구덩이, 바닥 중심부에서 어느 정도 치우쳐 형성되는 소토 영역, 그리고 저장공 등으로 볼 수 있다. 노지화된 타원형구덩이와 소토 영역은 모두 불과 관련되는 장소로서 화기를 활용한 소비 영역으로 추정되며, 저장공은 소비를 위한 저장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1) 노지화된 타원형구덩이

노지로 변용되는 타원형구덩이는 일반적으로 D형 주거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A·B·C형 주거에서 중심기둥이 소멸 또는 제거되는 주거 형태이다. 이 주거는 중심기둥이 사라지면서 전통적으로 설치되던 타원형구덩이가 노지로 변용되는 사례인데, 송국리형주거 전체비율로 볼 때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형태의 타원형구덩이는 다음과 같은 소비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① 타원형의 오목한 토광형 노지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 ② 오랜 시간 동안 화기를 활용한 행위가 이루어졌다.
- ③ 노지를 중심으로 주거민은 하나의 소비 단위(집단)를 이루며, 동일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가족)을 갖는다.
- ④ 주거의 평면이 방형이든 원형이든 중앙부의 노지가 구심점이 되어 주거민의 동선에 영향을 준다.

2) 주거면의 소토부

취락 내에서는 각각의 주거유형이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 ① A·B·C형 주거에서 볼 수 있는 타원형구덩이는 소비영역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석기를 생산해내는 장소이자 일상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하던 곳으로 볼 때 생산과 보관을 위한 기본 장소로 볼 수 있겠다.
- ② 그럼 이들의 소비 영역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바닥 한 쪽에 마련된 불맞은 흔적(소토)은 노지와도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있겠다²⁾. 타원형구덩이와 중심기둥이 조합된

2) 사례 : 서천 봉선리 1호, 진안 여의곡 B-3호 등 다수

주거에서 적지 않게 확인된다는 점에서 일시적 혹은 일정한 소비영역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이 독립적인 영역은 바닥 전체를 불다짐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형성된 것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 ③ 이러한 소토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절의 변화와 기온차에 의한 화기 사용 및 화식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노지나 화로³⁾는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내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을 굳이 내부에서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지의 원주민들 모습처럼) 큰 화력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조리는 주거 밖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저장공

소비와 관련하여 저장공은 부차적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소비용 자재를 어디에, 어떤 식으로 보관할 것인가는 주거민의 생계와 안정을 보장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저장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 ① 중앙부에 존재하는 중심기둥과 타원형구덩이를 피해 벽가에 3~4개 정도의 구덩이를 마련한다 : 청양 분향리, 서천 오석리, 익산 부평
- ② 저장공은 모든 유적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 ③ 역으로 소수 집단에서는 저장을 위해 구덩이를 팠다면 다른 대부분의 집단에서는 저장공과 같은 성격의 다른 시설, 즉 굴립주건물과 같은 형태의 저장용 창고나 주거지 근처에서 함께 조사되는 수혈유구를 이러한 기능으로 활용하였다고 추정된다.
- ④ 저장공이 발견되는 주거지 가운데 타원형구덩이나 중심기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본디 저장시설로 건물을 지었거나 저장공을 보유한 주거지였다가 전용저장 시설로 전환되었을 가능성도 있겠다 : 부안 장산리, 전주 효자5지구

4) 유인수로의 공간 분할

이들 외에 소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지라도 소비에 따른 주거 내부에서의 공간적 분할이 있을 수 있겠다. 즉, 연장자와 연소자의 공간, 남녀의 공간, 祖-父-子-孫의 공간 등 의도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한정된 공간을 나눌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거 내부에 어떤 실마리가 존재한다면 참고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적합한 시설이 유인수로라고 판단된다.

3) 서천 봉선리3-III-4호 주거지 타원형구덩이 내부에서 기고 30cm 크기의 송국리형토기가 직치된 상태로 출토되었고, 돌이 옆면에 돌려져 있는 형태를 하고 있어 화로로 추정되지만 분명하지 않다.

유인수로는 바닥으로 흘러드는 빗물 등을 중앙으로 모아주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주거 내부공간을 분할해야만 하는 인식이 존재했다면, 세대에서 공유되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출입구 위치와도 연계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방사상으로 구획된 주거 공간은 암묵적으로 가족 내 위계 혹은 공간 사용을 반영하는 근거 요소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⁴⁾ 물론 송국리형주거의 특성이 가족 분화형 주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거 내에서의 엄격한 공간 사용체제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최소한의 기능성만을 열어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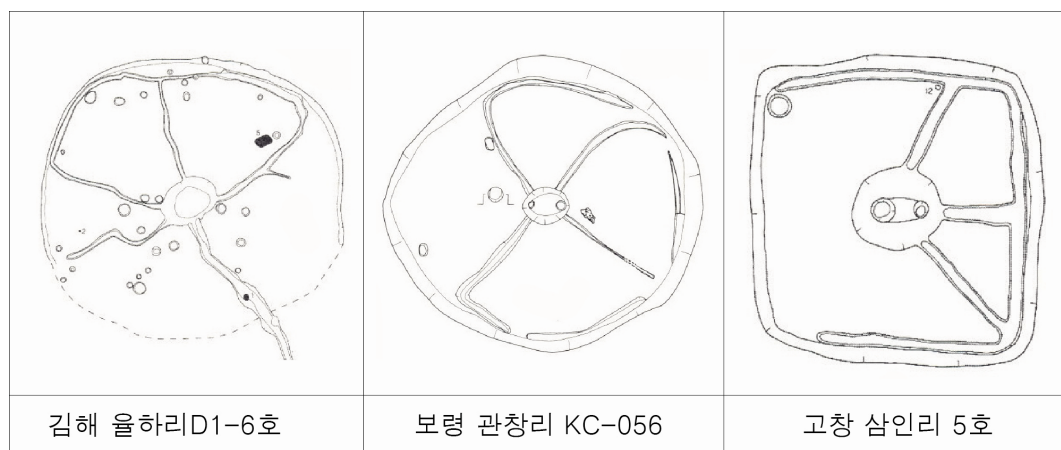


그림 5. 송국리형주거에 시설된 유인수로

IV. 송국리형취락과 생산·소비

1. 생산

생산은 인간의 노동을 자연에 가해서 그것을 변형시키는 과정으로, 생산에는 작업도구·기술·자원과 같은 물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존재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동생산물은 사회적 연계망을 통해 유통되며 집단에 의해 또는 집단 내에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 받게 된다⁵⁾.

4) 광주 산정19호, 영광 군동 B-5호, 해남 분토리 8호 등

5) 로저키징 著·전경수 譯, 1990, 『現代文化人類學』, 현음사, p.232.

송국리형취락⁶⁾은 논이나 밭, 석도, 탄화곡물, 볏씨자국 토기 등을 통하여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송국리형문화 단계에는 취락의 영역 구분이 체계화되면서 주거영역, 매장영역, 생산영역이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다.

진안 여의곡 취락은 송국리형주거가 분포하는 구릉의 주거영역, 밭으로 경작된 충적지의 생산영역, 동일 충적지에 조성된 지석묘군인 매장영역이 정연하게 구분되어 형성된 호남 동부 산악지대의 거점취락으로 평가된다. 특히 방형과 원형으로 이루어진 지석묘군의 위계체제와 사회조직⁷⁾, 지석묘 축조를 위한 시스템과 장송의례⁸⁾, 그리고 3천여 평이 넘는 전작지에서의 생산력은 청동기시대 복합사회로서의 여의곡 취락을 이해하는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진주 대평리 일원의 취락, 논산 마전 취락 등도 진안 여의곡 취락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장흥 신평과 갈두 취락은 생산영역인 경작지가 확인되지 않아 최소한 주거영역과 매장영역으로 구성된 취락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송국리형문화 단계에는 생산영역으로서의 경작지가 생계체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잠정적 존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취락 내에서 경제체제의 운용과 관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장흥 신평과 갈두 유적에서 중형 주거의 대두⁹⁾, 중서부 지역에서의 주거 면적에 따른 위계체제와 취락의 유형¹⁰⁾, 주거지의 크기와 농경의 집약화 정도¹¹⁾ 등으로 볼 때 주거 규모에 따른 구성원의 성격과 생산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가족 형태로 분화된 송국리형주거를 통해 송국리형문화 단계는 소집단적 혹은 노동 집약적 생계체제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었지 않았나 추정된다.

6) 필자는 송국리형취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좀 더 정치한 개념으로 구축해갈 것이다.

송국리형취락은 3동 이상의 송국리형주거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중기 단계의 취락으로서 송국리형문화를 대표한다. 방형과 원형의 평면형태만이 아닌 타원형구덩이와 중심기둥으로 조합되는 독특한 건축기술로 이루어진 주거군은 취락 내에서 환상열이나 중횡열로 배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3~5동의 주거가 하나의 군을 이루면서 다른 주거군과 집합체를 이룬다. 이 취락은 주거영역, 생산영역, 매장영역 등 공간의 영역화를 공고히 했으며, 취락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거점취락, 특수취락, 일반취락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7) 金承玉, 2004, 「龍潭댐 無文土器時代 文化的 社會組織과 變遷過程」, 『湖南考古學報』 19, 湖南考古學會.

8) 李宗哲, 2003, 「支石墓 上石 運搬에 대한 試論」, 『韓國考古學報』 50輯, 韓國考古學會.

9) 이종철, 2012, 「탐진강 유역 송국리형주거의 특징과 편년」, 『湖南考古學會』 42號.

10) 安在皓, 2004, 「中西部地域 無文土器時代 中期聚落의 一樣相」, 『韓國上古史學報』 第43號.

11) 高일홍, 2010, 「청동기시대 전기의 농경방식 재조명」, 『韓國上古史學報』 第67號, p.41.

1) 경작지

송국리형취락 내에서의 생산은 논과 밭이 가장 대표적이며, 이러한 농경문화를 배경으로 한 사회라는 점에서 생산경제체제의 비중을 살필 수 있다.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경작지는 논과 밭으로 구분되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¹²⁾.

① 논

- 입지 : 구릉 사면 말단부, 곡간평지(개석곡저), 충적지의 배후습지
- 형태 : 계단식, 소구획식
- 유적 : 울산 옥현, 논산 마전, 부여 구봉리, 보령 관창리 등

② 밭

- 입지 : 구릉정상부, 곡간평지(개석곡저), 충적지의 자연제방
- 형태 : 이랑식, 소구획식, 소형수혈식
- 유적 : 진안 여의곡, 진주 대평리, 진주 평거3·4지구, 밀양 살내, 마산 진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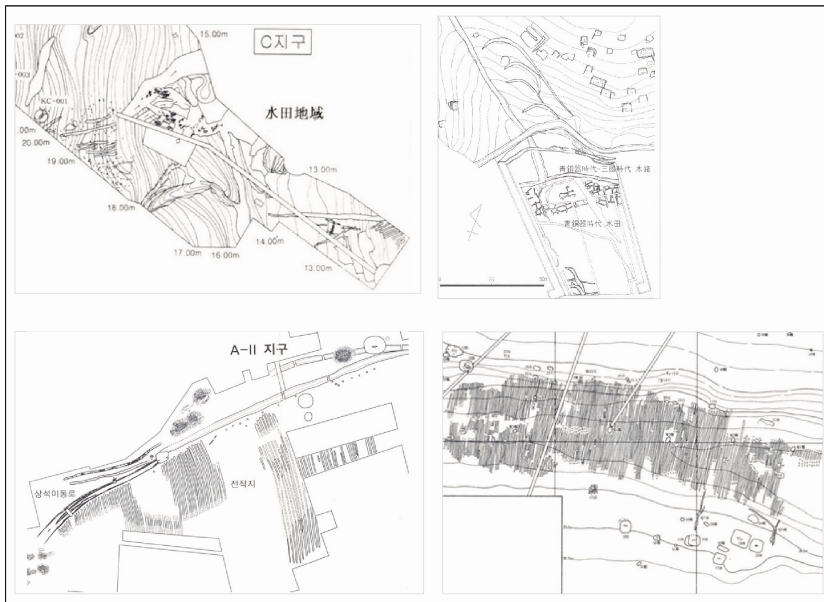


그림 6.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논과 밭(논산 마전·울산 옥현·진안 여의곡·진주 대평리 옥방2,3지구)

경작지의 존재는 취락 구성원으로 하여금 다양한 농경도구의 제작과 잉여생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창고 등)을 마련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다양한 지형과 지질, 수확

12) 윤호필, 2012, 「경작유구를 통해 본 경지이용방식의 변천 연구」, 『농업의 고고학』, 제36회 한국 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p.54.

하고자 하는 곡물의 성격과 경작 방식 등은 목제·석제 농경구의 다양한 생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특히 논과 밭의 규모는 취락 구성원의 노동형태와 생산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본다.

논은 계단식이나 구획에 의해 형성된 일정 규모의 형태인 반면, 밭은 소구획된 것도 존재하지만 이랑과 고랑으로 이루어진 대단위 면적의 것이 다수 조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방식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① 집약적 공동경작에 의한 것인가?

: 집약적 공동생산→공동분배→개별소비

② 보여지는 것은 공동의 결과물이나 분업이나 개별소유에 따른 개별경작에 의한 것인가?

: 공동영역(경작지) 내에서의 집약적 개별생산→개별수확→개별소비

2) 가마[窯址] : 토기 생산

아직까지 일반화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송국리 유적에서 조사된 가마는 송국리유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마는 토기를 굽는 주요 시설로서 생산과 유통 관계를 파악하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소결화된 토양과 다량의 토기편 등이 존재한다고 해서 토기를 생산했던 가마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①소결상태나 표면상태가 불량한 토기가 많거나 유구의 바닥과 벽이 소결되었고 매몰토에 다량의 숯과 소점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¹³⁾. 또한 ② 소성과열토기편을 비롯한 토기소성 실패품과 토기소성잔재가 확인¹⁴⁾되어야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토기 가마는 부여 송국리, 논산 원북리, 서천 오석리, 보령 관창리 등 금강유역 일원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취락에는 몇 기에 불과한 가마가 동시 혹은 시기적으로 축조되는 데 반해, 보령 관창리B 유적에서는 대취락에 걸맞은 대단위 가마군이 확인된다. 가마는 서로 중복되어 시기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 취락 내에서 집단적으로 밀집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田崎 博之의 견해처럼 토기 생산 전용 영역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특히 관창리 B유적은 모든 취락에서 동형의 외반구연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대량생산과 취락 내 분배체계를 상정할 수 있겠다. 이런 견지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① 토기 생산영역은 주거 및 매장영역과 구별되는 독립된 장소에 마련된다.

② 취락 내 주거군과 주거군 사이의 공터에 집단적으로 조성된다.

13) 金賢, 2002, 「大坪 無文土器 窯에 대한 一檢討」, 『晉州 大坪 玉房 1·9地區 無文土器 聚落』, 慶南考古學研究所.

14) 田崎 博之, 2005, 「燒成失敗品을 통해 본 無文土器의 生産形態」, 『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 ③ 가마군은 주거군이 발달한 능선 하쪽에 위치하며, 바로 동쪽편에 위치하는 후대의 사개들 저수지 수원이 관창리 토기 생산을 활성화했던 원천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④ 가마의 위치로 볼 때 토기 제작 집단은 전문 장인의 자격으로서 가마군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축조된 송국리형주거에서 생활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동편의 주거군은 능선 말단부이고 가마군으로 인해 취락의 주요 주거군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토기 제작 집단의 주거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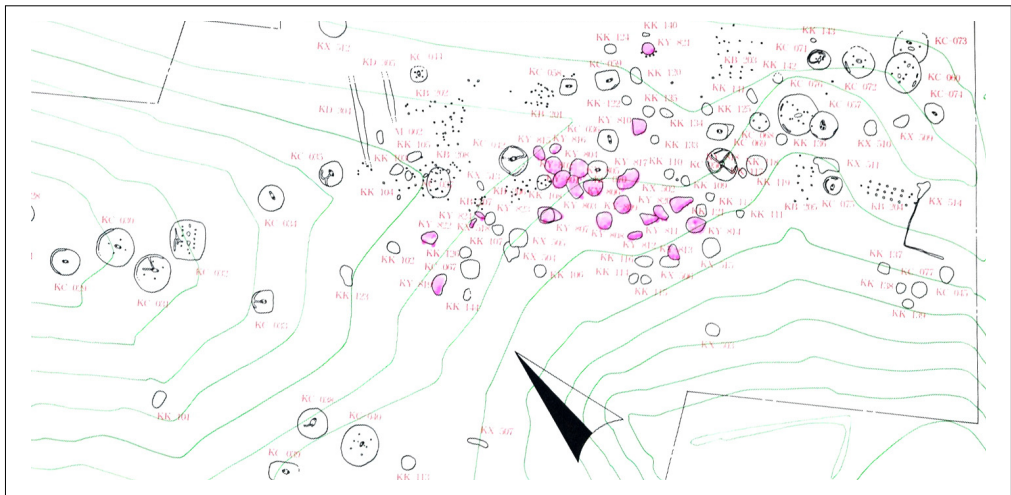


그림 7. 송국리형취락 내 토기 생산영역(보령 관창리B)

3) 석기 제작 터 : 석기 생산

최근까지 타원형구덩이=작업공, 송국리형주거=작업장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주민이 석기 제작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혹은 전문 장인집단이었다는 결론이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송국리형주거는 타원형구덩이가 설치되어 있고, 타원형구덩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의 결과는 석기 제작과 귀결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결론이 타당하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

- ① 대부분의 송국리형주거에서 석기를 제작해서 공급한다면 모든 송국리형취락은 석기 공급처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될 수 있는 수요처는 어디인가?
- ② 타원형구덩이가 없고 중심기둥만 있는 주거(E형)가 수요자가 되는가? 아니면 송국리형주거가 아닌 다른 주거로 구성된 취락(예를 들면 순수 방형·원형 주거, 송국리형문화 단계에 해당되는 늦은 시기의 전기 주거)이 수요자인가?
- ③ 타원형구덩이가 존재하는 송국리형 취락이 인근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면 이들은 수요자를 찾아나서야 하는가? 또 동일한 공급자로서 경쟁해야 하는가?

- ④ 석기만을 생산해야 하는 주민들이라면 농사는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석기 생산과 농사를 병행할 것인가? 석기제작과 농사에 드는 시간과 노동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타원형구덩이의 기능이 석기제작용 구덩이(작업공)로만 해석되는 것은 '송국리형취락 구성원 = 석기제작 집단'이라는 등식으로 확대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타원형구덩이 내부와 주변의 정황이 면밀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미완성석기, 연석, 지석, 다량의 석재, 돌가루 등이 존재한다고 하여 석기제작 작업공으로 본다는 것은 몇 가지 검증 절차가 빠져 있는 것과 같다. 이들은 단지 '놓여 있는 것일 뿐'이며, 쉽지는 않겠지만 '놓여 있기까지의 정황'이 현장에서 포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의 대표적인 사례는 진주 대평리에서 확인된 전문 옥 가공 집단의 주거일 것이다.

진주 대평리 유적은 송국리형주거의 특수적 성격, 즉 구조적인 특성이 아니라 주거의 기능과 생산적 성격을 보여준다. 이 유적에서는 석기 제작과 관련된 증거들도 존재하지만 옥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과 분업 체제가 파악된다¹⁵⁾. 이러한 측면에서 송국리형취락은 대부분 일상적인 생활 주거로 볼 수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석기 제작 등 전문적인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주거가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송국리형주거의 타원형구덩이가 갖는 기능의 중요성이라기보다는 취락 내에서 생산과 분업화, 유통과 소비의 체제가 존재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구성원 : 인구

취락의 구성요소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일 것이다. 일차적인 구성단위는 생산과 소비단위로서의 가내집단인 '가족' 이 된다. 가족은 혼인을 통해 형성된 부부와 부부가 낳은 아이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혼인과정 혹은 혼인체제는 취락의 구성과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취락 규모와 위계체제의 관련성에 대한 John Bintliff의 연구에 따르면, 집단의 규모가 대략 25명 가량일 때 인간 공동체가 자연환경 속에서 성공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약 150~200명 가량일 때 내적 위계분화가 없는 상태로 원활한 사회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며, 이 이상으로 단일 집단의 규모가 확대되면 내적 위계가 형성되거나 집단의 분화가 일어난다고 한다¹⁶⁾.

송국리형주거는 전기 단계의 주거와 달리 핵가족화된 가족구성원의 주거로 이해되고 있기

15) 쇼다 신야, 2009, 『청동기시대의 생산활동과 사회』, 학연문화사, pp.197~199.

16) 朴淳發, 2003, 『村落의 形成과 發展』, 『강좌 한국고대사』, 제7권 촌락과 도시, (재)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pp.25~26 재인용.

때문에 한 주거에는 대략 2~5명 정도가 생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 세대를 중심으로 건물이 조성된다고 보면 큰 무리는 아닐 것이며, 대부분 10여 기 내외의 주거로 구성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대략 50여 명 내외의 구성원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인구 문제는 아직까지 활성화된 분야는 아니다. 충청 지역의 송국리형문화 형성과 관련하여 전기 단계의 세장방형 주거민들의 인구 폭발이 동인이라는 연구¹⁷⁾, 금강 중·하류역에 입지했던 일부 송국리형취락에서 빈부차와 위계를 살피는 연구¹⁸⁾, 그리고 영남 지역의 청동기시대 인구변화에 대한 연구¹⁹⁾ 등이 제시된 바 있다.

물질적 생산이 증가되면 자연스럽게 인적 생산(혼인과 인구증가)도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비록 적극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송국리형문화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적 생산을 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한 구릉 내에 존재하는 집단은 핵가족을 단위로 하는 세대공동체(확대가족, 결합가족 등)이면서 친족이 중추적인 비율을 점했을 가능성이 높다.

: 핵가족(가구) - 확대가족 · 결합가족(세대공동체) - 친족+외래구성원(취락공동체)

- ② 하나의 취락은 내혼율보다는 외혼율에 의해 구성원을 증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분업화에 의한 계급(계층)의 활성화 및 조직 확립의 측면이라면 내혼율이 대세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송국리형문화 단계를 확고한 계급(계층)화 사회로 설정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된다. 민족지자료 등을 통해 볼 때 족외혼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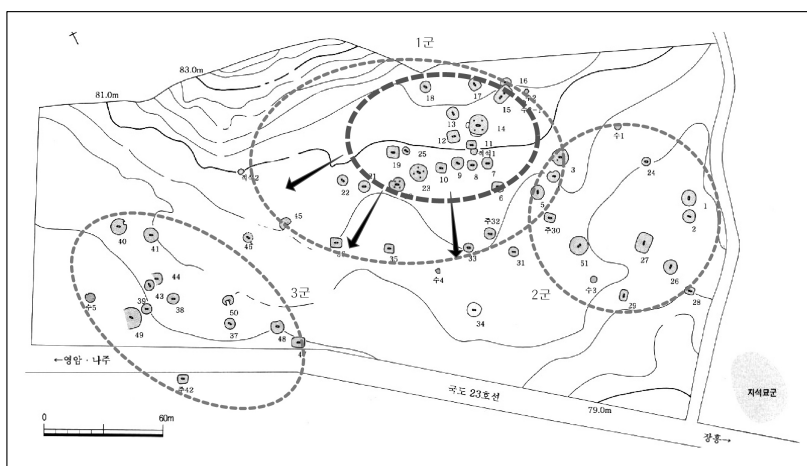


그림 7. 송국리형취락의 주거배치 양상(장흥 신평)

17) 金壯錫, 2003, 「충청지역 송국리유형 형성과정」, 『韓國考古學報』 第51輯.
 18) 金範哲, 2006, 「錦江 중·하류역 松菊里型 聚落에 대한 家口考古學적 접근-多次元尺度法을 이용한 家口간 貧富差/位階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第51號.
 19) 金權九, 2003, 『靑銅器時代 嶺南地域의 生業과 社會』, 嶺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 소비

분업이 발달하지 않고 분배와 교환이 원활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소비유형이 전체 사회 안에서 대체로 균일하다. 이런 사회에서는 잉여생산이 거의 없으므로 부의 축적이 불가능하고 사회의 각 단위간에 경제적 차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층에 따른 소비유형도 분명하지 않을 것이다²⁰⁾.

가족 분화가 활성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송국리형취락은 소집단 체제가 발달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공동의 경제체제가 구축되었다고 할지라도 분업화와 교환체계 등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1) 야외노지

송국리형취락민들의 식문화와 연관되는 것으로서, 주거 내부에서 화식을 통한 흔적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야외 노지를 활용한 식문화는 매우 유력한 해석으로 판단된다. 물론 유적에서 조사되지 않는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야외노지가 지표면이나 얇은 구덩이로 조성된다는 점과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고학 현장은 경작 등으로 인해 삭평되어 왔다는 점에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 취락 유적에서 조사되는 수혈유구 가운데 소토덩어리, 토기편, 할석이나 천석 등이 함께 확인되는 구덩이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의례적 해석도 있지만 야외노지로서의 해석도 가능하리라 본다. 야외노지는 개별 주거의 소비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요소로서, 오지의 부족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주거와의 거리 및 출입구와의 관계를 통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지만 발굴조사 시 유구의 존재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주거와는 별도로 넓은 공터에 야외노지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광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행사나 의례 과정에서 수반되는 다양한 용도의 화기 사용처 중 하나였을 것이다. 개별 주거에 근접하여 설치된 야외노지가 한 주거에서 생활하는 구성원을 위한 소비 단위라면, 개별 주거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공터 등에서 활용된 야외노지는 취락 구성원을 위한 소비단위로 볼 수 있다. 전자의 소비단위는 특정 주거의 소유물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폐쇄적 성격을 지니는 반면, 후자의 소비단위는 특정한 모임을 통해 전 취락민을 하나로 결속하게 하고, 이를 위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원천으로서 개방적

20) 한상복 · 이문용 · 김광억, 2012, 『개정판 문화인류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259~260.

성격을 지닌다.

2) 공터 : 광장

취락 내에 존재하는 공터(광장)는 일반적으로 전체 구성원들간의 존재 인식과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의 장소로 기능한다. 특히 취락 구성원들의 특정 행위나 모임에 수반되는 소비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장소로서 에너지 공급의 원천이기도 하다.

청동기시대 취락 내에 존재하는 광장은 다수의 주거로 밀집되어 있으면서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일정 면적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공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광장은 주거군과 거리를 두고 있는 순수한 공터와는 구별될 수 있으며, 주거군의 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환상열을 이루는 취락은 전자 형태의 공터가 만들어지겠지만 열상이나 집중화를 이루는 취락은 주거군과 일정 거리를 두고 마련되는 순수한 공터가 만들어질 것이다.

공터에서의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소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 ① 취락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회합, 제의나 축제와 같은 의례 등 군중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조리 행위 : 야외노지
- ② 한랭기 또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회합 시 추위를 막거나 불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땔감의 소비



그림 8. 송국리형취락과 광장(광주 수문)

V. 맺음말

송국리형문화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중기(또는 후기)를 대표하는 문화유형으로서 기원전 9세기~기원전 1세기를 전후하는 시기까지 잔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화는 전기 단계와는 전혀 다른 주거의 축조와 가족분화를 특징으로 하며,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취락의 체제를 구축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집단은 장구한 세월 속에서 전통성, 보편성, 과급성이라는 문화적 특성을 갖출 수 있었다.

취락에서 볼 수 있는 생산과 소비는 그 문화의 사회·경제체제를 파악하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자 민감한 분야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고고학자료를 바탕으로 한 탄탄한 토대 속에서 이론적 체제가 수립될 수 있는데, 1차적인 토대마저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 살펴본 송국리형취락의 생산과 소비의 문제는 해결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간략한 문제제기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행간에 사용된 단어나 접근 방식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해석과 자료분석에 대한 체계적인 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발굴조사보고서는 생략함

- 고일홍, 2010, 「청동기시대 전기의 농경방식 재조명」, 『韓國上古史學報』 第67號.
- 金範哲, 2006, 「錦江 중·하류역 松菊里型 聚落에 대한 家口考古學적 접근-多次元尺度法을 이용한 家口간 貧富差/位階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第51號.
- 金承玉, 2004, 「龍潭댐 無文土器時代 文化的 社會組織과 變遷過程」, 『湖南考古學報』 19, 湖南考古學會.
- 金壯錫, 2003, 「충청지역 송국리유형 형성과정」, 『韓國考古學報』 第51輯.
- 金賢, 2002, 「大坪 無文土器 窯에 대한 一檢討」, 『晉州 大坪 玉房 1·9地區 無文土器 聚落』, 慶南考古學研究所.
- 로저키징 著·전경수 譯, 1990, 『現代文化人類學』, 현음사.
- 朴淳發, 2003, 「村落의 形成과 發展」, 『강좌 한국고대사』, 제7권 촌락과 도시, (재)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쇼다 신야, 2009, 『청동기시대의 생산활동과 사회』, 학연문화사
- 安在晔, 2004, 「中西部地域 無文土器時代 中期聚落의 一樣相」, 『韓國上古史學報』 第43號.
- 윤호필, 2012, 「경작유구를 통해 본 경지이용방식의 변천 연구」, 『농업의 고고학』, 제36회 한국고

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이건무, 2006, 「松菊里類型에 대하여」, 『금강, 송국리형문화의 형성과 발전』, 호서·호남고고학회 합동 학술대회.

李宗哲, 2002, 「松菊里型 住居址의 構造變化에 대한 試論」, 『湖南考古學報』 第16輯.

_____, 2003, 「支石墓 上石 運搬에 대한 試論」, 『韓國考古學報』 50輯, 韓國考古學會.

_____, 2006, 「松菊里型住居址 研究의 爭點과 課題」, 『송국리유적 조사 30년, 그 의의와 성과』

_____, 2012, 「탐진강 유역 송국리형주거의 특징과 편년」, 『湖南考古學會』 42號.

田崎 博之, 2005, 「燒成失敗品을 통해 본 無文土器의 生産形態」, 『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한상복·이문웅·김광영, 2012, 『개정판 문화인류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경작유적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의 생산과 소비

— 남강유역의 경작유적을 중심으로 —

윤 호 필
경남발전연구원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II.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곡물 생산과 소비 |
| II.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양상 | 1. 출토곡물의 종류와 특징 |
| 1. 남강유역 취락현황 | 2. 경작유구의 특징 |
| 2. 취락구조 검토 | 3. 곡물의 생산과 소비 |
| | IV. 맺음말 |

I. 머리말

최근 청동기시대 연구가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어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청동기시대 사회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포괄적인 연구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이중 청동기시대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는 다른 연구들에 비해 미진한 편으로 수공업품 및 생산유구를 중심으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청동기학회의 학술대회 주제인 “청동기시대 생산과 소비적 관점에서 바라 본 경제활동”은 다양한 주제를 통해 청동기시대 사회를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리라 생각된다.

본고는 청동기시대의 다양한 생산활동 및 소비활동 중에서 경작유적을 중심으로 ‘곡물’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통해 청동기시대의 경제활동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동기시대 곡물의 생산-유통-소비는 당시의 사회적 기반으로 볼 때 한반도 전체가 대상이기 보다는 지역적 소단위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일정범위의 지역군을 선정하여 소지역 단위로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지역은 경작유구의 조사사례가 많고 수계를 중심으로 일정 범위에 많은 취락이 분포하는 남강유역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시기는 청동기시대를 3시기로 구분할 때 전기와 후기에는 일부 곡물만 확인될 뿐 경

작유구의 출토예가 매우 적어 시기별 변천을 파악하기는 어렵다.¹⁾ 따라서 청동기시대 중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아직 청동기시대 곡물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족하고, 곡물의 구체적인 재배형태나 생산량 등의 연구도 미진하여, 곡물종류에 따른 세부적인 양상을 논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경작지(논과 밭)의 종류에 따라 곡물을 크게 도작물(稻作物)과 전작물(田作物)으로 구분하고,²⁾ 재배형태나 생산량은 경작유구 및 취락의 규모와 구조를 통해 대략적으로 추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남강유역 취락현황을 파악하여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경작취락을 중심으로 곡물의 생산-유통-소비 시스템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양상

1. 남강유역 취락현황

- 남강유역은 경호강-남강-덕천강으로 연결되는 하천과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 유적의 분포 및 입지는 대부분 수계를 따라 분포하는데, 주로 하천변 충적지(A), 단구면(평지)(B), 하천에 인접한 구릉사면(C)에 입지한다.
- 현재 남강유역에서 발굴조사된 유적은 대략 43개 유적으로 그 현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취락의 세부속성은 크게 생활유구, 저장유구, 의례유구, 무덤유구, 경작유구의 5개 속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구양상을 정리하였다. 이중 경작유구는 유구의 특성상 잔존하는 범위 및 지형을 고려하여 대략적인 추정면적을 산정하였다.³⁾
- 청동기시대의 기본적인 취락구조 분류안은 이형원(2009:118-144)에 의해 잘 정리되어 있으며, 본고에서도 이를 참조하여 취락의 구성요소를 크게 ①생활유구, ②저장유구, ③의례유구, ④무덤유구, ⑤경작유구의 5개로 설정하여 취락유형을 정리하였다.⁴⁾

1) 토기를 중심으로 3시기를 설정하며, 전기(돌대문토기, 가락동계토기, 역삼동계토기, 혼암리계토기), 중기(송국리계토기, 검단리계토기), 후기(점토대토기)로 구분된다.

2) 잡곡은 넓은 의미로 쌀 이외의 곡물과 두류 및 울무 등 말하며, 지금까지 시료를 통해 확인된 청동기시대 곡물은 쌀, 조, 기장, 보리, 밀, 콩, 팥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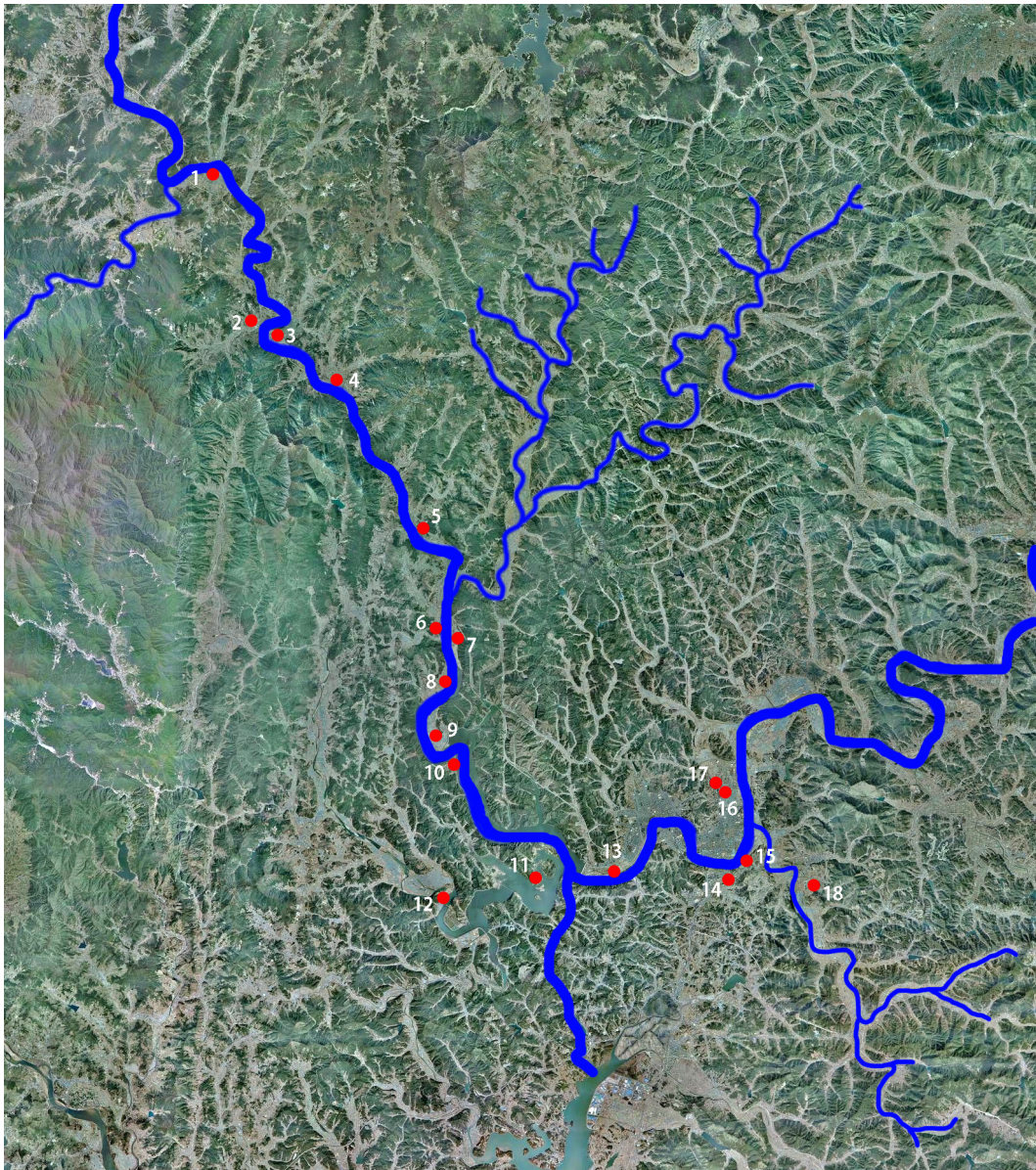
3) 경작지 중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보고서가 미간인 경우는 존재여부만 기재하였다.

4) 의례유구는 독립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무덤군이 조성된 경우나, 거대한 분묘가 독립적으로 축조된 경우는 무덤자체가 하나의 의례적 기능을 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취락내에서 주거지와 인접해서 이런 무덤들이 분포할 경우는 의례유구를 겸하는 것으로 보고 '有'로 표기하였다.

〈표 1〉 남강유역 취락현황

연번	유적명	입지	생활유구											저장유구		의례유구	무덤유구	경작유구		취락유형		
			주거지	야외노지	구	대상유구	주혈	함정	수혈	진석	적석	폐기장	토기군	유한	굴립주			저장혈	논(m ²)		밭(m ²)	
1	산청 하촌리 (경문연)	A	13		2			6	6						1			1			①②③	
2	산청 하촌리 (경발연)	A	21		1		126		102						4			3			①②③	
3	산청 매촌리	A	18					6									2기	49			①③④	
4	산청 옥산리	B	117						18					2열	5						①②	
5	산청 목곡리	A	5	1											9		1개소				①②③	
6	산청 사월리 새터	C	19		2				11					1열			有	9			①③④	
7	산청 사월리 배양	C	10						10					2열				2			①④	
8	산청 대하리	A	2																		①	
9	산청 명동	B																2			④	
10	산청 강루리	B	8						10									3			①④	
11	산청 단성면 목곡리	A																		2,600	⑤	
12	진주 안간리	C	9						20												①	
13	산청 소남리	A	27															1			①④	
14	진주 대평리	어은1	A	120	38				27	25							有	23		13,200	①③④⑤	
15		어은2	A	50	33				32	42									8		밭	①④⑤
16		옥방1	A	74	35	112		3개소	361	3		4		4	5		有	37		150	①②③④⑤	
17		옥방2·3	A	30		12			80	7									31		13,300 (1+2차)	①④⑤
18		옥방4	A	66	22	7			76								5		5		1,100	①②④⑤
19		옥방5	A	64	13				9		1						有	9		500	①②③④⑤	
20		옥방6	A																		3,700	⑤
21		옥방7	A	21		10			90					3열					5			①④
22		옥방8	A	13	16				125	10							有	21		5,000	①③④⑤	
23		옥방9	A	13		1			33												400	①⑤
24	진주 상촌리	A	A	1																	①	
25		B	A	2																	①	
26		C	A	3					3		1											①
27		D	A	1																		①
28		E	A	48		1				20								有	57			①③④

연번	유적명		입지	생활유구											저장유구		의례유구	무덤유구	경작유구		취락유형		
				주거지	야외노지	구	대상유구	주혈	함정	수혈	집석	적석	폐기장	토기군	환호	굴립주			저장혈	본(m ²)		밭(m ²)	
29	진주 귀곡동	A	A															2		①④			
30		대촌	A	12						1								有	12		①③④		
31	내촌리	B	A	1																①			
32	사천 본촌리		A	17		1													3		①④		
33	진주 평거동	3-1	A	35		15	군	59	91								2	3개소	7	1층가	28,140	①②③④⑤	
																				2,177			
																				1층나			
2,025																							
2층	1,210																						
34	진주 평거동	3-2-1	A	15			23	6군	16	281							7	有	30		2,900	①②③④⑤	
3-2-2		A																			4,300	⑤	
4-1		A	5		2				25	3									3		24,222	①④⑤	
4-2		A	19		22				24	101												16,713.4	①⑤
4-3		A																				6,498.1	⑤
39	진주 가호동		B	26	9				19	26						1	4	有	39		800	①②③④⑤	
40	진주 호탄동		C	1		12		2	10	3												①	
41	진주 초전동 (한국분물)		A	57			78		12	155					1	12	有	10				①②③④	
42	진주 초장동 (동서분물)		A	52		39				132	1					25	有	21	논			①②③④⑤	
43	진주 이곡리		A	8						32						2		有	40	논		①③④⑤	



도면 1. 남강유역 취락 분포도

* 범례

번호	유적명	번호	유적명
1	산청 하촌리(경문연), 산청 하촌리(경발연)유적	10	진주 대평리유적
2	산청 매촌리유적	11	진주 상촌리유적
3	산청 옥산리유적	12	진주 귀곡동 대촌유적
4	산청 목곡리유적	13	사천 본촌리유적
5	산청 명동유적	14	진주 평거동유적
6	산청 강루리유적	15	진주 가호동유적
7	산청 사월리 새터유적, 산청 사월리 배양유적	16	진주 호단동유적
8	산청 단성면 목곡리유적	17	진주 초장동유적, 진주 초전동유적
9	산청 소남리유적	18	진주 이곡리유적

2. 취락구조 검토

- 취락은 주거지가 중심이 된 가옥집합체로 보는 협의적인 개념보다는 인간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모든 유구들(경작지, 도로망, 행위공간, 패총(폐기장), 분묘, 요지, 사회공공건물지, 제사(의례)장소 등)을 포함한 광의적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취락공간은 인간의 모든 일생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다양한 성격의 공간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한다. 이를 세부속성에 따라 구분하면 생활공간, 저장공간, 의례공간, 무덤공간, 생산공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취락의 개념 및 공간구분에 대한 것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검토되어진 바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취락구조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남강유역 취락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남강유역 취락연구는 고민정(2004, 2010), 배덕환(2009), 최섯별(2013) 등의 연구가 있으며, 대부분 취락구조 분석을 통해 취락유형을 설정하고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 고민정(2010:26)은 이형원의 취락구조 분류안을 토대로 남강유역 후기 취락구조를 검토하고, 이를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에 대입하여 남강유역 취락의 성격을 <표 2>, <표 3>과 같이 파악하였다.

표 2. 남강유역 취락구조 분류(고민정 2010:26 재인용)

취락구조	규모	유적	비고
주거+분묘공간	小	귀곡동 대촌, 사천 본촌리	
	中	상촌리 E지구	
주거+분묘+생산공간	中	가호동취락, 초전동취락	수공업생산, 경작지(밭)
주거+분묘+의례공간	小	사월리취락	
주거+분묘+의례+생산공간	中	평거3지구취락, 이곡리취락	수공업생산, 경작지(논,밭)
	大	대평리취락	수공업생산, 경작지(밭)

표 4. 남강유역 취락의 규모와 성격(고민정 2010:32 재인용)

취락규모	유적	취락성격
중심취락	진주 대평리취락	복합형
중위취락	산청 소남리, 진주 상촌리, 진주 가호동(제사집단?), 진주 초전동 취락	복합형
	진주 이곡리, 산청 사월리, 산청 목곡리 취락	제사집단
	경작집단 - 진주 평거동(복합형?)	경작집단
소취락	귀곡동 대촌유적, 사천 본촌리유적	

- 김삿별(2013:50)도 남강유역의 취락분포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취락의 규모와 구성요소들을 검토하여 <표 4>와 같이 취락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표 5. 남강유역 취락 권역별 구성(김삿별 2013:50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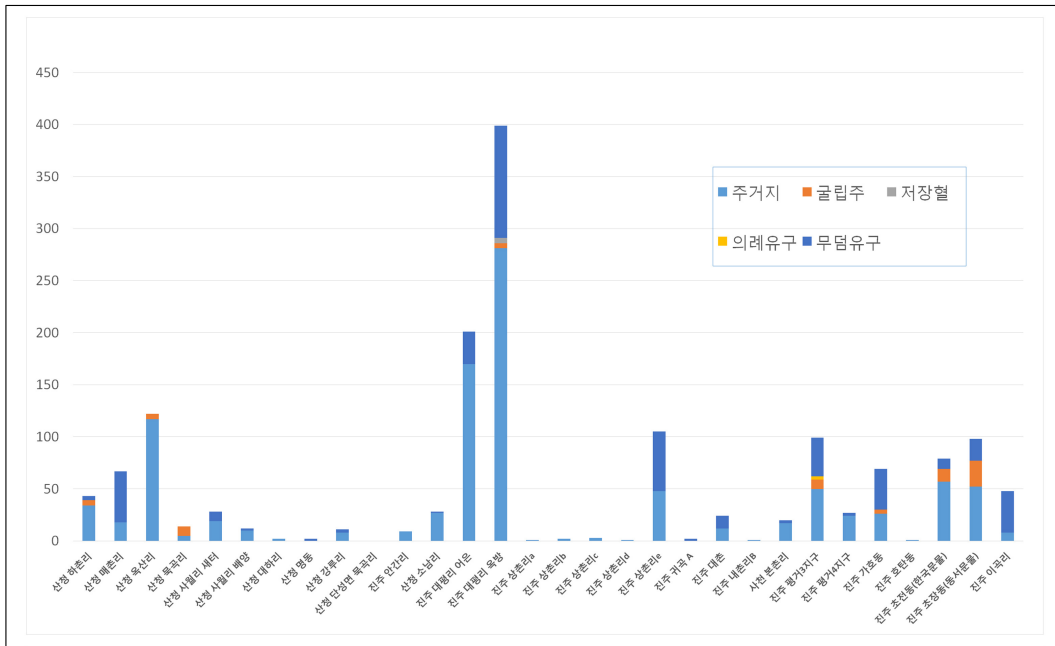
취락형태	A권역	B권역	C권역	D권역
중심취락	산청 하촌리		진주 대평리	진주 초전동
복합취락			진주 상촌리	진주 평거동, 진주 가호동
장의형취락	산청 매촌리			이곡리
일반형취락	산청 묵곡리	의령 마쌍리	산청 사월리, 대촌	
구릉형취락		산청 안간리		

- 고민정과 김삿별의 연구는 모두 취락의 규모와 취락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을 설정한 다음 각 취락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남강유역의 최상위 중심취락에 대해서는 모두 ‘진주 대평리유적’을 설정하고 있어 이견이 없지만, 나머지 주변취락의 성격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각 취락의 구성요소에 대한 관점과 해석의 차이로 생각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비슷한 연구성곽을 보이고 있다.
- 두 연구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남강유역에 분포하는 취락들은 최상위의 중심취락을 중심으로 주변에 다양한 성격의 취락들이 상호 공존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취락은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취락으로 보였다. 따라서 남강유역의 취락은 일정한 네트워크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앞의 두 연구성곽을 참고하여 취락의 구성요소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이 <표 1>, <표 6>, <도면 2>이다. <표 1>은 입지 및 취락의 구성요소들을 취락별로 세분하여 정리하고, 이를 취락유형으로 다시 설정하였으며, <표 6>은 취락의 구성요소 별로 유적을 재정리한 것이다. <도면 1>은 취락의 구성요소 중 경작유구를 제외한 각 속성의 수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취락의 규모뿐만 아니라 취락 구성요소의 복합성을 잘 보여주며, 이를 통해 취락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보면 남강유역의 취락은 다양한 취락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분포하며, 취락의 규모에 따라 대형취락, 중형취락, 소형취락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다시 취락의 성격에 따라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으로 구분된다.

표 5. 남강유역 취락의 구성요소

취락 구성요소	유적명	취락성격	
①	산청 대하리, 진주 안간리, 진주 상촌리 A~D, 진주 내촌리 B, 진주 호탄동	소규모 주거지중심	주변 취락
④	산청 명동	무덤중심	
⑤	산청 단성면 목곡리	경작지중심	
①+②	산청 옥산리(대형취락)	주거지중심	
①+④	산청 사월리 배양, 산청 강루리, 산청 소남리, 진주 귀곡동 A, 사천 본촌리,	소규모 복합	
①+②+③	산청 하촌리(중형취락),	주거지중심	
	산청 목곡리	의례중심	
①+②+④	산청 매촌리	무덤중심	
①+③+④	산청 사월리 새터, 진주 귀곡동 대촌	소규모 복합	
	진주 상촌리E(중형취락)	무덤중심	
①+③+④+⑤	진주 이곡리	무덤중심	
①+②+③+④+⑤	진주 대평리유적(어은지구·옥방지구)(대형취락), 진주 평거동유적(3·4지구)(대형취락), 진주 초장동유적+초전동유적(대형취락)	대규모 복합	중심 취락
	진주 가호동(중형취락)	무덤중심	

* 범례 : ①생활유구+②저장유구+③의례유구+④무덤유구+⑤경작유구



도면 2. 남강유역 취락의 구성요소 분석표

Ⅲ.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곡물 생산과 소비

1. 출토곡물의 종류와 특징

- 남강유역 취락에서 출토된 곡물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나 일부 유적에 한정되어 있어 남강유역 전체의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출토곡물의 대부분이 대규모 복합유적에서 확인되어 대략적인 양상은 파악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곡물은 인간이 식용(食用)할 목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식물을 말하며, 남강유역 취락에서 출토된 곡물 종류는 약 9종이다. 대부분은 주거지, 경작지, 수혈 등에서 출토되었다.

표 7. 남강유역 출토 식물유체 집성표(안승모 2013b 수정보완)

유적명	곡물	도작물 (稻作物)	전작물(田作物)									비고			
			맥류			잡곡			두류		채소류				
			쌀	맥류	보리	밀	조	피	기장	두류	콩		팥	들깨	
산청 강루리		○				○									
진주 대평리	어은1	○	○	○	○	○		○	○	○	○	○			
	옥방1	○			○	○		○	○		○	○			
	옥방2·3	○				○									
	옥방4	○			○		○	○	○		○				
	옥방5	○													
	옥방6		○			○				○					
	옥방9				○	○		○			○	○			
진주 상촌리	E	○	○	○	○	○		○		○					
진주 평거동	3-1	○			○			○		○	○				
	3-2-1			○											
	3-2-2				○	○									
	4-1	○	○	○	○	○		○	○	○	○	○			
	4-2				○	○									조 다량 확인

- <표 7>은 남강유역에서 출토된 곡물의 종류를 정리한 것이다. 크게 도작물과 전작물로 나누어지며, 다시 전작물은 맥류(보리, 밀), 잡곡(조, 피, 기장), 두류(콩, 팥), 채소류(들깨)로 구분된다. 이중 들깨를 제외하면 모두 식량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작물이다.
- 곡물의 생산은 출토곡물의 성격을 통해 경작지의 재배여건, 파종시기 및 수확시기, 작부체계(作付體系) 등을 파악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출토곡물의 파종시기 및 수확시기, 그리고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곡물의 파종시기 및 수확시기

곡물 종류	파종시기	수확시기	특 징	문화적 의미(상징)와 기능	
쌀(벼)	5월	9월	- 재배에 물이 많이 필요하고, 토양조건이 까다로움 - 밭작물에 비해 재배과정에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함	- 흰색의 의미 - 귀한 음식 - 제사용 곡물 - 위신제 기능 - 조세용 곡물	
맥류	보리	10월	6월	- 비교적 서늘하고 건조한 기상에 잘 적응하며 토양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어느 지역에서나 잘 자람. - 맥류중에서 수확기가 가장 빨라 다른 작물과 이모작 가능	- 일 년 중 첫 수확되는 곡물
	밀	10월	6월	- 보리와 생육조건이 비슷함	- 일 년 중 첫 수확되는 곡물
잡곡류	조	5월~7월	9월~10월	- 생육 기간이 짧고 건조에도 매우 강하므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람. - 주식으로 이용 가능	- 주식용 곡물 - 제사용 곡물
	피	4월~6월	9월~10월	- 산지나 척박한 땅에서도 잘 견디며, 냉수담 또는 저습지에도 재배가능 함 - 형태는 쌀과 비슷하며, 생육기간이 짧다. - 맛이 없으며(영양가는 쌀과 비슷함), 장기간 저장가능	- 구황작물
	기장	5월~6월	8월~9월	- 파종시기가 조와 비슷하지만 생육기간은 조금 짧음. - 메마른 땅에서도 잘 견디며 조보다 성숙이 빠름 - 기장은 수확량이 적고 주식으로 이용하기도 부적합	- 제사용 곡물
두류	콩	5월~6월	9월~10월	- 다른 작물과 윤작가능 - 단백질 공급원 - 척박한 땅에도 잘 적응하며, 윤작을 통해 지력회복에 도움	- 구황작물
	팥	6월~7월	10월	- 콩과 비슷한 조건이나 콩보다 따뜻하고 습한 기후가 적합 - 척박한 땅에도 잘 적응함	- 붉은색의 의미 - 제사용 곡물
채소류	들깨	4월~7월	9월	- 잎에서 특이한 냄새가 나며, 유효성분으로 재배함.	

- <표 7>에서 보듯이 곡물은 크게 가을에 파종하는 것과 봄에 파종하는 것으로 구분되며, 수확도 가을과 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곡물을 생산하는 시기도 가을과 봄의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쌀은 일년생 초본식물로서 봄에 파종하여 가을에 수확한다. 재배환경은 밭작물에 비해 까다로운 토양 및 지형조건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경작지 조성도 어려운 편이다. 또한 고온성 작물로서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재배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수량도 높아야 한다. 밭작물에 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훨씬 많다.
- 쌀의 상징적인 의미는 크게 색(흰색)과 연결된 의미와 쌀생산의 어려움으로 인한 의미가 있다. 전자는 쌀의 색깔인 ‘흰색’ 과 연결된 것으로 흰색은 ‘신의 색’ 을 의미하며 쌀은 신에게 바치는 곡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후자의 의미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쌀생산의 어려움은 작물 중에서도 귀한 곡물로 인식되어, 특별한 경우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⁵⁾ 또한 이러한 연유로 위신제의 기능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보리와 밀은 맥류에 속하며 가을에 파종하여 늦봄에 수확한다. 동절기작물로서 비교적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잘 적응하여 재배가 용이하다. 파종과 수확 시기가 봄작물과 반대되기 때문에 봄작물과 번갈아 재배할 수 있으며, 봄작물의 수확물이 소진되는 시점에 수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의 식량확보에 유리한 작물이다.
- 조, 피, 기장은 잡곡류에 속하며 봄에 파종하여 가을에 수확하는 작물이다. 재배환경은 가뭄에 강하고 척박한 토양과 한랭한 기후에 잘 적응하는 어느 곳이나 재배가 가능하다. 특히, 피는 벼와 비슷한 형태로 발피와 논피가 있으며, 이 중 논피는 벼와 같이 저습지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조는 주식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작물이며, 기장은 조와 비슷하나 쉽게 소화가 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조와 기장의 문화적 의미로는 제사용 곡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⁶⁾ 잡곡류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수도작이 불가능한 산간지대에 초지를 태워 경작지를 만드는 화전경작에도 많이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⁷⁾
- 콩과 팥은 두류에 속하며 봄에 파종하여 가을에 수확한다. 재배환경은 잡곡과 같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 특히 콩은 다른 작물과의 윤작을 통해 지력회복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팥은 색깔이 붉은 색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⁸⁾ 제의용이나 제사용 곡물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들깨는 채소류로서 식량확보를 위한 재배보다는 들깨에서 나오는 냄새나 기름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5) 현대의 조사사례이지만 ‘쌀밥의 문화적 의미’에 대한 연구를 보면 쌀밥을 차리는 상활별 우선순위에서 ‘제사’때가 가장 먼저였다. 이는 쌀이 가장 중요한 곡물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쌀이 조상을 즐겁게 하는 음식으로 조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곡물로 인식한 것이다. 또한 일상의례에서는 수명장수를 비는 곡물로, 일상에서는 후손을 위한 나눔의 음식으로 사용되었다(김진혁 2009:85-89).

6) 중국에서 기장[黍]은 은(殷)을 건국한 탕왕(湯王)이 기장과 조로 하늘에 제사를 지낸 것을 시작으로 제의(祭儀)에 반드시 사용하였고, 손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음식이며, 예주(醴酒)의 재료로 오곡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례에 쓰이는 대표적 곡물이었다(윤성재 2009:29).

7) 후대의 기록이지만 고려 공민왕때 정추라는 인물이 충주목(忠州牧)에 속한 청풍현(淸風縣)을 지나며 이 지역이 화전(火田)하여 조를 많이 재배하였다고 한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윤성재 2009:27).

8) 붉은 색의 의미에 대해서는 ①현생과 내세를 연결하여 죽은 사람이 영생하도록 하는 것, ②악귀나 악령을 쫓아내기 위한 수단, ③붉은 색은 피를 상징하므로 시신이 회색빛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게 하는 것, ④붉은 색은 그 자체의 의미가 죽음을 상징한다(이용조 1975: 20).

2. 경작유구의 특징

- 경작유구는 곡물을 생산하는 유구로 대표적인 것이 논유구와 밭유구이다. 남강유역에서 경작유구가 확인된 유적은 총 19개이지만 대부분이 서로 연결되거나 같은 지형대에 속해 있어 하나의 유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많다. 따라서 이들 유적을 정리해 보면 크게 6개 유적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유적은 진주 대평리유적(어은지구·옥방지구), 진주 평거동유적(3·4지구), 진주 초장동(초전동)유적으로 대규모 복합취락들이다. 나머지는 산청 단성면 묵곡리유적, 진주 이곡리유적, 진주 가호동유적 등으로 소규모의 경작유구가 확인되었다.
- 이들 경작유적 중에서 가장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진주 대평리유적과 진주 평거동유적이다. 특히 진주 대평리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청동기시대 밭유구가 확인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곳으로 의미가 깊다. 진주 평거동유적은 충적지 전체가 조사된 유적으로 충적지의 세부지형과 취락구조와의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밭유구뿐만 아니라 논유구까지 조사되어 취락구조의 전형을 보여주는 유적이라 하겠다.
- 이들 유적을 논과 밭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 <표 9>와 <표 10>이다.

표 9. 남강유역 논유구 현황

유적명		내용
3-1 지구	A 지구	1층 가부분
	1층 나부분	
	2층	
4-1 지구	1층	
	2층	
진주 초장동 (동서문물)		· 有
진주 이곡리		· 有

표 9. 남강유역 발유구 현황

유적명		내용		
산청 단성 목곡리		· 전체규모: 2,600㎡		
진주 가호동		· 전체규모: 800㎡		
진주 대평리	어은1		· 전체규모: 13,200㎡	
	어은2		· 有	
	옥방1		· 전체규모: 150㎡	
	옥방2·3		· 전체규모: 13,300㎡	
	옥방4		· 전체규모: 1,100㎡	
	옥방5		· 전체규모: 500㎡	
	옥방6		· 전체규모: 3,700㎡	
	옥방8		· 전체규모: 5,300㎡	
	옥방9		· 전체규모: 400㎡	
진주 평거동	3-1	B 지구	1층	· 발의 수: 8면(평균면적 3,518㎡) · 전체규모: 28,140㎡ / · 이랑길이: 10~110m · 두둑간격: 80~90cm, 고랑폭: 36~45cm, 고랑깊이: 7~15cm
			2층	· 발의 수: 9면(평균면적 1,066㎡) · 전체규모: 9,590㎡ / · 이랑길이: 17~128m · 두둑간격: 70~120cm, 고랑폭: 35~60cm, 고랑깊이: 8~18cm
	3-2-1	Ⅲ-1층		· 발의 수: 3면(평균면적 967㎡) · 전체규모: 2,900㎡ / · 이랑길이: 20~150m · 두둑간격: 10~47cm, 고랑폭: 40~55cm, 고랑깊이: 5~15cm
	3-2-2	A 지구	발 12층	· 발의 수: 3면(평균면적 1,433㎡) · 전체규모: 4,300㎡ / · 이랑길이: 68~85m · 두둑간격: 50~79cm, 고랑폭: 45~60cm, 고랑깊이: 4~9cm
	4-1	1층		· 발의 수: 19면(평균면적 1,730㎡) · 전체규모: 24,222㎡ / · 이랑길이: 10~123m · 두둑간격: 84~146cm, 고랑폭: 26~60cm, 고랑깊이: 3~9.6cm
	4-2	가지구		· 발의 수: 11면(평균면적 2,783.5㎡) · 전체규모: 1,6713.4㎡ / · 이랑길이: 12~34m · 두둑간격: 48~102cm, 고랑폭: 42~76cm, 고랑깊이: 2~6cm
	4-3	1층		· 발의 수: 2면(평균면적 1299.6㎡) · 전체규모: 6,498.1㎡ / · 이랑길이: 35m · 두둑간격: 110~135cm, 고랑폭: 40~60cm, 고랑깊이: 5~8cm

- 논유구는 주로 ‘벼’ 를 재배하는 경작지로 배수가 불량하고 주변에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에 조성된다. 남강유역에서도 강변충적지의 자연제방과 구룡말단부 사이에 위치한 배후습지 지역에 주로 입지한다. 논의 기본구조는 논둑으로 논면을 구획하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기 위해 수구(물꼬)를 설치한다. 물은 하천이나 관계시설에서 수로를 통해 수구로 전달되어 각 논면에 전해진다. 남강유역에서 논유구의 구조가 잘

확인된 곳은 진주 평거동유적으로 이를 통해 대략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논 의 기본 형태는 소구획 논이지만 지형에 따라 소규모의 계단식 논도 함께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 세장방형, 호상, 부정형 등이다. 논 의 전체면적은 가장 넓게 조성되었을 때가 3지구는 2,177㎡, 4 지구는 3,217.8㎡ 정도이며, 논 한 면의 평균 면적은 11㎡~ 28.9㎡ 정도이다. 논둑폭은 20~30cm 정도이며, 논 한 면의 규모는 길이 3~5m, 너비 2~2.5m 정도이다. 논 주변에서는 토기군, 구, 소형석관묘 등이 확인되어 농경의례의 양상을 엿볼 수 있다.⁹⁾ 전체적으로 보면 논은 특정 지형에만 조성되며, 관계 시설의 설치, 논구조의 복잡성, 경작지의 규격화 등으로 보아 논 조성에는 높은 수준의 기술적 축조플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외와 더불어 벼 재배에도 상당한 경작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경의례의 확인은 경작기술과 더불어 문화적 측면에서도 매우 성숙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발유구는 토양 및 지형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다양한 지형에 입지한다. 남강유역에서는 충적지에서 확인되었다.¹⁰⁾ 발유구는 주거공간인 자연제방의 상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¹¹⁾ 세부지형으로 보면 주로 미고지의 평탄면, 자연제방의 전·후사면, 미고지와 미고지 사이의 경사면 등이다. 밭 구조는 두둑과 고랑으로 구성된 이랑 밭이며, 밭과 밭의 경계는 구를 파서 경계구를 만들었다. 일부 경계구 내부에는 강돌을 일정 간격으로 박아 놓은 것도 있다. 이랑의 길이는 개별 밭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많으며, 10m~150m까지 다양하다. 두둑간격과 두둑폭도 다양하게 나타나며, 고랑깊이는 5~15cm 정도가 많다. 이랑의 방향은 경사면과 평탄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경사면의 경우는 대부분 등고선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이랑이 설치된다. 평탄면에서는 다양한 방향으로 이랑이 설치되지만, 대부분 강과 직교하는 북서남동 방향이 많다. 등고선과 직교하는 이랑의 설치는 청동기시대 밭경작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밭의 내부에서는 수혈도 일부 확인되며, 밭과 중복되어 지식묘, 함정, 수혈 등이 분포한다. 밭의 면적은 밭이 입지한 지형을 감안하여 대략적으로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진주 대평리유적은 충적지 전체에서 강에 인접한 자연제방대를 중심으로 일부만 조사된 것으로 대평리 충적지 전체의 경작지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사된 지역을 중심으

9) 논과 관련된 농경의례 유구는 진주 평거3-1지구 청동기시대 논에서 확인되었다. 이중, 소형석관묘는 진주 평거3-1지구, 진주 대평리 어은1지구, 옥방2·3지구의 발유구 가장자리에서도 확인되어 농경의례의 유사성을 보인다.

10) 발유구는 지상에 설치되며 별다른 구조물 없이 흙으로만 조성되기 때문에 후대의 유실과 교란이 많다. 따라서 구릉지에서도 밭이 활발히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11) 옥방 1지구(진박) 40호 밭이나 66호 밭처럼 일부는 텃밭의 형태로 자연제방 상면에 입지하는 경우도 있다.

로 지형을 감안하여 미조사지역과 유실된 지역까지 포함하여 전체 발면적을 추정하면 대략 40,000㎡ 정도의 규모로 생각된다. 진주 평거동유적은 충적지형 전체가 조사되어 발의 분포범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곳으로 3지구의 발 전체면적은 대략 45,000㎡이며, 4지구의 발 전체면적은 대략 47,500㎡ 정도이다. 이들 대규모 복합유적의 발유구들은 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지력감소로 인한 휴경을 감안하더라도 대단위의 경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곡물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산청 단성 목곡리유적 발면적은 약 2,600㎡ 정도이고 진주 가호동유적 발 면적은 800㎡ 정도이다. 이중 산청 단성 목곡리 발유구는 일부만 조사된 것으로 정확한 전체면적으로 알 수 없다. 하지만 입지하는 충적지의 면적이 넓은 것으로 보아 대규모의 경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경작지에서 확인되는 개별 발의 규모는 기본적으로 입지지형에 따라 차이 있지만, 작물의 종류나 경작지의 소유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곡물의 생산과 소비

1) 곡물 생산과 저장

(1) 곡물 생산

- 남강유역의 대규모 취락은 충적대지를 중심으로 발달하는데, 곡물을 생산하는 경작지도 이와 연동하여 발달한다. 따라서 남강유역의 충적지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곡물 생산지를 파악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 남강의 상류는 주변에 산지가 높고 계곡이 깊어 하천의 곡류가 심하지 않아, 충적지의 발달은 미미하다. 대규모 충적지는 중·하류지역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은 산청 강루리지역으로 동쪽으로 흐르던 하천이 백마산과 적벽산에 막혀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크게 곡류하여 대규모 충적지를 만든다. 이렇게 시작된 하천의 곡류는 하류로 갈수록 심해지면서 대규모의 충적지들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남강유역의 대규모 경작지들은 대규모 충적지가 위치한 중·하류지역에 입지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대규모 경작지가 확인된 진주 대평리유적, 진주 평거동유적, 진주 초장동유적 등도 모두 중·하류지역의 충적지에 위치한다. 따라서 남강유역 곡물생산의 거점지역은 중·하류지역 충적지에 입지한 대규모 복합취락으로 생각된다.
- 충적지에 입지한 논경작지의 양상은 충적지 전체가 조사된 진주 평거동유적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논경작지는 자연제방과 배후구릉 말단부 사이의 배후습지에 입지한다. 이 지역은 구하도가 있던 곳이 메워진 곳으로 주변지형과 구분되어 논경작지

의 범위가 지형적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인위적인 논 경작지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당시의 경작도구가 돌과 나무로 만든 도구임을 감안하면 형질변경을 통한 논경작지의 인위적 확대는 많은 노동력과 기술력이 투입되는 대규모의 토목작업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논경작 조건에 맞는 지형과 토질을 찾아내고 최소한의 노동력으로 경작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다. 평거동유적의 논경작지에서 보면 한 지역에서 논이 폐기된 이후에도 다시 경작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대로 벼 재배의 특성상 특정조건이 갖춰진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경작지의 조성방법으로 경작지역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경작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논조성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논면의 수평을 맞추는 것으로 물을 가두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많은 노동력과 기술이 동원된다. 진주 평거동유적에서는 경작지역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경작지의 면적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평탄면에는 소구획논을 조성하고 가장자리의 완만한 경사면에는 계단식논을 조성하였다. 이는 인위적인 지형변경을 최소화하면서 경작지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 논유구는 논면의 형태, 규모, 관련시설 등을 고려하면 경작지 조성에 일정한 축조플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경작방법도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전시기와 다른 매우 발달된 농경기술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작지 주변에서 확인된 농경의례 관련 유구들은 경작지를 단순히 곡물만을 생산하는 일반적인 유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성시하는 차별화된 유구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논경작지의 희소성에서도 나타난다.
- 현재 논경작지가 확인된 유적은 소수이지만 진주 평거동유적처럼 충적지 전체를 조사하면 논경작지는 더 많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강유역의 최상위 대규모 취락인 진주 대평리유적은 강과 인접한 일부지역만 조사되어 밭경작지만 확인된 상태로 충적지 전체를 조사한다면 진주 평거동유적 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논경작지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중·하류지역의 충적지를 감안하면, 밭경작지와 더불어 대규모의 논경작지가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쌀생산도 활발히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높다.
- 밭경작지는 논경작지와 같이 모두 충적지에서 확인되었지만, 구릉에 입지하는 취락에서도 소규모 텃밭이나 화전을 통해 경작되었을 가능성은 높다. 밭경작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살펴본 대로 경작지의 확대 및 대규모화이다. 충적지에 입지한 밭은 주거공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경작지로 조성하여, 경작지의 면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밭경작지의 확대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밭작물의 특수성으로 토양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경작지를 비교적 쉽게 조성할 수 있고, 재배기술도 비교적 단순하여 쉽게 경작할 수 있다. 둘째, 한 지역에 다양한 작물을 동시에 경작하거나 윤작이 가능하여 식량확보에 유리하다. 셋째, 충적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취락이 형성되어 넓은 경작지를 확보하기 쉽고, 인구증가와 더불어 식량의 수요도 증가하여 식량생산지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 밭작물은 맥류(보리, 밀), 잡곡류(조, 피, 기장), 두류(콩, 팥) 등이 확인되어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이 식량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척박한 조건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는 작물들이다. 파종과 수확 시기는 대부분 벼와 같이 봄에 파종하여 가을에 수확하는 봄작물들이며, 보리와 밀이 가을작물로서 가을에 파종하여 봄에 수확한다. 보리와 밀은 다른 작물의 수확물이 소진되는 시점에 수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에서 매우 중요한 작물이다. 출토곡물이 다양한 것은 재배하는 경작지가 다양하거나 같은 경작지에서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곡물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콩의 경우 다른 작물과 윤작을 하면 지력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다른 작물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대규모 경작지에서는 여러 밭으로 구획하여 각기 다른 작물을 심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조사사례에서 밭구획이 확인되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밭경작 기술로서 대규모 경작지를 동시에 경작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작물재배 후 지력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동시에 재배를 하게 되면 일정기간 재배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규모 밭의 동시 경작보다는 일정 지역에 한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번갈아 경작하는 방법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작지의 급속한 확대도 이러한 영향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밭작물은 대부분 식량공급의 역할과 함께 일부 작물은 문화적 의미를 가진다. 조와 기장은 제사에 사용되는 곡물이나 팥은 의례행위에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문화적 의미도 밭작물의 재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작물의 다양성은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력회복, 수요에 따른 생산물의 다양화 등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 밭작물의 곡물생산 거점도 논경작지와 같은 남강의 중·하류지역 충적지이며, 경작지의 면적은 주거지의 규모에 관계없이 생활공간을 제외한 충적지의 전지역을 경작지로 이용하면서 경작활동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논경작지와 같이 다른 충적지에서도 밭경작지가 분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밭경작지의 확대와 대규모화는 곡물의 생산기반이 늘어나는 것으로 곡물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재배작물의 종류도 다양해져 곡물의 종류도 늘어났다. 이는 식량확보의 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산증가에 따른 잉여생산물의 발생으로 집단 내부의 구조변화나 취락간의 교역변화도 나타난다.

(2) 곡물 저장

-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들은 대부분 1년에 한번씩 일시에 생산되지만 소비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곡물의 저장은 곡물의 생산만큼 중요한 일이라 볼 수 있다. 곡물저장은 먼저 수확된 곡물을 저장하기 유리한 상태로 처리하는 것과 처리된 곡물을 저장하는 장소에 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첫째는 수확물 그대로 저장하는 방법, 둘째는 탈곡한 상태의 낱알인 조곡(組穀)상태로 저장하는 방법이다. 청동기시대의 수확도구는 석도와 석점이 있지만 이들 도구로 줄기를 절단하여 곡물을 수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또한 뿌리째 뽑아서 수확할 경우에도 물리적인 힘이 많이 필요하고 곡물에도 손상이 많아지게 되어 수확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확방법은 곡물이 열려있는 부분을 따는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수확물의 저장방법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고상건물지(굴립주)를 이용한 창고시설의 설치, 저장혈, 주거지 내부에 대형옹을 설치하는 방법 등이다. 고상건물지는 취락내의 배치나 규모로 볼 때 대량의 수확물을 저장하는 대형저장시설로 보인다. 저장혈은 군집을 이루는 것은 고상건물지와 같이 대량의 수확물을 저장하는 시설로 생각되지만 독립적으로 배치된 것은 개별가구나 소규모 가구의 저장시설로 보인다. 대형옹은 가구의 독립적인 저장시설로 보인다. 이러한 저장시설들의 특징으로 볼 때 고상건물지에는 수확물을 그대로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저장혈이나 대형옹에는 조곡상태로 저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상건물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확물의 장기저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보관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고상건물지는 구조적으로 넓은 공간에 통풍이 잘되고 습기에 강하기 때문에 수확물을 그대로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¹²⁾ 저장혈은 개별 저장혈의 공간이 넓지 않아 수확물을 그대로 저장할 경우 한 곳에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없는 점과 습기에 취약한 점이 있어 조곡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¹³⁾ 대형옹은 기능상 단기간 보관용으로 생각되어 조곡상태나 현미상태로 저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저장시설이 확인된 취락은 10개 유적으로 대규모 복합유적인과 중형 복합취락에서 확

12) 벼의 경우 벧단 그대로 보관할 경우 3년 이상 장기간 보관에 유리하다(이홍중, 1997:13-14).

13) 곡물 저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곡물을 건조시켜 저장하는 것과 저장공간의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바람과 열을 이용하여 건조시키거나 습기를 제거한다.

인되며, 남강의 전체 취락 수로 보면 적은 편이다. 저장시설은 대부분 경작지가 포함된 취락에서 확인되지만 산청 목곡리유적처럼 일부는 전문적 기능을 가진 취락에서도 확인된다. 아직 조사사례가 적어 전체적인 양상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경작지의 규모로 볼 때 다양한 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곡물 유통과 소비

- 남강유역의 취락을 취락유형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곡물의 생산과 소비적 관점으로 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남강유역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의 특징

취락 유형		특 징	곡물의 생산과 소비 관점
중심 취락	대규모 복합취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요소 : 생활유구+저장유구+의례유구+무덤유구+경작유구 - 넓은 충적지에 입지하며, 배후에 낮은 구릉이 인접해 있음. - 공간구분 : 충적지의 세부지형(자연제방, 배후습지)에 따라 1차적인 공간구분(생활공간과 곡물 생산공간)이 이루어지며, 생활공간내에서 다시 2차적인 공간구분(무덤공간, 저장공간, 집단 의례공간, 광장 등)이 이루어져 취락구성이 완성됨. 공간구분이 뚜렷함. - 유구의 수가 많고 다양함. - 생산활동(곡물생산, 수공업품(토기, 석기, 옥)생산의 활발함 - 광장배치. 집단적 의례활동 - 대규모 분묘조성 - 환호설치. 취락내에서도 중심지역 설치 	대규모 생산취락
주변 취락	경작지중심 취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적지 입지(경작에 유리한 지역) - 경작지가 중심이 되며, 주거지는 경작지의 주변에 소수만 배치됨 - 농경관련 의례. 주로 밭경작 이루어짐 	생산전문 취락
	무덤중심 취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적지 및 구릉사면 입지 - 장송의례, 분묘제사와 관련된 활동 - 무덤군이 중심이 되며 주거지는 주변에 소수만 배치됨. - 무덤의 수가 주거지의 수보다 많음. 	소비전문 취락
	의례중심 취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적지 입지(지류의 소하천변) - 주거지는 의례유구와 조금 떨어진 곳에 소수만 배치됨. - 의례활동이 중심. 	소비전문 취락
	소규모 취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릉사면이나 충적지에 입지 - 소수의 주거지가 중심이 되며, 다른 생활유구의 수는 매우 적음. 	소비취락
	소규모복합 취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적지 입지 - 소수의 주거지, 무덤, 생활유구가 함께 배치됨 	소비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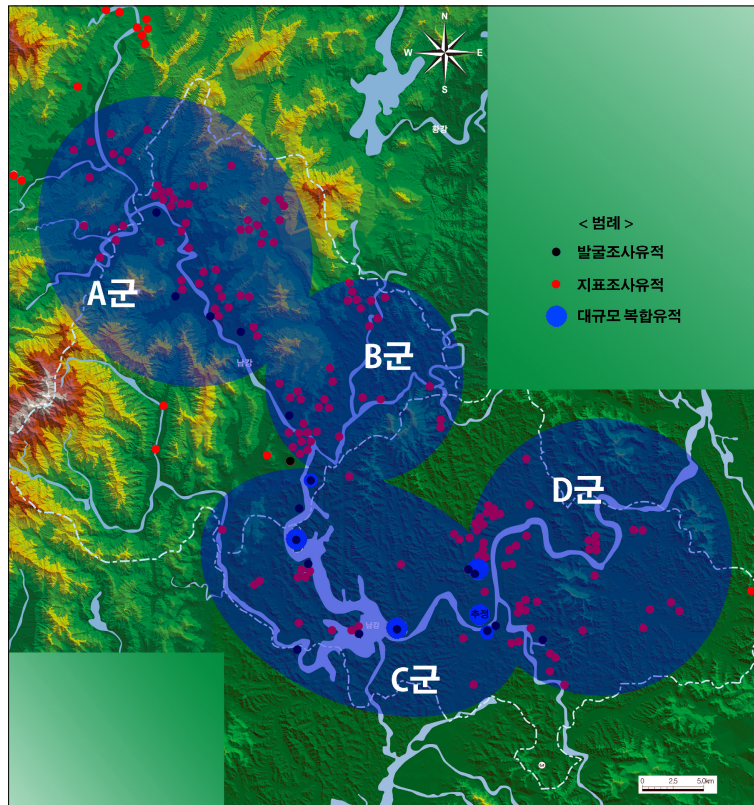
- 남강유역의 취락은 크게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으로 구분되며, 취락 상호간에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취락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수공업품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설명된다. 수공업품은 청동기시대 엘리트집단이 그들 자신의 권력을 창출하

고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 어떤 초보적인 네트워크 전략을 구사했을 것이며, 그 전략으로써 수공업품 중 위세품의 생산과 분배 및 농경잉여물의 통제를 들고 있다(고민정 · Bale 2008:88). 이러한 수공업품에는 반전업적인 전문 공인집단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적색마연토기, 마제석검, 옥 장신구 등이 해당되며, 이들의 생산과 교환, 분배를 통해 취락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Ko Min jung · Martin T. Bale 2007, 2008; 庄田慎矢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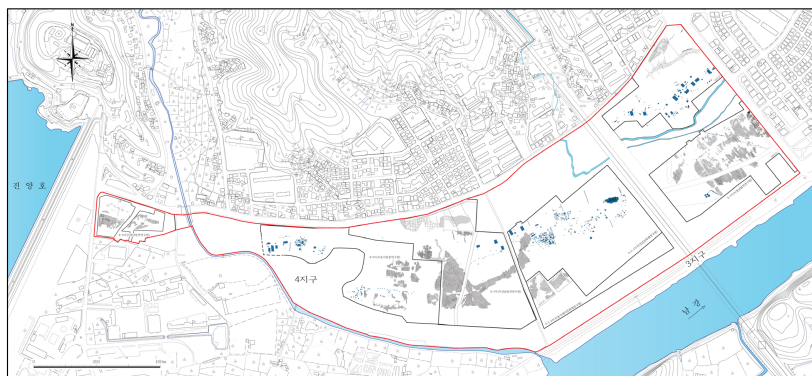
- 곡물의 생산과 소비 네트워크도 수공업품과 비슷하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곡물의 대량생산으로 인한 잉여생산물이 수공업품과 비슷한 형태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표 11>에서 보듯이 중심취락은 취락의 모든 구성요소를 갖추면서 남강유역의 엘리트 집단으로 성장하며, 이는 대규모 경작지를 통한 곡물의 대량생산이 중심취락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경작을 통한 쌀의 생산은 주변취락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라 하겠다. 주변취락에는 의례중심 취락 또는 무덤중심 취락 같이 특수한 기능을 하는 취락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규모의 복합취락으로서 곡물을 생산하기 보다는 소비하는 취락들이다. 물론 각 취락에서는 개별적인 생산활동은 이루어지겠지만, 잉여생산물을 생산하여 상호 교류할 정도의 생산량은 못되는 것으로 보인다.
- <도면 3>은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도이다.¹⁴⁾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크게 4개의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A군은 산청을 중심으로 산청 하촌리유적에서 산청 목곡리유적까지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B군은 산청 강루리와 지류인 신등천을 중심으로 하나의 군집을 이룬다. C군은 진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충적지에 입지한 유적인 진주 대평리유적에서 진주 초장동유적까지 하나의 군집을 이루며, D군은 진주 집현면과 이곡리를 중심으로 하나의 군집을 이룬다. A~D군집 중에서 대규모 복합취락은 C군집에 주로 분포하며, 나머지 군집은 중·소규모의 소규모 복합취락이 주를 이룬다.
- A군집, B군집, C군집은 주로 하천변에 인접한 곡부평지와 구릉 사면에 주로 입지하는데, A군집은 본류에 주로 인접해 있고, B군집과 C군집은 본류와 지류에 인접해 있다. 지리적으로 보면 모두가 하천과 연결된 교통로상에 위치하며, 유적간의 거리도 가까운 편이다. C군집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산지가 발달되지 않았으며, 유적은 주로 남강 본류의 대규모 충적지에 입지한다. C군집에서 현재의 진주시내가 위치한 자리도 전체적인 지형양상으로 볼 때 진주 평거동유적 같이 대규모의 복합취락유적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C군집은 하천이 크게 곡류하면서 만들어진 대규모의 충

14)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유적까지 모두 표시하였다.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들은 대부분 지석묘와 입석 등이지만 취락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포상은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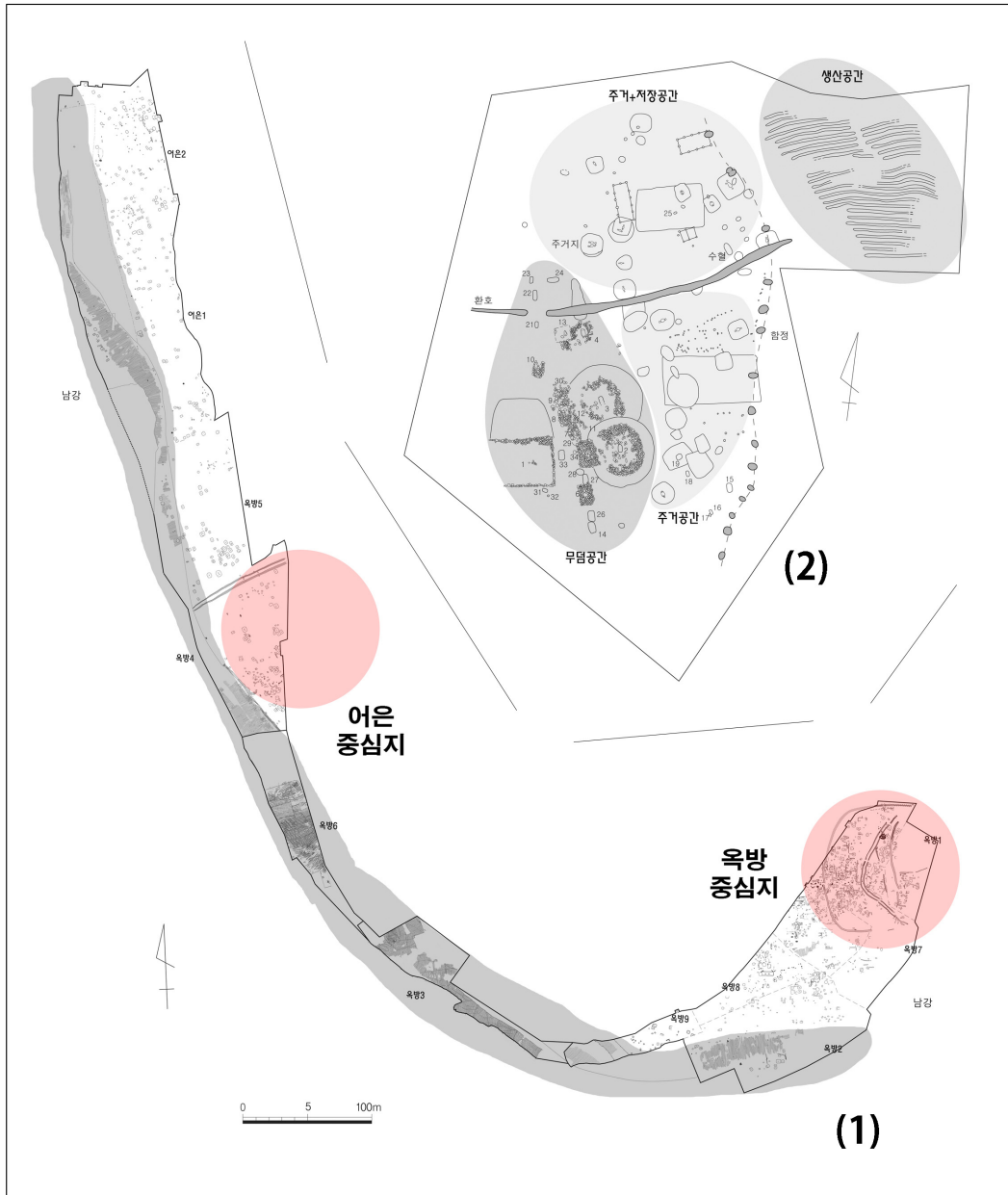
적지에는 모두 대규모 복합취락유적이 형성되어 대규모의 곡물 생산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각 군집들은 남강의 본류와 지류를 통해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거리 상으로도 가깝다. 따라서 동시기의 유적일 경우는 상호 취락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들로서 상호교류도 활발했을 것으로 보인다.



도면 3.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유적 분포 및 지역군



도면 4. 진주 평거동유적 유구배치도(3지구, 4지구)



도면 5. (1) 진주 대평리유적 유구배치도, (2) 진주 가호동유적 유구배치도

- 전체적인 군집양상과 대규모 복합취락(대규모 경작지)들의 위치를 볼 때 곡물의 생산은 C군집에서 주로 이루어져 A군집, B군집, D군집으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유통경로는 주로 하천 경로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취락간의 네트워크는 하천을 매개체로 한 교통망의 구축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공업 생산품의 유통도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망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사회적 정황으로 볼 때 취락간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아닌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 내지는 교역대상 관계라 여겨진다. 따라서 취락간의 사회적 분화양상은 다르지만 다양한 생산품을 통한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즉, 중심취락 내지 중심취락과 주변취락간의 교류나 주변취락간의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양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 중 식량생산을 담당하는 취락과 위세품을 생산하는 취락은 다른 취락에 비해 높은 기술력과 부를 바탕으로 우위적 지위를 가지고 중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잉여생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수공업 생산품에 비해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지만, 대규모 경작지나 저장시설, 곡물유체 분석 등을 통해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편이나 농경관련 유구의 조사가 증가하고, 곡물유체 분석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를 통한 잉여생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IV. 맺음말

이 글은 남강유역의 취락을 대상으로 청동기시대 곡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먼저 남강유역에 분포하는 취락현황을 취락의 구성요소에 따라 정리하여, 취락구조를 검토하였다. 취락은 크게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으로 구분되며, 중심취락은 대규모 복합취락의 형태로, 주변취락은 소규모 복합취락이나 전문기능 취락(의례중심 취락, 무덤중심 취락 등)의 형태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취락간의 위계화나 네트워크 관계를 살펴보았다. 경작유구 검토를 통해서도 논유구와 밭유구의 특징을 살펴보고 곡물생산 유구로서의 기능과 남강유역에서 경작유적의 추가 분포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곡물의 생산은 대규모 취락이 축적지를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경작지도 같이 확대되었고 이와 더불어 경작기술도 발전하였다. 대규모 경작지의 조성은 곡물의 대량생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잉여생산물을 발생시킨다. 이는 중심취락과 주변취락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시켜 소비하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남강유역의 하천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생산지와 소비지의 관계는 발굴조사된 취락과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을 함께 검토하여 남강유역의 전체적인 군집양상을 설정하여 곡물의 생산과 유통관계를 설명하였다. 남강유역은 크게 4개의 군집이 설정되며, 이 중 남강의 중·하류에 위치한 C군집에 대형취락(대규모 복합취락)이 주로 분포한다. 따라서 이 지역을 곡물 생산지로 파악하고 나머지 지역으로 유통하는 것으로 보았다. 소비

되는 취락은 대부분 주변취락들이다. 전체적인 자료는 부족하지만 남강유역은 취락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곡물도 일정한 시스템(생산-유통-소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남강유역은 청동기시대의 많은 취락이 분포할 뿐만 아니라 경작유적이 많이 조사되어 청동기시대 곡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일 단면을 파악하기에는 좋은 연구대상지역이다.

하지만 처음의 생각했던 것만큼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경작유적은 한정된 지역에서만 조사되었으며, 곡물의 생산과 소비를 검토할 기본 자료인 곡물의 시료분석도 많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한정된 경작유구와 곡물자료를 가지고 남강유역 전체를 검토하다 보니 많은 오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점에 대해서는 모두 필자의 잘못이며, 차후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민정, 2003, 『南江流域 無文土器文化의 變遷』,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5, 「무문토기시대 횡침선문 적색마연토기 고찰」 『咸安 鳳城里遺蹟』,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 _____, 2010,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구조와 성격」 『嶺南考古學』 54, 영남고고학회.
- Ko Min jung · Martin T. Bale, 2007, 「Specialized Craft Production in the Middle Mumun Pottery Period of South-Central Korea」 『아시아의 지역문화와 문화교류』, 전남대학교 출판부.
- 고민정 · Martin T. Bale, 2008, 「청동기시대 후기 수공업 생산과 사회 분화」 『韓國青銅器學報』 2.
- 김진혁, 2009, 「쌀밥의 문화적 의미 변화-대변 무수동(無愁洞) 사례를 중심으로-」 『농업사연구』 제8권 1호, 한국농업사학회.
- 배덕환, 2009, 『嶺南 南部地域 青銅器時代 住居址 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 안승모, 2013a, 「식물유체로 본 시대별 작물조성의 변천」 『농업의 고고학』, (주)사회평론.
- 안승모, 2013b, 「부록1」 『농업의 고고학』, (주)사회평론.
- 윤성재, 2009, 『고려시대 식품의 생산과 소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호필, 2005, 「沖積地形에 입지한 유적 조사법 및 분석방법」 『발굴사례 · 연구논문집』 제2집, 한국문화재조사연구전문기관협회.
- _____, 2010, 「농경으로 본 청동기시대의 사회」 『경남연구』 제3집,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_____, 2013, 「경작유구를 통해 경지이용방식의 변천 연구」 『농업의 고고학』 (주)사회평론
- 이상길, 2000a, 「南江流域의 農耕-大坪地域 밭을 中心으로-」 『南江 南江遺蹟과 古代日本-고대한일 문화교류의 제양상』, 경상남도 · 인제대학교가야문화연구소
- _____, 2000b, 「青銅器時代 儀禮에 관한 考古學的 研究」, 대구효성기독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상길 · 이경아, 1998, 「大坪 漁隱1地區 遺蹟과 植物遺體」 『南江댐 水沒地區의 發掘成果』, 제7회

영남고고학대회 발표요지.

이용조, 1975, 「양평 양덕리 고인돌 발굴보고」 『韓國史研究』 11.

이홍중, 1997, 「韓國 古代의 生業과 食生活」 『한국고대사연구』 12.

이형원, 2009, 「韓國 靑銅器時代의 聚落構造와 社會組織」, 忠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최셋별, 2013,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 연구』,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庄田愼矢, 2007, 「南韓 靑銅器時代의 生産活動과 社會」, 忠南大學校大學院 考古學科 考古學專攻 博士學位論文.

- 발굴조사보고서는 생략함.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석기생산 시스템 연구

황 창 한
울산문화재연구원

〈목 차〉

I. 머리말	1. 전기의 석기생산 시스템
II. 석기생산에 대한 연구약사	2. 후기의 석기생산 시스템
III. 석기생산 취락의 설정 및 유형	3. 대구지역 석기제작 전문집단의 성립
1. 석기생산 취락의 설정	VI. 석기의 제작과 유통
2. 석기생산 취락의 유형	1. 석제의 산지 및 조달
IV. 유적의 검토	2. 고령일대의 석기제작관련 유적
1. 지역권 설정	3. 석기의 제작과정 검토
2. 유적의 검토	4. 석기의 유통
V. 석기제작 전문취락의 성립과 전개	VII. 맺음말

I. 머리말

청동기시대 석기에 대한 연구는 관련 자료와 연구자가 증가되면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기존의 석기연구가 토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편년, 계통연구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면 최근의 연구기류는 제작기술, 산지추정, 생업의 형태, 생산시스템, 유통, 교류 등 청동기시대 사회시스템 복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본고의 목적은 대구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취락의 석기생산 시스템에 대한 검토이다. 대구지역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자연 지리적으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후기까지 연속적인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양호한 취락유적과 더불어 석기생산과 관련된 다수의 유적이 조사되어 검토대상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은 석기생산취락의 설정 및 유형에 대해 기존의 연구성과를 참조하여 제시하고, 대구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석기제작관련 취락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통해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후기로의 이행과정에서 석기생산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 석기생산 전문취락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검토대상 유물은 혼펠스제 석기를 중심으로 하고 마제석검의 분석을 통해 생산과 유통에 대한 모델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석기생산에 대한 연구약사

석기생산과 관련한 기존의 견해는 석기를 검토하면서 전문제작집단에 대한 가능성 등 단편적으로 추정하여 언급한 사항은 제외하고 2000년대 이후에 유적과 유물의 분석을 통해 연구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인학(2010)은 호서지역과 영서지역의 유적 중에서 석기가 100점 이상 출토된 유적을 대상으로 취락 내 석기의 제작양상을 검토하였다. 그는 석기제작과 관련한 가공구의 출토 유무와 유구 내 석기 제작 흔적의 잔존 여부 등을 근거로 취락 내 석기제작 양상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폈다. 석기생산과 관련한 주거지에 대한 판별은 제작관련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 석기 가공구와 미제품이 세트 관계를 이루어 출토되는 경우, 석기 가공구는 출토되지 않고 석기 부산물이나 미제품 등만 확인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반면 지식의 경우는 마제석기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출토된 경우에는 간단한 석기의 수리나 재가공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석기생산 주거지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석기의 제작양상은 구릉과 충적지가 각각 다르게 확인되며, 다른 취락으로 공급할 정도의 석기제작 취락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손준호(2010)는 석기생산과 관련된 최근의 발굴자료를 중심으로 원재료의 채취부터 취락 내 제작과정, 취락간 제작 양상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청동기시대 석기 제작 체계의 종합적인 복원을 시도하였다. 분석대상 취락은 비교적 대단위 취락 가운데, 석기의 제작과 관련된 시설이 조사되거나 가공도구, 부산물, 미제품 등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한정하였다. 분석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인학(2010)의 연구를 토대로 석기 제작 부산물인 박편을 주목하여 순수 박편이 5점 이상 출토되었을 경우와, 지석이 단독으로 출토되는 경우에도 비교적 거친 입자의 지석이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기준을 확대하여 검토대상에 포함시켰다. 검토 결과로서 전기에는 취락 내 소비를 목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며, 일부 다른 취락과의 교역을 위한 생산 유적의 존재를 상정하였다. 후기에는 소수의 자가소비 취락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검토 대상 유적에서 취락 내 소비량을 넘어서는 생산, 즉 교역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이 확인되며 이러한 유적들을 석기제작 전문취락이라 설정하고 그 성격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반전업적 전문 제작집단으로 상정하였다.

홍주희(2009)는 북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석기제작시스템의 확립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는 청동기시대 전기 중·후엽 주거지의 내부구조 변화와 공방지의 출현이 석기의 제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석재는 산지로부터 입수하여 보관·선별·분할·분배는 공방지에서 공동작업을 통하고, 분배된 석재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석기의 세

부 제작공정은 개별주거지에서 행해지는 석기제작시스템의 확립과정을 제시하였다. 즉 석기 제작시스템의 확립은 취락 내 독립적인 공방지의 출현과 관련이 깊으며, 전문 생산체제로의 발전과정에서 과도기로서 농경 위주보다는 다양한 생계활동을 기반으로 삼아 계급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유적을 검토하여 공방지를 설정한 것과 이를 근거로 석기제작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신선하다. 다만 공방으로서 제시한 이색점토구역이 과연 석기제작과 관련한 공방으로서 어떤 관계가 있는 시설인지 혹은 방습 등 취락의 구조와 더욱 관련이 높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며, 석재의 공동관리와 분배 등에 관한 견해도 어느 정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장용준·平郡達哉(2009)는 유절병식마제석검의 검토를 통해 매장의례의 공유를 검토하였는데 석검의 형태적 유사성을 들어 숙련된 제작자, 기술적인 표준이나 설계도가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일부 유물의 경우는 실제 동일한 사람이 제작해서 유통시켰음을 확신하고 있다. 즉 유절병식석검은 석기자체를 거점지역에서 제작한 후 유통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함을 추정하고, 석검의 제작활동이나 공인의 이동이 사회 내부의 통제 혹은 관리를 받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하였다. 석검의 제작지로서는 제작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구의 부재로 구체적인 지역을 설정하는 것은 유보적인 입장이며, 제작장과 같은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 정도 추정하였다.

황창한(2011)은 장용준·平郡達哉(2009)의 유절병식석검연구를 토대로 석검 재질의 특수성에 착안하여 제작지를 구체화 하였다. 먼저 이단병식석검의 석재는 이암, 편암 등 각지에서 석재를 조달하여 집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되지만, 유절병식석검부터는 재질이 혼펠스 일색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간취하여 제작지가 석재의 산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혼펠스는 경상분지 내에 폭넓게 분포하지만 그중에서도 석검을 제작할 수 있는 혼펠스 석재는 현재까지 고령의 의봉산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석검제작과 관련유적으로서 고령 의봉산 일대에서 확인된 봉평리 575-1유적, 대흥리 유적 등에서 확인된 대규모 석기제작장 유적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결론으로서 유절병식석검의 제작지는 고령과 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였다.

조대연·박서현(2013)은 중부지역 취락 출토자료를 중심으로 청동기시대 석기생산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석기생산 주거지의 존재 여부의 판단은 이인학, 손준호 등의 선행연구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그가 제시한 기준은 취락 내 석기생산 주거지의 유물상을 일반주거지의 유물상과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택하고, 특정 석기기종의 집중적 생산이 확인될 경우 이를 생산전문화의 지표로서 삼았다. 또한 홍주희(2009)가 제시한 이색점토구역이 있는 주거지의 경우도 이색점토구역과 작업공이 동시에 확인된 경우로 한정

하였다. 석기생산 주거지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점이 흥미롭다. 분석결과로서 석기생산주거지가 후기에 높아지지 않아 석기생산 전문취락의 등장에 대한 기존의 견해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 각 유적별로 전문적으로 생산되는 기종이 등장함으로써 석기생산전문화의 징후가 이미 전기에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최근의 석기생산에 관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석기생산과 관련한 취락 또는 주거지의 설정에 있어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물론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연구자에 따라 분류안이 다르게 제시되는 것은 기존에 문제점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취락 내에서 석기제작과 관련된 뚜렷한 유구가 확인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과 취락 내에서 석기자료의 밀집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례가 없기 때문(손준호 2010)이다. 또한 석검과 같이 특수성이 인정되는 석기를 제외한 다른 기종의 사례를 통해 석기생산의 전문집단 또는 전업집단 등에 관해 논의되고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면 자가소비 단계를 넘어서는 것인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분석기준에 따라 결과의 양상도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석기생산과 관련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자료의 한계와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지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수용하여 논지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Ⅲ. 석기생산 취락의 설정 및 유형

1. 석기생산 취락의 설정

청동기시대 석기의 생산은 자가소비 단계에서 전문생산집단의 등장을 상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단위와 취락단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구단위의 석기생산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취락단위의 석기생산은 이보다 진전된 전문화 또는 전업화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가소비형 석기생산은 가구단위로 이루어지거나 취락내에서 석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가구 즉 전문장인의 가능성, 그리고 공동생산 분배방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양상을 유적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취락단위의 석기생산은 자가소비 외에 교류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석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석기생산과 관련한 취락의 설정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이다. 자가소비형과 전문생산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 논의된 석기생산과 관련한 일련의 논고에서도 그 기준과 정의가 모호한 점이 없지 않다. 사실 이러한 기준 설정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석기생산 취락, 주거지의 설정 기준은 앞으로 많은 논의와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양상은 유적이거나 유물을 기준으로 어느 선을 딱 그어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역시 석기생산 취락과 주거의 기준 설정에서 발생할 비판에 대해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선학들의 경우와는 가시적으로 차별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동의를 구할 수밖에 없다. 즉 고고학적 의미 부여에 불리한 측면이 다분하여 가시적인 기준으로 개념을 한정해 보는 것(배진성 2012)이 오히려 객관적일 수 있지 않을까.

본고에서 석기생산과 관련된 주거 단위의 확인은 타 주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석기제작과 관련한 흔적들이 확인되는 빈도에 따라 구분하고자 하는데 주거간의 상호비교를 통한 조대연·박서현(2013)의 견해를 수용하여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취락의 시기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취락 내에서 출토된 석기의 총량을 주거수로 나누어 주거지 1기당 석기보유량을 파악하고 취락간 비교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석기제작관련 전문취락의 설정은 취락간 비교와 입지, 제작장의 운영 등을 근거로 상정하고자 한다. 먼저 입지적인 면에서는 하천변의 선상지로서 취락 내에 하도가 발달하여 마연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곳이며, 석기제작장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제작관련 부산물이 타 유적에 비해 뚜렷이 차별되어 확인되는 경우를 석기생산 취락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2. 석기생산 취락의 유형

이론적으로 전문장인은 취락 내에서 석기제작과 관련된 유물의 빈도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고 취락간 석기생산관련 유물의 비교를 통해서 전문취락을 상정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상대적인 것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석기생산 취락의 유형은 자가소비형, 분업형, 반전업형, 전업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취락내 주거단위로서 자가소비형 주거, 분업형 주거, 반전업형 주거, 전업형 주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자가소비형 취락은 취락 내에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가구단위의 가구소비형, 취락내 장인생산형, 공동생산분배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업형 취락은 사회적 직업의 분업이라는 의미보다는 공정의 분업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즉 석기의 제작공정에서 1차 석재의 확보 및 형태 정형과 2차 정형, 3차 마연 완성 등의 공정이 취락 또는 주거간에 분리된 시스템을 말한다.

반전업형 취락은 취락 내 자가소비 단위의 반전업형 장인과 석기생산 전문취락으로서의

반전업형을 설정할 수 있다. 취락의 생계를 농경을 기반으로 하되 석기의 생산과 관련된 제 작품의 유통을 통해 생계의 비중이 분산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전업형 취락은 석기생산만으로 취락의 생계가 유지되는 형태를 뜻한다. 이러한 형태는 國 단계에 형성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기서는 유형으로서 제시해 두고자 한다.



도면 1.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분포(하진호 2013에서 전제)

IV. 유적의 검토

1. 지역권 설정

대구지역은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한 영남내륙의 중심지로 북쪽에는 팔공산, 남쪽에 대덕산과 비슬산, 동서로는 완만한 구릉지, 서남쪽으로는 개활지가 펼쳐져 있다. 전체적으로는 분지지형을 이루고 있는데, 신천이 도심을 가로질러 금호강과 합류하여 부산, 경남지역으로 흐르는 낙동강에 유입되고 있다. 본고에서 대구지역을 검토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 지역이 청동기시대취락이 전기에서 후기에 걸쳐 연속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시적으로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하진호2008)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구분지를 가로지르는 금호강과 기타 소지류에 의해 지역적 경계가 뚜렷해 권역을 분리해 검토하기에 유리하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지역에서 석기제작과 관련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각 유적에서 매우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하진호(2008)는 대구지역을 수계에 의해 진천천, 신천, 팔계천, 동화천유역으로 구분하고 주거지와 토기의 분석을 통해 취락을 검토한 바 있다. 본고의 지역권과 편년안은 이를 수용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2. 유적의 검토

1) 진천천유역권

진천천은 대구의 남서단에 위치하는데 동에서 서로 흘러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지류에 해당한다. 이 일대에서는 다수의 청동기시대 생활유적과 매장유구가 확인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조사된 지역은 월성동, 상인동, 대천동일대이다. 유적의 시기분포는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후기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진천천유역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의 생활유적이 확인되었다.

① 대천동 일대 유적

대천동 일대의 유적은 대구 대천동 511-2번지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9), 대천동 497-2번지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8) 등이 조사되었다.

대천동 511-2번지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6기, 석관묘 68기, 수혈 7기, 구상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본 유적과 인접해서 대천동 497-2번지유적, 대천동 413유적 등이 조사되었는데 동일한 유적으로 파악하여 살펴보겠다. 이 일대의 유적에서는 전기~후기에 걸쳐 형

성된 장방형, 방형, 원형주거지가 확인되었다. 대천동 511-2유적의 경우 16동의 주거지 중에서 11동에서 석기제작과 관련된 유물로 지석, 고석, 박편, 미완성석기 등이 출토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석기제작과 관련된 유물은 소략한 편이다. 또한 주거지 주변에서 확인된 구상유구, 수혈 유구에서도 석기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보이는 유물은 빈약하다.

표 1. 대천동 511-2유적

주거지		고석	지석	박편	연석	편인	석착	석촉	석촉 미완	석도	석재	석기보유 평균수량
가수	시기											
7	전	1	5	2	1	1	1	0	1	1	1	2.0
9	후		13	6	1	1	1	1				1.6

② 월성동·송현동 일대 유적

월성동 일대에서는 대구 월성동 585유적(영남대학교박물관 2007), 월성동 1275유적(영남대학교박물관 2006), 월성동 1261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7), 월성동 1363유적(대동문화재연구원 2008), 월성동 591유적(성림문화재연구원 2009), 월성동 498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9), 월성동 선사유적(경북대학교박물관 1991, 2000), 송현동 선사유적(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2002) 등이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석기제작과 관련된 주거지의 양상은 대천동 일대의 유적과 동일한 양상이다. 장방형 주거 취락으로 구성된 월성동 585유적에서는 3호 주거지에서 지석 6점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주거지에서는 한 점도 출토되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원형주거 취락으로 구성된 월성동 1363유적에서도 석기제작과 관련된 지석 등이 거의 출토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지석, 미완성석기 등이 출토되었으며 다른 취락에 비해 지석의 출토율이 높다.

또한 집석유구에서도 지석, 미완성편인석부, 박편 등이 무문토기와 함께 출토되었는데 석기를 제작한 후 폐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월성동 일대의 유적 주변에서 확인된 구상유구 등에서도 석기제작과 관련한 유물보다는 토기의 폐기 또는 의례로 볼 수 있는 상황만 확인되었다. 그런데 월성동 일대의 유적 가운데 석기제작과 관련된 유물이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된 유적은 전기에 해당하는 월성동 591유적, 월성동 498유적, 월성동선사유적, 송현동선사유적으로 동일 지역에 입지한다. 특히 월성동 498유적에서는 하도에서도 다수의 미완성석기류가 출토된 점이 특징이다.

유물의 구성으로 볼 때 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집단에서 석기를 제작하여 인접집단에 공급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만하다.

표 2. 월성동 1275유적

주거지		지석	박편	연석	편인 석부	합인 석부	석촉	석촉 미완	방추차	석도	옥	석재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5	전	4	1	1	3	1	0	0	1	0	0	1	2.4
12	후	6	5	0	0	0	1	1	1	1	1	1	1.4

표 3. 월성동 591유적

주거지		지석	박편	연석	편인 석부	석촉	석촉 미완	주상 파손	석도	방추차	환상 석부	석재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7	전	14	1	3	7	3	2	1	1	1	1	1	5.0

표 4. 송현동 선사유적

주거지		지석	미완성	연석	합인 석부	편인 석부	석촉	석촉 미완	석검	석도	환상 석부	방추차	원판형	대석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14	전	29	6	1	4	19	13	2	3	11	1	3	1	1	6.7

표 5. 월성동 476-2유적(월성동 선사유적)

주거지		지석	박편	미완성	연석	합인 석부	편인 석부	석촉 미완	주상 석부	석검	석도	방추차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5	전	18	2	5	1	3	8	15	1	3	2	2	12

표 6. 월성동 585유적

주거지		지석	편인 석부	석촉	석촉 미완	석검 미완	석창	석창 미완	석도	방추차	석재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5	전	6	2	2	3	1	1	1	2	1	1	4.0

표 7. 월성동 1363유적

주거지		지석	편인 석부	편인 미완	석촉 미완	석창 미완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5	후	1	1	1	2	1	12

표 8. 월성동 498유적

주거지		박편	연석	편인 석부	석촉	석검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6	후	2	1	2	1	1	1.2

표9. 월성동 498유적

유구	고석	지석	박편	합인 석부	연석	편인 미완	주상 석부	석촉	석촉 미완	석도	방추차	석검	부리형
1호 구										1	1		
3호 구				1									
6호 구			1										
7호 구			1										
하도유물군	3	1	8	5	1	9	3		1	1	1	2	1
하도집석1		3	1			3	1						
하도집석2		1	2				1						
하도1층	1	4	2			5	9	1				2	
하도자갈층					2	1	1						
하도2층		1		1?		7	3	1	1			3	
계	4	10	15	7	3	25	18	2	2	2	2	7	1

③ 상인동 일대 유적

상인동 일대에서도 다수의 청동기시대 유적이 확인되었는데 상인동 87번지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0), 상인동 119-20유적(대동문화재연구원 2011), 상인동 152-1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7), 상인동 171-1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상인동 123-1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7), 상인동 128-8유적(삼한문화재연구원 2010), 상인동 98-1유적(대동문화재연구원 2008) 등이 있다.

전체적인 석기의 출토양상은 대천동, 월성동 일대의 유적과 유사한 양상이다. 후기의 유적에 해당하는 상인동 87유적의 경우 전체 18동의 주거지에서 석기와 관련된 유물이 소량하고 제작과 관련된 유물도 거의 출토되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상인동 119-20유적의 경우도 늦은 시기에 해당하는 원형계 주거지에서 석기관련 유물이 빈약하고 전기의 장방형, 방형계 주거지에서 석기의 출토비율이 높으며, 제작관련 유물도 다수 확인되었다.

진천천유역의 석기제작 양상은 전반적으로 취락 내에서 개별 주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유통을 목적으로 할 만큼의 석기나 제작관련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진천천유역 내에서 취락간의 비교를 통해 본다면 월성동 498유적에서 석기제작관련 유물이 다른 취락에 비해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따라서 진천천일대의 취락내에서 월성동 498유적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유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10. 상인동 128-8유적

주거지		지석	박편	미완성	연석	합인 석부	편인 석부	주상 석부	석촉	석촉 미완	석검	석도	방추차	원판형	석구	석채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11	전	6	6	3	3	1	5	1	2	4	4	3	1	1	0	6	4.2
5	후		16	1	0	0	1	0	1	0	1	0	0	0	1		4.2

표 11. 상인동 119-20유적

주거지		지석	박편	연석	주상 석부	박편 석기	석촉	석촉 미완	편인 석부	환상 석부	석도	석창 미완	석검 실패	석채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5	전	6	1	3	7	5	3	1	4	3	3	1	2	1	8.0
5	후	2	3												1.0

표 12. 상인동 123-1유적

주거지		지석	박편	미완성	연석	합인 석부	편인 석부	석촉	석촉 미완	주상 석부	석검	석도	방추차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11	전	1	0	4	1	1	8	1	3	5	2	4	1	3.1
9	후		1	1								1	1	0.5

표 13. 상인동 98-1유적

주거지		지석	박편	미완성	연석	합인 석부	편인 석부	주상 석부	석촉	석촉 미완	석검	석도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8	전	4	9	1	2	2	6	2	0	2	1	1	3.8
3	후		1						1				0.7

표 14. 상인동 87유적

주거지		지석	박편	연석	주상미완	박편석기	석촉	석창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18	후	1	1	1	2	1	1	1	0.5

2) 신천유역권

① 대봉동 마을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6)

대봉동 유적에서는 35동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장방형이고 시기는 전기에 해당한다. 석기제작과 관련한 유물은 지석을 중심으로 미완성 석부류가 출토되었는데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고르게 분포하는 양상이다. 취락 내에서 확인된 수혈과 구상유구에서도 석기제작과 관련된 유물이 소량 출토되었는데 특히 4호 구상유구에서 집중도가 높다. 전체적으로 대봉동 유적의 석기제작은 주거 단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4호 구상유구는 석기제작이 이루어지거나 토기, 석기파손품 등을 폐기하는 장소로 추정된다.

대봉동마을유적은 진천천유역의 월성동일대의 유적과 유사한데 신천유역의 취락에 부분적으로 석기를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② 상동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2, 2004)

상동유적(수성초등학교 부지)에서는 20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대부분 방형주거지이다. 취락에 비해 완전한 석기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석기제작과 관련한 유물도 박편이 소량 출토되었을 뿐이다. 상동유적(우방아파트 부지)에서는 15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대부분 장방형 주거지이다. 수성초등학교 부지와 동일한 양상으로 전체적으로 석기의 출토량이 빈약하며 소량의 박편이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상동유적은 전체적으로 인접 집단에 비해 석기의 출토량이 빈약한 점이 특징이다.

신천유역권도 진천천유역과 동일한 양상인데 전기의 취락에서는 비교적 다수의 석기와 제작관련유물이 확인된 반면 후기의 취락에서는 극히 빈약한 편이다.

표 15. 대봉동 마을유적

주거지		고석	지석	박편	연석	합인미완	편인석부	석촉	석촉미완	주상미완	부리형	석도	석도미완	석검실패	원판석기	방추차	석구	석재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28	전	1	34	6	4	6	19	7	2	7	2	4	12	2	2	4	2	9	4.4
4	후		2	2	0	0	0	0	1	0	1	0	0	1	0	0	0	1	2.0

표 16. 대봉동 마을유적

유구	형태	지석	박편	연석	합인석부	편인미완	석촉	석촉미완	석도미완	석구	석재
4호 구		7	2	1	1	2	3	3	4	2	1

표 17. 상동유적(수성초등학교)

주거지		지석	박편	편인석부	석촉미완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6	전		5	2		1.2
14	후	1	10		1	0.9

표 18. 상동유적(우방아파트)

주거지		지석	박편	편인 석부	석촉	석촉 미완	주상 미완	부리형	석도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7	전	4	8	2	1		3			2.6
8	후		6			2		1	1	1.3

3) 팔계천유역권

① 매천동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10)

매천동유적은 팔계천의 남쪽 초입에 위치한다.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후기에 걸쳐 형성된 유적으로 중심 시기는 전기에 해당한다. 본 유적에서는 주거지와 하도에서 다수의 석기제작 관련 유물이 출토되었다. 석기제작은 하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합인석 부류, 이단병식석검 미완성품이 다수 확인된 점이 특징이다.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전기후반의 취락으로서 석기를 제작했던 전문집단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과도기적인 유적이라 평가될만하다.

② 동천동취락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2)

동천동취락유적은 경상북도의 최북단에서 대규모로 확인된 대표적인 송국리형 취락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유적에서 주거지는 모두 60동이 확인되었는데 이중 송국리형 주거지가 47동이며 나머지는 말각방형에 해당한다. 석기가 출토된 주거지는 17동을 제외한 43동이다. 대부분 미완성석기류와 지석 등이 출토되어 석기제작과 관련성이 확인된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청동기시대 하도 및 집석유구에서 타 집단과는 차별될 정도로 많은 양의 미완성 석기류 및 파손품, 박편, 지석 등이 출토되어 석기제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개별 주거지로 본다면 동시기 다른 유역의 집단과 주거지 1기당 석기보유량에서 압도적으로 차별되며, 하도, 집석 등에서 대규모로 석기제작의 흔적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취락 내에서 석기제작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동천동 취락은 석기생산 전문취락으로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동호동 일대 유적

동호동유적은 동천동취락유적의 상류에 위치하는데 북쪽으로 약 2km지점 일대에 분포한다. 발굴조사된 유적으로는 동호동 181번지 유적, 동호동 477유적, 동호동 451유적, 동호동

(대구체육고등학교 부지)유적 등이 있다. 동호동 일대의 유적에서는 전반적으로 소규모 취락만 확인되었고 수혈, 구상유구, 하도 등이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석기제작과 관련된 유물은 하도와 구상유구를 중심으로 확인되었다. 이 일대의 취락은 시기 및 입지적으로 볼 때 동천동취락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팔계천 일대의 청동기시대 취락을 종합하면, 팔계천 초입에 위치하는 전기후반의 매천동 유적을 중심으로 석기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후기에는 상류의 개활지로 확대되면서 동천동, 동호동 일대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석기제작과 관련된 유구로서 다수의 제작장이 확인되었으며, 하도에서 제작이 이루어졌다. 즉 동천동취락을 중심으로 석기제작 전문취락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19. 동천동 취락유적

주거지		지석	박편	미완 석기	편인 석부	석촉	석촉 미완	주상 미완	석착	부리형	석도	석검	방추차	석창	천공구	석재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60	후	37	274	44	9	16	7	3	4	1	2	4	2	1	3	20	7.1

표 20. 동천동 취락유적

호수	석제품	
	수량	특징
집수지2호	209	지석, 편인석부, 주상석부, 석촉, 석검, 부리형석기, 박편 등 다수
하도1층	307	지석, 편인석부, 주상석부, 석도, 석검, 석착, 박편 등 다수
하도2층	158	지석, 편인석부, 주상석부, 석도, 석검(유절병식), 박편 등 다수
문화층	148	지석, 편인석부, 석검, 석도, 주상석부, 박편, 선형석기 등 다수
계	822	

표 21. 동호동181유적

주거지		지석	박편	편인 석부	주상 석부	석검	방추차	석재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6	후	6	1	4	1	1	1	4	3.0

표 22. 동호동181유적

호수	출토석제품	
	수량	특징
A1호 구	7	미완성·파손품·박편
A2호 구	91	이단병식석검, 석부, 석도, 지석, 파손품, 미완성품 등 다수
계	98	

표 23. 동호동유적(대구체육고등학교)

호수	출토석제품	
	수량	특징
기층	10	미완성편인석부, 박리물들, 박편, 제작파손품 등
나층	20	지석, 미완성편인석부, 박리물들, 박편, 제작파손품 등
구1호	21	지석, 석촉, 석도, 미완성편인석부, 박리물들, 박편, 제작파손품 등
구2호	11	지석, 미완성편인석부, 박리물들, 박편, 제작파손품 등
구3호	26	지석, 미완성편인·주상석부, 석검실폐품?, 박리물들, 박편, 제작파손품 등
구3호 집석	19	지석, 박편, 박리물들 등
구3-1호	3	미완성박리제품, 박편 등 240
구7호1층	240	지석, 미완성편인·주상석부, 석검실폐품?, 박리물들, 박편, 제작파손품 등
구7호2층	17	석도, 석검, 석촉, 부리형석기

표 24. 동호동 477유적

호수	시대	출토석제품	
		수량	특징
구상2호	청동기	10	지석, 박편, 박리품들, 석검(이단병식) 등
하도2호	삼국?	37	지석, 박편, 박리품들 등

표25. 동호동 451-1유적

호수	시대	출토석제품	
		수량	특징
수혈2호	청동기	1	박편
수혈4호	청동기	2	박편
구상1호	청동기	23	박편, 석촉, 편인미완성 등
구상2호	청동기	5	박편

표 26. 매천동유적

주거지		지석	박편	미완 성품	연석	합인 석부	편인 석부	석촉	석촉 미완	주상 석부	부리형	석도	석검	방추차	석재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9	전	12	6	1	1	2	4	2	1	2	5	1	1	1	2	4.6
4	후	1	9	1					3							3.5

표 27. 매천동유적

유구	출토석제품	
	수량	특징
1호 수혈	4	박편
하도A구간	67	석촉, 석도, 환상석부, 편인석부, 합인석부, 주상석부 방추차, 부리형, 석검, 박편, 지석 등
하도B구간	53	
하도C구간	159	
하도D구간	91	
하도E구간	23	
하도F구간	1	석검신부편
하도 가	2	환상석부, 박편
하도 나	27	석촉, 석도, 환상석부, 편인석부, 합인석부, 주상석부 방추차, 부리형, 석검, 박편, 지석 등
하도 다	27	
하도 라	40	
1호 구상	1	지석
3호 구상	2	연석세트
계	497	

4) 동화천유역권

동화천유역에서 확인된 대규모 취락유적은 서변동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2, 2013)이 대표적이다. 본 유적에서는 주거지 48동을 비롯해 집석유구, 하도 등이 확인되었다. 석기제작과 관련된 유물은 주거지와 하도에서 출토되었는데 전기에 해당하는 팔계천유역의 매천동유적에 비해 소규모이며, 진천천유역의 월성동 일대의 유적과 유사한 양상으로 동화천일대의 동시기 유적에 일부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28. 서변동 취락유적

주거지 기수	시기	지석	박편	미완 석기	연석	합인 석부	편인 석부	석촉	석촉 미완	주상 미완	석창	부리형	석도	석검	방추차	성형 석기	환상 석부	석구	석재	석기보유 평균수량
		65	88	25	1	2	36	11	2	10	6	1	15	6	4	1	1	1	8	9.1
14	후	5	34	7	0	1	2	3	3	2	0	0	1	0	0	0	2	0	10	5.0
4	?	3	17	2	0	0	3													6.3

표29. 서변동 취락유적

호수	출토석제품	
	수량	특징
하도2호	2	
하도5호	66	지석, 방추차, 편인석부, 주상석부, 석촉, 합인석부, 석창 등

V. 석기제작 전문취락의 성립과 전개

앞장에서 대구지역을 수계에 따라 네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취락을 검토하였다. 본 장에서는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에서 석기의 생산시스템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동일 지역권 내에서 각 취락간의 비교를 통해 석기제작에 관한 문제에 접근하고, 전체적으로는 지역권의 비교를 통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전기의 석기생산 시스템

대구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전기유적의 분포는 진천유역과, 신천유역에 집중 분포하며 동화천유역과 팔계천유역은 상대적으로 분포가 떨어진다. 이 시기의 석기생산과 관련한 유물은 수혈 및 하도 등에서 부분적으로 출토되지만 대부분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점이 특징이다. 취락 내 개별 주거지별로 살펴보면 석기제작관련 도구 및 흔적인 지석, 박편, 미완성품 등이 출토된 주거지와 출토되지 않은 주거지로 구분되지만 특별히 석기의 제작관련 유물의 빈도가 높게 확인되거나 두드러지는 경향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각 수계에 형성된 취락간의 석기제작관련 유물의 출토상황을 대비해 살펴보면 다소 흥미로운 점이 간취된다. 비교적 대형취락을 중심으로 석기의 출토빈도와 제작관련 도구의 출토율이 높게 확인된다는 것인데, 진천천유역의 월성동일대의 유적, 신천유역의 대봉동마을유적, 동화천유역의 서변동 취락유적 등이다(표30 참조).

먼저 진천천유역의 취락 중에서 월성동 498유적에서는 원형주거 취락과 하도가 확인되었

다. 주거지에서는 석기제작과 관련된 유물이 거의 출토되지 않았지만 하도에서는 비교적 많은 석제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런데 하도 출토유물 중에서 석검이 7점 확인되었는데 1점만 유경식이고 나머지는 이단병식석검으로 청동기시대 후기로 편년되는 원형주거 취락과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하도와 동일 범주에 해당하는 월성동 591유적의 장방형 주거 집단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월성동 591유적에서는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지석과 미완성석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월성동일대의 취락에서 석기를 생산하여 진천천유역에 입지한 상인동, 대천동 일대의 취락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30. 유역별 주거1기당 석기 평균출토수량

유역명	유적명	주거1기당 석기 평균 출토수량	
		전기	후기
진천천유역	대천동511-2	2.0	1.6
	월성동585	4.0	
	월성동1363		1.2
	월성동1275	2.4	1.4
	월성동591	5.0	
	월성동선사	12.0	
	월성동498		1.2
	송현동선사	6.7	
	상인동123-1	3.1	0.5
	상인동87		0.5
	상인동119-20	8.0	1.0
	상인동98-1	3.8	0.7
상인동128-8	4.2	4.2	
신천천유역	대봉동마을	4.4	2.0
	상동(수성초)	1.2	0.9
	상동(우방)	2.6	1.3
팔계천유역	동천동취락		7.1
	동호동181		3.0
	매천동	4.6	3.5
동화천유역	서변동취락	9.1	5.0

신천천유역에서는 대봉동마을유적에서 석기제작과 관련된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다. 주거지에서는 지석과 박편이 출토된 비율은 약 50% 정도이며, 수혈과 구상유구에서도 지석과 박편, 미완성석기류가 출토되었다. 대봉동마을유적의 중심 시기는 전기 중엽~후엽으로 편년되는데 이 일대에서 동시대의 유적이 확인된다면 진천천유역의 월성동일대의 유적과 동일한 성격의 취락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상동유적(우방아파트부지)에서는 장방형주거지에서 석기제작관련 유물이 확인되었고, 후기의 방형과 원형주거지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은 방형주거 취락유적인 상동유적(수성초등학교부지)에서도 동일한 양

상으로 확인된다. 신천유역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대봉동마을유적보다 시기적으로 후행하는 후기의 유적에서 석기제작과 관련된 유물이 빈약한 점으로 볼 때 취락 내에서 부분적으로 석기제작이 이루어졌지만 인접한 다른 취락으로부터 석기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화천유역의 전기유적은 서변동취락유적이 대표적이다. 서변동취락유적은 전기의 장방형계 주거지와 후기의 방형, 원형주거군으로 구분되는데 취락의 중심은 전기에 해당한다. 전기에 해당하는 장방형계 주거지와 하도에서 다수의 석기제작관련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청동기시대 5호 하도에서 약 66점의 석기가 출토되어 하도를 중심으로 석기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거지와 하도의 전체적인 양상으로 볼 때 부분적으로 인근취락에 공급의 가능성은 있으나 석기를 전문으로 제작한 집단으로의 상정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전기의 취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팔계천유역의 매천동유적이다. 매천동유적에서는 전기의 취락 중에서 주거 1기당 석기의 평균출토량이 4.6점으로 높은 편이며, 하도를 석기제작에 적극 활용한 점이 타 지역의 전기유적에 비해 두드러진다. 하도에서 확인된 다수의 미완성품과 파손품, 지석, 박편 등 제작관련 유물의 빈도는 타 지역의 양상과는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차별된다. 유물 중에서 합인석부의 비중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 매천동유적의 편년은 전기에서도 늦은 단계에 해당하는 시기가 중심으로 팔계천유역에 석기제작 전문취락의 징후를 알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될 만하다.

2. 후기의 석기생산 시스템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후기의 취락은 방형계와 원형계 주거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네 개의 하천유역에서 모두 확인되지만 특히 팔계천유역의 동천동일대의 취락이 주목된다. 표30과 같이 팔계천유역의 동천동유적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곳의 유역에서 확인된 후기의 취락에서는 석기제작과 관련된 유물이 극히 빈약한 편으로 극명하게 대비된다. 동천동유적에서는 동시기 타 지역의 주거지 1기당 석기출토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된다. 석기의 제작양상은 하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이를 볼 때 대구지역의 청동기시대 후기의 석기제작은 팔계천유역의 동천동취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대구지역 후기의 취락에 유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동천동취락의 북쪽에서 확인된 동호동 일대의 유적에서도 석기제작과 관련된 유물이 다량 확인되었는데 동천동취락과 연장선상에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3. 대구지역 석기제작 전문집단의 성립

상기한 바와 같이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석기제작 시스템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취락 간, 유역간의 비교를 통해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전기의 석기제작은 기본적으로 각 취락 내에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제작하지만 인접한 취락 내에서도 다른 취락과 뚜렷이 구분되는 취락에서 부분적으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기후반에 팔계천유역의 매천동유적은 전기유적 중에서 석기제작장을 갖추고 하도를 중심으로 다수의 석기제작관련유물이 출토되어 석기제작 전문집단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후기의 석기제작 시스템은 각 유역 내에 위치하는 유적별로 뚜렷이 차별되지 않는 반면 팔계천 일대의 동천동유적을 중심으로 대규모석기제작이 이루어진 점이 부각된다. 즉 청동기시대 후기의 석기제작은 각 취락별로 소규모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동천동유적을 중심으로 팔계천일대의 취락에서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상정되어 동천동취락을 석기제작 전문집단으로서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천동 석기제작 전문취락의 배경은 동일한 유역의 하부에 위치한 매천동유적에서 발원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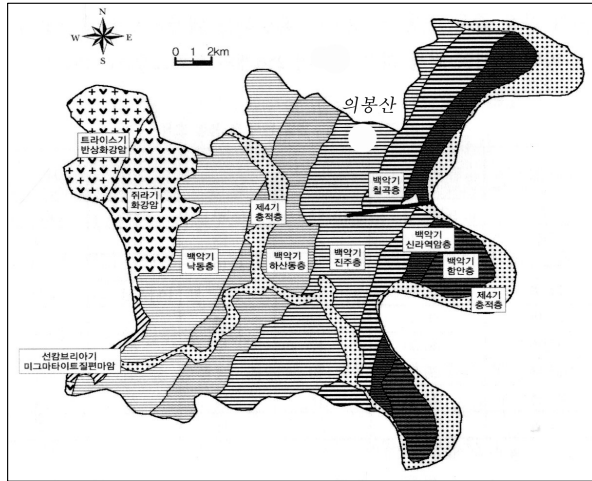
VI. 석기의 제작과 유통

1. 석재의 산지 및 조달

영남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석재유물은 기종별로 다양한 암질의 석재를 사용하여 제작된다. 이러한 석기는 각 지역마다 기종별로 특징적인 암석을 선택하여 제작되는데 이것은 석재와 유물간의 상관에 있어서 제작과 효율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암석사용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있다. 대구지역을 포함한 영남지역에서는 혼펠스라는 특징적인 암석이 석기의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데 그 분포권은 영남의 경상분지이다. 그런데 전고(황창한 20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기를 제작하기에 적합한 혼펠스의 분포는 한정된다. 특히 마제석검과 같이 장신의 석검을 제작할 수 있는 석재는 더욱 한정된다고 생각된다. 대구분지 내에서도 혼펠스산지가 일부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 자갈형태로 분포하고 모암에서 채취한 흔적도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앞으로 정밀한 지질자료의 축적을 필요로 한다. 유적에서 출토된 미완성석기를 관찰해 보면 원마도가 좋지 않은 각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모암에서 채취하거나 모암 근처에서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석기를 제작하는데 자갈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원마도가 좋은 자갈을 이용

했던 박편의 흔적은 확인하기 어렵다. 이점은 석기제작 초기단계부터 제작에 용이한 석재를 채택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전기 후반에서 후기의 석기제작 전문취락의 경우는 주변의 역석을 이용하는 것보다 양호한 석재산지를 개발하고 그곳으로부터 석재를 입수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석기를 제작하기에 양호한 혼펠스제 석재의 산지는 어디일까. 현재까지의 자료를 참조한다면 그 후보지로서 대구지역의 서쪽에 위치한 고령의 의봉산 일대로 비정할 수 있다. 의봉산의 혼펠스는 진주층을 흑운모화강암이 관입하면서 접촉변성작용을 받아 형성되었다. 석재의 산출 상태는 노두에서 테일러스(talus) 즉 崖錐를 형성하고 있어 혼펠스가 판상 또는 괴상으로 상부로부터 하부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다.



도면 2. 고령군의 지질과 의봉산(이보영 2008에서 수정)

이러한 혼펠스는 하천을 따라 2~4km 범위에서 석재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석기를 제작할 수 있는 양호한 석재만 확인되었다고 단순히 그곳을 석재 산지로서 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석재산지와 더불어 석기를 제작했던 다양한 흔적들이 확인되어야 석재산지로서의 가능성을 뒷받침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고령 의봉산 일대에는 석재 혼펠스석재의 산지는 물론 이와 관련된 다수의 석기제작관련 유적이 확인된 바 있는데 이 유적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2. 고령일대의 석기제작관련 유적

고령에서 석기제작과 관련된 대규모 제작장으로 추정되는 봉평리 일대의 유적이 최초로 확인된 것은 신종환(2008)에 의해서이다. 고령 봉평리 575-1유적(대동문화재연구원 2012)은 일부가 발굴조사되어 그 실체가 어느 정도 확인된 바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석기제작장 규모로서는 최대이다. 유적은 의봉산의 남서쪽에 위치한 고령천의 북쪽 충적지 일대로 하천에 의해 인근까지 의봉산의 혼펠스가 각재로 분포한다. 즉 석재의 취득이 용이하여 석기제작장으로서 최적의 입지라고 할만하다.

이외에 고령대흥리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쾌빈리유적(대경문화재연구원 2009),

고령 봉평리 601-3유적(대동문화재연구원 2011), 고령 어곡리 225-2유적(대동문화재연구원 (2009) 등에서도 석기의 제작과 관련된 다수의 미완성품 및 박편이 출토되어 의봉산 주변에서 석기제작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봉산 일대에서 확인된 상기의 유적들은 청동기시대 후기의 유적으로 대구지역의 동천동 일대의 석기생산취락의 시기와 궤를 같이한다.



도면 3. 고령일대 석기제작 관련유적

3. 석기의 제작과정 검토

이상의 검토를 통해 대구지역에서 형성된 청동기시대 전기후반에서 후기의 석기생산 전문 취락의 등장과 고령지역의 혼펠스산지와 관련이 있을 것임을 추정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석재의 입수에 관한 형태는 어떻게 전개된 것인지 간략히 검토해 보겠다.

팔계천 일대의 석기제작 유적에서 확인된 박편과 고령일대에서 확인된 박편 양상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확인된다. 먼저 고령의 대표적인 석기제작장 유적인 봉평리 575-1유적의 박편을 살펴보면 원석으로부터 큰떼기와 잔떼기를 통해 형태를 정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박편의 크기도 큰 것

부터 작은 것까지 다양하게 산출된다. 즉 석기제작 단계의 1차 정형단계의 유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팔계천 일대의 동천동취락의 경우 하도에서 다수의 박편이 출토되었지만 1차 가공까지 전적으로 행해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석기 제작실험 결과 도면4와같이 한 개의 석기를 제작하는데도 다수의 박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천동취락의 경우 다수 출토된 미완성품으로 본다면 박편의 수량은 극히 미약한 편이다.



도면 4. 석기제작실험 후 박편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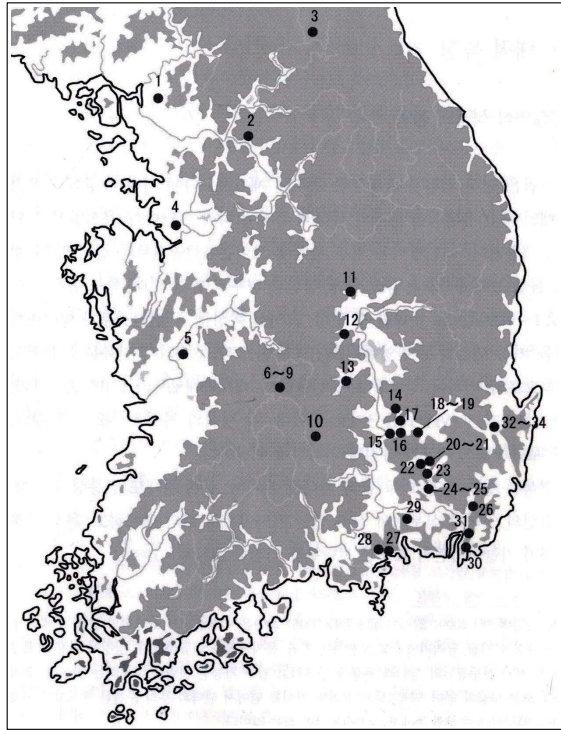
따라서 1차 정형은 산지주변에서 행한 후 취락 내에서는 2차 정형단계인 고타 및 마연을 통해 완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고령에서 확인된 다수의 석기 제작 관련유적은 주로 1차 가공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상정할 수 있는데 고타흔이 잔존하는 미완성품과 지석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도 이러한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생각된다. 그런데 1차 정형단계를 팔계천유역의 석기제작 집단에서 직접 산지주변으로 와서 행한 것인지, 고령일대의 취락에서 정형하여 공급한 것인지는 현재로서 불분명하지만 대구권과 고령권의 집단이 석기제작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자료가 증가됨에 따라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4. 석기의 유통

마제석기의 유통은 소형 석기류로 판단하기보다 석검과 같이 특수한 용도의 석기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 이유는 소형의 석기류를 제작할 수 있는 석재산지를 특정하는 것보다 장신의 마제석검을 제작할 수 있는 석재의 산지를 특정하는 것이 더욱 신빙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마제석검의 다양한 형식 중에서 혼펠스로 제작되기 시작하는 것은 유절병식석검부터이다. 이 석검은 전기의 이단병식석검에 비해 길이가 길어지고 제작하기 어려운 혼펠스제로 제작되어 고령 일대의 혼펠스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음을 추정할 바 있다(황창한 2011). 유절병식석검의 분포는 도면5와 같은데 그 중심은 대구와 고령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절병식석검의 분포권을 따라 기타 혼펠스제 석기의 유통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싶다.

혼펠스제 석검은 유절병식석검단계 이후의 일단병식석검 단계에 더욱 폭넓게 확산되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한 유물의 검토를 통해 앞으로의 과제로 삼겠다.



1과주옥석리 2양평상자포리 3양구송우리 4평택도진리 5부여가중리 6~9진안여의곡 10거창대야리 11문경서중리 12김천삼거동 13상주청리 I 14대구침산동 15대구천내리 16대구월성동585 17대구상인동 18·19대구시지동 I 20·21청도진라리 22청도송서동 23전청도 24·25밀양가인리 26양산소토리 27마산다구리 28마산신촌리 29창원화양리 30부산대신정 31부산사직동 32~34전경주

도면 5. 유절병식석검의 분포
(張龍俊·平郡達哉, 2009에서 전제)

VII. 맺음말

이상으로 대구지역의 청동기시대 취락의 검토를 통해 전기에서 후기의 석기제작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취락내에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석기를 제작하지만 인접한 취락 중에서도 석기출토 및 제작관련 유물이 집중된 상황으로 볼

때 부분적으로 석기유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석기제작과 관련된 전문취락의 징후는 전기후반에 팔계천일대의 매천동유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팔계천 일대에서는 전기의 매천동취락이 발전하여 상류의 동천동취락으로 거점을 이동하면서 석기 제작 전문취락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집단의 성격은 손준호(2010)가 제시한 바와 같이 반전업적 전문집단의 성격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석기제작 전문취락의 석재는 고령의 의봉산 일대에서 애추 형태로 산출되는 혼펠스를 사용하였음을 관련유적의 검토로서 제시하였으며, 석기의 유통에 관해서는 유절병식석검의 분포 범위와 궤를 같이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본고에서 세밀하게 다루지 못한 유물별 제작과 유통과정, 석기제작 전문취락과 기타 취락 간의 관계 등 종합적인 부분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慶北大學校博物館 外, 2000, 『辰泉洞·月城洞 先史遺蹟』.
- 慶北大學校博物館, 1991, 『大邱 月城洞 先史遺蹟』.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2, 『上洞遺蹟發掘調査報告書-우방아파트건립부지』.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上洞遺蹟發掘調査報告書-수성초등학교부지』.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6, 『大邱 大鳳洞 마을遺蹟』.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高靈 大興里遺蹟』.
- 대경문화재연구원, 2009, 『高靈 快賓里遺蹟』.
- 大東文化財研究院, 2008, 『大邱 上仁洞 98-1遺蹟』.
- 大東文化財研究院, 2008, 『大邱 月城洞 1363遺蹟』.
- 大東文化財研究院, 2009, 『高靈 於谷里 225-2遺蹟』.
- 大東文化財研究院, 2011, 『高靈 鳳坪里 601-3遺蹟』.
- 大東文化財研究院, 2011, 『大邱 上仁洞 119-20遺蹟』.
- 大東文化財研究院, 2012, 『高靈 鳳坪里 575-1遺蹟』.
-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2002, 『大邱 松峴洞 先史遺蹟』.
- 裴眞晨, 2012, 「可樂洞式土器의 初現과 系統」, 『考古廣場』 11, 부산고고학연구회.
- 삼한문화재연구원, 2010, 『大邱 上仁洞 128-8番地遺蹟』.
- 聖林文化財研究院, 2009, 『大邱 月城洞 591番地遺蹟』.
- 손준호, 2010, 「청동기시대 석기생산 체계에 대한 초보적 검토」, 『湖南考古學報』 36, 湖南考古學會.
- 신중환, 2008, 「선사시대의 고령」, 『고령문화사대계1』,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 嶺南大學校博物館, 2006, 『大邱 月城洞 1275遺蹟』 .
- 嶺南大學校博物館, 2007, 『大邱 月城洞 585遺蹟』 .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2, 『大邱 東川洞遺蹟』 .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2, 『大邱 西邊洞 聚落遺蹟 I』 .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3, 『大邱 東湖洞遺蹟』 .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5, 『大邱 東湖洞 477番地遺蹟』 .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6, 『大邱 上仁洞 171-1番地遺蹟』 .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7, 『大邱 東湖洞 451-1遺蹟』 .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7, 『大邱 上仁洞 123-1番地遺蹟』 .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7, 『大邱 上仁洞 152-1番地遺蹟』 .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7, 『大邱 月城洞 1261番地遺蹟』 .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8, 『大邱 大泉洞 497-2番地遺蹟』 .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8, 『大邱 上仁洞 87番地遺蹟』 .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9, 『大邱 大泉洞 511-2番地遺蹟 I』 .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9, 『大邱 大泉洞 511-2番地遺蹟 II』 .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9, 『大邱 月城洞 498番地遺蹟』 .
- 嶺南文化財研究院, 2010, 『大邱 梅川洞遺蹟』 .
- 嶺南文化財研究院, 2012, 『大邱 東湖洞 181番地遺蹟』 .
- 嶺南文化財研究院, 2013, 『大邱 西邊洞 聚落遺蹟 II』 .
- 이보영, 2008, 「고령군의 지리적 환경」, 『고령문화사대계1』,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 이인학, 2010, 『청동기시대취락내 석기제작양상검토』,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張龍俊·平郡達哉, 2009, 「有節柄式 石劍으로 본 無文土器時代 埋葬儀禮의 共有」, 『한국고고학보』 72, 한국고고학회.
- 趙大衍·朴書賢, 2013, 「청동기시대 석기생산에 대한 일 고찰」, 『湖西考古學』 28, 호서고고학회.
- 河眞鎬, 2008, 『大邱地域 靑銅器時代 聚落 研究』, 慶北大學校 文學碩士學位論文.
- 하진호, 2013,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편년」, 『한국청동기시대편년』, 서경문화사.
- 洪周希, 2009, 「북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전개와 석기제작시스템의 확립」, 『韓國靑銅器學報』 5, 韓國靑銅器學會.
- 황창환, 2011, 「청동기시대 혼펠스제 마제석검의 산지추정」, 『考古廣場』 9, 釜山考古學研究會.

도
문



「유물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북한강유역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토론문

손 준 호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이 글의 발표자인 홍주희(2009) 선생님은 이미 청동기시대 북한강유역의 취락 자료를 검토하여 석기 생산 시스템의 복원을 시도한 바 있다. 본 발표문은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토기, 청동기, 옥 등 목기를 제외한 도구 전반의 생산과 소비 문제를 상세히 다루어 논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해당 지역 자료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여 적절한 토론을 이끌어 내기에는 역량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도구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는 필자 또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나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한다. 부디 어리석은 질문이라도(愚問), 현명하게 답해주시면(賢答) 감사하겠다.

1. 토기의 생산

전국적으로 보아도 몇몇 유적을 제외하면 토기 제작 관련 시설의 확인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토기의 생산을 이야기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토기에 남겨진 소성 흔적을 관찰하는 방법이 庄田 愼矢(2006)에 의하여 시도된 바 있다. 그는 청동기시대 전기의 개방형 야외소성에서 후기의 덮개형 야외소성으로 소성 기법의 변화를 상정하였으며, 그 배경으로 논농사의 보급에 의한 쟁 활용의 확대를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강유역에서 토기 소성 유구가 잘 확인되지 않는 현상을 소성 흔적이 남지 않는 개방형 야외소성 기법의 적극적인 채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또 그 원인으로 이 지역에 논농사의 보급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음을 지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발표자는 예전에 단편적이거나 용암리 유적 출토 무문토기에 대한 소성흔 관찰 결과를 제시한 바 있는데(홍주희 2007, 528쪽), 구

체적인 내용의 언급과 함께 혹시 다른 유적 자료에 대한 추가 분석 시도가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알려주기 바란다.

2. 저부 투공 토기

발표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저부 투공 토기의 용도를 시루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朴敬信 2005, 68-71쪽; 李亨源 2007, 175쪽). 오히려 투공 토기의 관찰 결과 직접 불을 맞은 흔적이 확인되어 시루로서의 사용을 부정하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쇼다신야 2008, 43쪽). 물론 이는 토기의 용도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지만(손준호·최인건 2012, 51쪽), 아무튼 아직까지 저부 투공 토기의 용도를 시루로 한정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여러 가지 고고학적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 성과에 의하면, 청동기시대에는 곡물을 찌서 먹는 방식이 그다지 보편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金度憲 2011, 52쪽). 그런데 발표문에는 마치 북한강유역에서만 특별히 찌는 조리 방식이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기술하면서, 이를 중기 후반 저부 투공 토기의 소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청동기시대에 찌는 조리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해당 토기의 소멸 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

3. 토기의 재사용과 재가공

발표자는 ‘재사용’을 본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 ‘재가공’은 다른 용도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상정하였다. 그런데 이 중 ‘재가공’을 용도와 관련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발표자의 개념 설정을 따르다면 파손된 유물을 다시 가공하여 동일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를 재가공이라고 표현할 수 없게 된다. ‘재가공’은 제작과 관련된 개념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는 ‘전용’이라는 적절한 용어가 존재한다. 한편, 발표자는 재가공과 관련하여 토기편 가운데 곡물이 커 토제품 제작이 용이한 부분을 공방에서 보관·제작하고, 원자재와 미완성품을 개별 주거로 분배하여 제작·완성하는 방식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토제품 제작에까지 이러한 공정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발표자가 제시한 재가공에 용이한 토기편이 유구에서 다수 출토되는 양상은 여러 유적에서 드물지 않게 관찰되며, 이는 대체로 보관 또는 사용된 대형 토기들이 파손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순한 대형 토기의 파손품과 발표자가 언급한 토기편 원자

재의 구분, 토기 재가공 공방의 인정 등이 가능한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논지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도구 사용 과정에서 불규칙적이지만 일상적으로 파손과 재가공, 재사용이나 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4. 석기 생산의 획기

발표자는 공방이 출현하는 전기 후반을 석기 생산의 획기로 상정하였다. 물론 주거 내 제작 공간의 외부 분리 현상에도 나름대로 큰 의미가 반영되어 있겠지만, 보다 뚜렷한 획기는 소위 ‘천전리식 주거지’가 취락의 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후기 단계가 아닐까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천전리식 주거지의 내부에는 석기 제작 관련 시설로 이색점토구역과 작업공 등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후기에는 공방은 물론이고 취락의 거의 모든 주거에서 석기 제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생활 유구는 기본적으로 점유 당시의 고고학적 맥락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물보다는 유구의 급격한 변화를 획기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구나 해당 유구의 변화가 석기 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석기 생산에 있어서 이보다 분명한 획기의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편, 석촉·석부·석좌 등의 주요 석기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생산되는 석기의 기종도 주요 석기에 집중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다수의 유구에서 출토된 자료를 모으면 당연히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해당 석기들을 주요 기종이라 부르는 이 유가 평균적으로 출토량이 다수를 차지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기의 생산이 주요 기종에 집중되었다고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특정 기종에 대한 집중 생산인지 아니면 주요 기종 전반에 걸친 생산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근에 그 결과가 제시된 바와 같이 유구 성격별 출토량 비교와 함께 유적별 출토량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趙大衍·朴書賢 2013, 26-27쪽).

5. 석기의 제작 방식

석기의 제작과 관련된 용어 사용에 있어서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벗어나는 개념이 확인된다. 먼저 고타는 석기를 대석에 대고 위에서 반복적으로 타격하거나 직접적으로 고타구로 두드려 깨는 방법으로, 마연에 걸리는 가공 시간을 줄이고 석기 전면을 고르게 갈기 위한 작업을 일컫는다(장용준 2007, 17-19쪽). 따라서 발표문에 제시된 조기의 석기 조정

방식은 타격 기법이라 할 수 있으며, 중·후기의 양상만이 고타 기법에 해당한다. 결국 양시기 제작 기법의 비교는 제작 공정상 서로 다른 단계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일반적으로 타격 이후 최종 마연 직전에 고타가 행하여지는 점을 볼 때, 조기와 중·후기 모두 타격 기법과 고타 기법이 함께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석축의 분할 방식에 대한 용어 사용에도 문제가 있다. 아마도 판상의 석재를 일정하게 분할·제작하는 방식은 찰절 기법, 간접 타격 방식은 양극기법을 활용한 선형석기 제작 기법을 의미하는 것 같다(黃昌漢·金賢植 2006, 305-306쪽; 黃昌漢 2009, 37쪽). 발표문에서는 후자의 기법이 적극적으로 채용된 이유를 제작 시간 단축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작 기법이 이미 구석기시대부터 존재하는 점과 주로 능형축 제작에 이용되었음을 감안할 때 석축 형식의 변화에 맞추어 적절한 제작 기술이 활용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6. 석기의 다기능성

석기 기능 추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발표자의 기존 연구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이다(홍주희 2011). 필자 또한 대부분의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견해의 수용이 석기의 기능 추정을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석기의 다기능성에 대한 문제는 연구자 대부분이 인지하는 것으로 특별히 새로운 지적은 아니다(이기성 2008, 32쪽). 석기는 기본적으로 다목적 이용이 가능하며, 실제로 출토 맥락이나 유물 자체의 관찰 결과에 의하여 이러한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다양한 기능을 모두 밝혀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또한 제작 의도에 반영된 주요 기능이 존재하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석기의 주요 기능에 입각한 여러 가지 해석도 충분히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기존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여 석기의 기능을 한두 가지로 한정하는 것은 해석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양한 기능 상정을 바탕으로 한 보다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7. 반 공동 생산·소비 체계

발표자가 상정한 ‘반 공동 생산·소비 체계’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청동기시대 사회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극단적인 공동 혹은 개인 단위의 활동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 공동 체계의 설정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데 발표문에는 옥이나 청동기와 같은 특수재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도구와 동일한 생산·소비 체계를 따른다고 보고 있어, 해당 체계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적어도 일상재와 특수재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개념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반전업적 생산’이라는 용어는 보다 구체적인 개념이 성립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미 옥이나 마제석검의 생산에 대하여 반전업적 전문 공인 집단의 존재가 상정된 바 있으며(고민정·Bale 2008, 102쪽), 상대적으로 제작이 쉬운 석도에 대해서는 왼손잡이용 삼각형석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제작 집단이 추정되기도 하였다(손준호·조진형 2006, 27쪽). 발표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증거들이 잘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반대되는 증거 역시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 자체를 무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참고문헌

- 고민정·Bale, Martin T., 2008, 「청동기시대 후기 수공업 생산과 사회 분화」 『韓國青銅器學報』 2.
- 金度憲, 2011, 「원사고대의 목제 절굿공이 검토」 『湖南考古學報』 38.
- 朴敬信, 2005, 「韓半島 先史 및 古代 炊事道具의 構成과 變化」 『선사고대의 생업경제』 제9회 복천 박물관 학술발표회.
- 손준호·조진형, 2006, 「고배울 현미경을 이용한 반월형석도의 사용흔 분석」 『야외고고학』 1.
- 손준호·최인건, 2012, 「무문토기 취사흔의 관찰과 해석」 『考古廣場』 11.
- 쇼다신야, 2008, 「青銅器時代 土器의 炊事 痕迹」 『炊事の 考古學』, 서경문화사.
- 이기성, 2008, 「일본 조몽·야요이 전환기의 석기 변화」 『韓國上古史學報』 59.
- 李亨源, 2007, 「盤松里 青銅器時代 聚落의 構造와 性格」 『華城 盤松里 青銅器時代 聚落』, 한신대학교 박물관.
- 장용준, 2007, 「先史時代 石器의 分別과 製作技法」 『考古廣場』 1.
- 趙大衍·朴書賢, 2013, 「청동기시대 석기 생산에 대한 일 고찰」 『湖西考古學』 28.
- 홍주희, 2007, 「出土遺物」 『龍岩里』, 江原文化財研究所.
- 洪周希, 2009, 「북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전개와 석기제작시스템의 확립」 『韓國青銅器學報』 5.
- 홍주희, 2011, 「청동기시대의 생활상과 석기의 기능영역」 『人類學考古學論叢』,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개설40주년 기념논총.
- 黃昌漢, 2009, 「青銅器時代 石器 製作의 兩極技法 研究」 『韓國上古史學報』 63.
- 黃昌漢·金賢植, 2006, 「船形石器에 대한 考察」 『石軒鄭澄元教授 停年退任記念論叢』, 釜山考古學研究會.
- 庄田愼矢, 2006, 「青銅器時代 土器燒成技法의 實證的 研究」 『湖南考古學報』 23.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구조와 농경생산”에 대한 토론문

이 형 원
한신대학교 박물관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구조와 농경생산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며, 토론자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듣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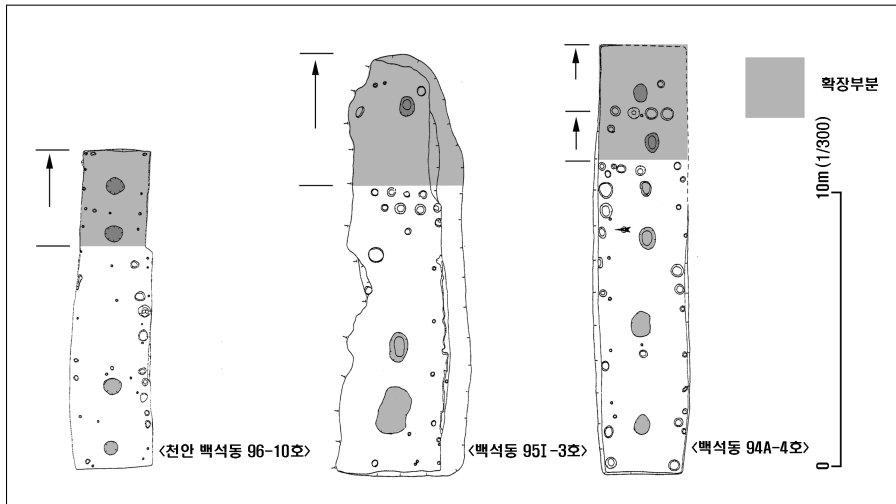
1. 청동기시대 전기 세장방형주거의 거주원 구성과 공간분할

발표자와 토론자를 비롯한 몇몇 연구자들은 (세)장방형 주거지에 복수의 爐址가 적절한 간격을 두고 共時的¹⁾으로 배치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를 확대가족적 성격의 世帶共同體가 남긴 주거 형태의 잔존물로 이해하고 있다²⁾. 즉 일정한 거리를 둔 노지를 경계로 하여 세대별로 分室된 세대공동체의 가옥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발표자도 지적한 바와 같은 가옥의 증축 양상이며 이 때 노의 증가를 수반한다(도면 1).

향후 가옥구조뿐만 아니라 취사용기 등 유물의 구성도 면밀히 검토해야만 한다. 그런데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 대형 주거지 가운데 노지가 한 개만 확인된 예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회적 위계나 경제력이 높은 단일 세대의 가옥이나 공공 시설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세대공동체 가옥으로 보아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유적별 주거 또는 주거군, 나아가 취락 내에서의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민족지 사례에서는 여러 세대가 한 가옥에 함께 거주할 경우 세대별로 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노만 있는 예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발표문에 제시된 아산 용화동유적 2지점 1호주거지(발표문 도면1-3)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1) 동일 주거의 복수 노 가운데 동시 공존이 아니라 시간차를 갖는 예가 많이 있다.

2) 이에 반해 기능적·젠더적 공간구분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도면 1. 청동기시대 전기 세장방형주거지의 증축 양상

2. 세대공동체주거인 세장방형주거의 근접 현상에 대한 해석

토론자는 복수의 주거가 모여 있는 장방형 住居群에 대해서 2동 조합의 일렬배치를 비롯한 병렬·직교배치나 3동 조합의 일렬배치나 삼각배치 등과 같은 정연한 근접 배치 관계를 보이는 2~3동의 주거군을 세대공동체로 파악하고 있다³⁾. 발표문에 제시된 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과 연기 보통리유적에서 이와 같은 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발표문 도면3-2·4). 그런데 발표자는 3기 내외의 주거로 구성된 전기 전엽이나 중엽의 취락은 세대공동체 주거 간의 거리가 상당히 이격되어 있는 데에 비해(발표문 도면 2), 전기 후엽이 되면 세장방형주거지가 근접하여 군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발표문 도면 3). 그렇다면 이 주거지들의 동시공존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듣고자 한다.

3. 전기 취락의 사회규모와 사회조직

발표자는 전기 가락동유형 취락의 규모와 구조를 3기 내외로 구성된 최소단위의 하위취락(25인 내외, 공주 제천리 등)→ 소규모 하위취락 4개가 결합된 중위취락(100인 내외, 연

3) 2동 조합의 경우 출입구쪽을 서로 마주하고 있거나 3동 조합인 삼각배치의 경우 광장쪽으로 출입구를 향하고 있는 경향성이 높다.

기 보통리 등) → 5개의 중위취락이 결합된 상위취락(500인 내외, 연기 송원리 등)으로 구분하고, 상위취락 내부는 개별 취락 단위가 수평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았다⁴⁾. 이에 반해 전기후엽의 역삼동·혼암리유형 취락은 수평적 결합은 사라지고, 구릉 정상부의 공지를 둘러싼 환상배치로 바뀌며, 공지와 초대형주거 그리고 중핵 주거군 등의 존재를 통해 종적인 체계로 전환된다고 한다.

토론자는 송국리유형 단계의 중기가 되면 주거·분묘·생산·저장·의례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보령 관창리유적에서 볼 수 있듯이 중심취락 내부의 상위취락과 일반취락 사이에 직접관계(종속관계)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이다⁵⁾. 여기에서는 일반취락(D·E·F지구)을 컨트롤하는 상위취락(B지구)의 존재와 이들 사이에 재분배경제 시스템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기의 전시기인 전기후반 단계부터 취락내 또는 취락간 위계관계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보는데, 발표자가 생각하고 있는 종적인 체계는 사회구조 또는 사회조직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보완 설명을 요청한다.

4. 전기 취락의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대규모 유적은 대규모 취락인가?

발표자는 연기 송원리유적이나 송담리유적, 그리고 천안 백석동유적과 같이 100기 이상의 주거지가 발굴된 대규모 유적을 대규모 취락이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면서 논지를 전개시켰다. 백석동유적의 경우는 화전농경에서 수도농경으로의 전환과 관련되며, 전기 취락 사회는 거점취락을 중심으로 소규모 취락과의 결합과 자체적 성장을 통해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보았다. 취락 규모의 대형화와 이에 따른 사회조직의 불안정성 증가, 다시 말해서 농경 집약화 과정으로 인한 인구집중이 있었고, 해체과정에서 인구분산이 일어났던 시기에 해당한다는 연구결과와 연결시키고 있다. 이론적으로 충분히 논의 가능한 가설이고 어느 정도 수긍할만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현재의 정치하지 않은 편년 연구 수준⁶⁾에서의 논의라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며, 취락과 집단의 정주도 및 이동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주거지 이외의 무덤, 저장시설, 의례공간, 생산지 등 광의의

4) 토론자는 연기 송원리취락이 가옥 60여동의 거주 인원에 해당하는, 즉 500인 이상이 동시에 공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치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서 일단 발표자의 견해를 존중하는 선에서 토론에 임한다.

5) 그렇지만 중심취락 외부의 중위취락이나 일반취락과의 상호 관계는 직접(종속)관계가 아닌 간접(호혜)관계로 추정한다.

6) 전기의 절대연대를 기원전 1300년 또는 1200년에서 900년 또는 800년까지로 볼 경우, 전기전엽-중엽-후엽의 시간폭은 최소한 100년 이상이다. 최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동남해안권의 청동기시대 편년을 40년 단위로 설정한 안재호(2011)의 검토나 호서지역의 전기 청동기 편년을 30~50년 단위로 나눈 김현경(2012)의 시도가 있었다.

취락 고고학 차원의 종합적인 해석도 필요하다. 또한 대규모 유적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토지 점유에 의한 누적의 결과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취락고고학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세밀한 편년을 통한 단위 취락의 공시성 확보이다. 다만 편년연구와 취락연구는 지속적으로 병행해가면서 진전시켜야 한다.

「송국리형취락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토론문

고민정
경남발전연구원

발표문은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인간집단)의 대표적인 송국리형취락의 모습을 통해 본 생산과 소비에 관한 내용이다. 머리말에 언급하였듯이 그동안 생산과 소비에 관한 연구는 자료의 부족과 해석에 대한 한계로 어떤 특정유적이거나 지역 문화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청동기시대의 생산과 분배, 소비의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구, 취락, 지역수준의 범위에서 유구와 유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송국리형주거지를 대상으로 하여 개별 주거내의 생산과 소비, 취락 내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주거지 내부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별 주거지내의 생산과 소비형태에 대해 논의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동기시대 생산과 소비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해석이 기대된다. 토론자는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생산과 소비에 관한 연구가 미진하여 심도 깊게 연구성과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토론문은 발표자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은 송국리형주거지 내 생산에 관한 것이다. 송국리형주거지 내부의 타원형구덩이는 석기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모든 타원형구덩이를 석기생산과 관련된 절대요소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렇다면 취락 내에서 타원형구덩이의 출토양상을 통해 석기생산 관련 주거지와 그렇지 않은 주거지를 구분할 수 있다면 취락 내 생산공간과 더불어 석기 생산 및 소비형태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취락 내에서 이러한 양상이 확인된 예가 있는지 알고 싶다.

두 번째 질문은 송국리형주거지와 소비에 관한 것으로 이는 소비의 범위를 주거지 내로

한정한 것이다. 노지로 변용된 타원형구덩이와 주거면의 소토부는 모두 화기를 이용한 소비 영역으로 추정하고, 저장공은 소비를 위한 저장공간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청동기시대 후기 송국리형주거지의 내부구조 중 노지로 변용된 타원형구덩이나 주거면의 소토부가 확인된 주거지는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이를 송국리형주거지 내의 소비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발표문에 취락 내 소비 공간으로 야외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송국리형주거지로 구성된 취락에서는 주로 야외노지가 공동의 조리 및 공동생활공간으로 기능하였으므로 취락 내 공동 소비의 형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세 번째 질문은 송국리형취락과 토기생산에 관한 것이다. 청동기시대 후기의 토기생산 관련자료는 여러 유적에서 토기 가마가 확인되고, 관창리B유적이나 대평리유적 옥방9지구와 같이 토기생산 전용공간이 존재한다. 토론자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토기 생산체계에 대해서 가내제작(Household production)의 형태와 가내공작(Household industry)의 형태(이성주 譯(Carla M. Sinopoli(1991) 著) 2008)가 공존하였다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가내제작(Household production)은 개별 가족 안에서 소비하기 위한 소규모의 토기생산체계이고, 좀더 발전된 형태의 가내공작(Household industry)은 한 가족 수준의 토기 제작이지만 소비의 범위는 한 가족의 수준을 넘어서 교환하거나 내다 팔기위한 토기 생산체계로 정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전업적 전문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공방을 갖춘 형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고민정 2011), 송국리형취락 내에서 토기 생산형태 및 토기 제작집단의 성격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네 번째 질문은 송국리형취락과 석기생산에 관한 것이다. 발표자는 대부분의 송국리형주거지에서 석기를 제작해서 공급한다면 이에 대응될 수 있는 수요처는 어디인가? 또한 석기 제작과 농사에 드는 시간과 노동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석기의 공급처는 두 번째 질문과도 연결되는 것인데, 취락 내 석기제작 주거지와 비제작 주거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석기를 제작한 흔적이 있다면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대개 한 가족 수준의 소비 범위에서 석기를 제작했던 것인가? 한편, 발표자는 대평리유적의 예로 볼 때, 석기 뿐만 아니라 옥장신구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과 분업 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론자는 대규모의 경작지를 바탕으로 한 농경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반농반공의 형태로 도구 생산과 농경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적색마연토기, 마제석검, 옥장신구와 같은 특정유물에 대해서는 반전업적 전문적인 공인에 의해 생산되어 인근 지역으로의 분배가 이루어진 가내

공작(Household industry) 생산체계를 갖추었다고 추론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다섯 번째 질문은 송국리형취락의 구성원-인구-에 관한 것이다. 청동기시대 생산체계와 소비의 변천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가구의 범위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가구는 보통 ‘함께 거주하는 경제공동체’ 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공동체와 지역 단위에서 생산과 사회 발전을 편성해가는 핵심요소로 볼 수 있다. 발표자도 취락의 구성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이며, 송국리형주거는 대부분 10여동 내외의 주거로 구성된 사례가 많고 대략 50여명 내외(한 가구당 4~5명 정도)의 구성원이 존재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관창리취락이나 대평리취락 등을 보더라도 다수의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 동시성 문제를 고려하여 대략 40~50여동 이상이 취락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취락 구성원은 200~250명 이상일 것으로 생각된다. 발표문에 제시한 바에 따르면, 취락 구성원이 150~200명 이상일 경우 단일 집단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내적 위계가 형성되거나 집단의 분화가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이라면 송국리유형 문화단계에도 계층화 사회로 가는 여러 양상들이 취락 내에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여섯 번째 질문은 취락 내 소비에 관한 것이다. 발표자는 송국리형취락은 가족분화가 활성화되어 소집단 체제가 발달하고 분업화와 교환체계 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았는데, 이런 사회에서는 잉여생산물이 발생하게 되고 부의 축적도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취락 내 소비의 범위(공간?)로서 야외노지와 공터(광장)를 제시하고, 야외노지의 개별주거와의 배치나 야외노지군의 배치형태를 통해서 소비단위와 성격을 파악하였다. 야외노지와 공터(광장)라는 소비의 범위(공간)는 주로 식생활이나 공공의 의례활동 등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석기나 토기와 같은 수공업품 생산물에 대한 취락내 구성원들 간의 소비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일곱 번째 질문은 취락 간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문제이다. 청동기시대 취락은 후기 전반에 제사장과 같은 우월한 특정개인이 일정 구역에 독립하여 거주하는 구조에서 후기 후반에는 분업적 취락으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관창리취락은 분업적 취락의 복합형이며, 오석리취락은 제의집단, 대흥리취락은 저장성이 강한 집단, 원북리취락은 경작집단으로 모델화하고 있는데(안재호 2006: 160-163), 이러한 분업적 취락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취락간의 생산과 소비의 형태는 어떠했는지? 영남지역에서는 적색마연토기의 분포를 통해 취락간의 분배나 교류의 흔적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대평리취락에서는 부장용 외에 일상용 적색마연토기도 다수 제작되어 토기생산의 중심지로 이해되고, 주변 취락과

의 분배나 교류의 흔적 등이 확인된다. 또한 특정기형의 적색마연토기 장경호가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데, 주변지역에서 한 두 점 확인되는 예, 함안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적색마연토기 단경호가 의령지역이나 청도 화리유적에서 출토된 예는 분배나 교류의 흔적으로 생각하고 싶다. 혹시 그 외 다른 지역에서도 이처럼 취락간의 분배나 교류의 흔적이 확인된 예가 있는지? 또한 그러한 분배나 교류의 흔적이 있다면 취락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참고문헌

- 고민정 & Bale, Martin T., 2008, 「청동기시대 후기 수공업 생산과 사회 분화」 『한국청동기학보』 2, 한국청동기학회.
- 고민정, 2011, 「청동기시대 후기 무문토기 생산체계」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30주년 기념 고고학 논총』 .
- 安在晧, 2006, 「靑銅器時代 聚落研究」,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주 譯(Carla M. Sinopoli(1991) 著), 2008, 『토기연구법』, 경남고고학연구소 번역총서1, 考古.

〈경작유적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의 생산과 소비〉 토론문

유 병 록
우리문화재연구원

발표자가 준비한 내용은 토론자 역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온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생산’ 적 측면보다는 ‘소비’ 적 측면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늘 미지의 영역처럼 느껴졌었다. 발표자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대표적인 농경생산유적을 직접 조사하고 연구한 대표적 연구자로서 생산부분에 대한 많은 정보와 연구성과를 가지고 있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역시나 본 토론자와 마찬가지로 소비 적 측면을 고고학적방식으로 이해하고 논증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발표자 역시 다소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번에 그러한 논의의 본격적인 시발점으로서 의미를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1. 발표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앞부분에서의 남강유역 취락들에 대한 성격분류와 이를 바탕으로 뒷부분에 곡물을 매개로 한 취락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앞부분에 남강유역 취락성격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와 발표자의 구분에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특히 중심취락부분에 있어 5가지 요소가 모두 확인되는 유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5가지 각 요소별 多少는 고려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가령 평저동유적처럼 대규모경작지에 비해 주거지 숫자는 극소수)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2. 곡물의 생산과 소비를 말하기 위해서는 결국 생산량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유적에서 출토된 곡물의 종류만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탄화곡물을 기준으로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많지는 않겠지만 한 유적내 곡물별 출토양에 대한 상대비교가 전혀 되지 않아 가령, 쌀과 기타 잡곡과의 실제 재배 비율을 가늠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유적출토 인골에 대한 안정동위원소측정결과 청동기시대는 물론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도 쌀이 主食으로 활용될 정도가 아니라는

연구(이준정 2011, 31-66쪽)대로 혹시 이를 유적자료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한지 궁금하다.

3. 본 발표문의 핵심은 기존 수공업제품(석검, 적색마연토기, 玉, 꼬막제장식품 등)을 통한 남강유역의 중심취락과 주변(일반)취락간 교환이나 분업과 같은 관계망(네트워크)에 대한 일련의 연구(고민정 2010 외;쇼다신야 2009 등)와 같이 곡물도 그와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곡물도 기존 수공업제품과 같이 동일한 의미를 가진 잉여생산물 혹은 특수목적생산물이 될 수 있느냐이다. 중심취락인 대평리취락의 경우 대규모 생산시설을 가지고는 있지만 발표문에서도 지적하듯이 輪作의 문제점으로 인한 실제 경작면적의 제한문제 뿐 아니라 당시 곡물수확량이 과연 주변 취락까지 보급할 정도의 잉여생산물이 있었느냐도 중요한 문제이다. 대평리취락내 경작지면적에 비해 저장시설로 추정되는 고상건물이나 옥방 1지구 16호와 같은 수혈¹⁾이 210기가 넘는 주거지와 당시 상주인구가 수 천에 달했을 가능성이 제기(이상길 2002)된 것에 비해 숫자가 극소량이라는 점에서 당시 거주인구의 自給도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오히려 주변취락에서 중심취락을 위해 평거동유적과 같이 생산취락의 역할²⁾을 하였을 것이다. 한 유적내 주거지와 무덤(의례)이 적당하게 확인되는 경우나 무덤 중심인 유적인 경우에 대평리유적과의 관련성을 찾지 못한 소규모취락들의 경우 생계는 자급자족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표 11>의 주변취락의 '소비전문취락' 상정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공업제품의 경우에도 엘리트집단 자체가 소비집단(고민정 2009, 97쪽)이며, 곡물 저장과 관련되었다고 여겨지는 대형 호형토기, 수혈, 고상건물이 환호 안쪽에서 확인된다는 점에서 엘리트집단의 통제 가능성이 보여지는 바 중심취락 자체가 또한 곡물의 소비집단(김장석 2008³⁾)이라 할 수 있다.

4. 위 3번과 연동되어 중심취락에서 하위취락과도 같은 주변취락에 곡물을 분배할 이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수공업제품을 배분함으로써 서로간 상하관계든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곡물을 제공(상납?)받거나 경작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1) 대평리취락(옥방유적과 어은유적)내 고상건물은 12기에 불과하며, 수혈은 426기가 집계(고민정 2009, 94쪽)되지만, 수혈의 대부분이 깊이가 30cm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곡물저장시설로 보기 어렵다.

2) 평거동유적은 초전·초장동유적의 배후생산취락일 가능성이 크다.

3) 호서, 호남지역의 송국리단계 취락을 소비전문유적, 일반유적, 저장(수혈중심)전문유적으로 나누고 송국리유적과 같은 중심취락은 소비전문유적으로 분류한다. 저장전문유적은 전적으로 중심취락을 위한 유적으로 소비전문유적에서 통제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이번 주제와 부합할지는 모르지만 대평리취락은 ‘都市’ 로의 가능성(이상길 2002)에 거론될 정도로 다양한 유구와 많은 인구, 전문공인, 엘리트집단, 환호와 같은 대규모공사 수행능력, 교역을 위한 교통망 등 일반적인 도시의 개념에 가까운 부분이 존재한다. 다만, 이 개념에 대규모 경작지는 고려되지 않는 편인데, 이러한 대규모 소비집단을 위한 배후시설로서 경작지를 완비한 ‘한국적 청동기시대 도시’ 로 규정⁴⁾할 수는 없는지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참고문헌

- 고민정, 2008, 「청동기시대 후기 농경 집약화와 사회조직 -진주 대평리유적을 중심으로-」, 『경남 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논집』 제 1호.
- 고민정, 2010,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구조와 성격」, 『嶺南考古學』 54.
- 김장석, 2008, 「송국리단계 저장시설의 사회경제적 의미」, 『韓國考古學報』 제67집.
- 裴德煥, 2008, 「嶺南 南部地域 青銅器時代 住居址 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考古美術史學課博士學位論文.
- 쇼다신야, 2009, 『청동기시대의 생산활동과 사회』, 학연문화사.
- 李相吉, 2002, 「우리는 왜 남강유역의 유적에 주목하는가」, 『청동기시대의 大坪·大坪人』, 국립진주박물관.
- 이준정, 2011, 「作物 섭취량 변화를 통해 본 農耕의 전개과정 -한반도유적 출토 人骨에 대한 안정동위원소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제73호.

4) 배덕환은 일본 야요이시대의 도시적 요소를 대평리유적에 적용한 결과 ‘농업에 입각한 도시(오스트리아 고고학자 R.Fletcher, 1995)’로 규정하였다(2008, 154-155쪽)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석기생산 시스템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 권 중
중부고고학연구소

1. 자가소비형과 전문생산형의 구분 기준을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가시적인 차별적 기준으로 개념을 한정하였다. 자료의 한계상 이러한 가설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또한 상대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뿐 각종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가령 자가소비형의 경우 석기의 제작이 용이하거나 또는 석기의 제작을 필요로 하는 특정 기간이나 계절에 남겨진 주거지와 같은 경우에 전문생산형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2. 상대적인 기준이지만 석기생산 취락을 자가소비형 취락, 분업형 취락, 반전업형 취락, 전업형 취락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 가운데 반전업형 취락은 취락 내 자가 소비 단위의 반전업형 장인과 석기생산 전문취락으로 설정하였다. 취락의 생계를 농경을 기반으로 하되 석기의 생산과 관련된 제작품의 유통을 통해 생계의 비중이 분산되는 형태로 보고 있다. 반드시 농경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가? 생계의 비중이 분산된다면 어느 정도인가? 기준이 모호하다.

3. 석기의 유통은 소형 석기류 보다는 석검과 같이 특수한 용도의 석기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전기의 늦은 단계로 편년되는 팔계천유역의 매천동유적은 합인석부(이단병식석검)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이 내용의 의미를 확대 해석한 것이지 모르겠지만 혼펠스제 석검을 제외한 다른 석기의 생산에 대한 분석이 없었는데, 석기생산 전문취락 가운데 특정 석기를 제작하는 집단을 상정한 것인가? 아니면 특정 석기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것인가?

4. 고령의 대표적인 석기제작장 유적인 봉평리 575-1유적은 석기제작에서 1차 정형단계(큰떼기와 잔떼기)의 유적이고 이를 공급받는 동천동취락은 2차 정형단계(고타 및 마연)의 취락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 봉평리 575-1유적과 동천동취락은 어떠한 관계를 상

정할 수 있는가? 공급? 파견? 이를 증명할 근거도 함께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5. 본 발표의 내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중 중요한 해석의 문제가 있다. 석기를 제작하는 것이 과연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우매한 생각이지만 특정 석기-석검(유절병식)과 같은 것을 제외하면 석기의 생산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누구나 제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전문성을 요하는가? 아니면 특정 석기의 제작과 사용을 특정인에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